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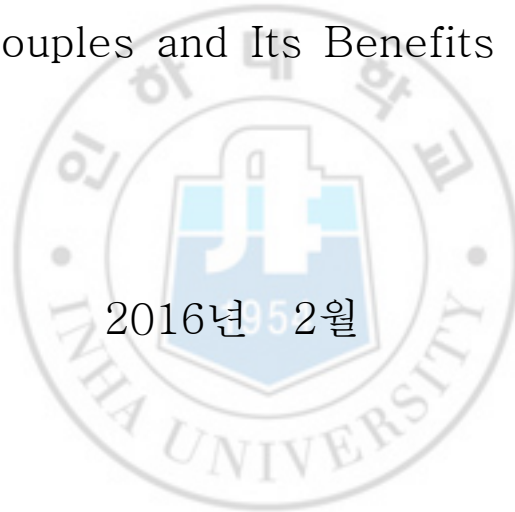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Development of a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Its Benefits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김금희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Development of a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Its Benefits



2016년 5월 2일

지도교수 이 영 선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김 금 희



博士學位論文 認准

2016년 2월

주심 김 영 순



부심 이 영 선



위원 정 기 섭



위원 장 형 심



위원 이 효 정





목 차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i
논문개요	ix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7
A. 부부 의사소통	7
1. 의사소통	7
2.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12
3.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17
B. 부부갈등	30
1.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30
2.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35
C. 부부적응	40
1.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	40
2.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	44
D. 선행연구	48
III. 연구 방법	56
A. 중재 프로그램 개발	57
B. 프로그램 실행 및 효과 검증	64
1. 연구 참여자	64
2. 실험 기간 및 장소	67

3. 독립변인	68
4. 종속변인	77
1) 부부 의사소통	77
2) 부부갈등	78
3) 부부적응	79
5. 연구절차	80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예비모임	80
2) 사전검사	82
3) 중재 프로그램 실행	82
4) 사후검사	83
6. 중재 충실도	83
7. 사회적 타당도	85
8. 자료처리 및 절차	86
C. 프로그램 실행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 방법	87
D. 프로그램 최종본 개발 방법	88
IV. 연구 결과	90
A.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와 실행전략	91
B.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효과	104
1.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106
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107
3.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109

C.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110
D.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 개발	139
V. 논의 및 결론	147
A. 논의	148
1.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	148
2.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실행 효과에 대한 논의	151
3.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의	157
B. 연구의 의의	159
C. 연구의 제한점	162
D. 제언	164
참고문헌	167
부록	181
ABSTRACT	209

표 목 차

<표 II-1> 이마고 부부대화법	14
<표 II-2> Satir의 의사소통 네 가지 유형	18
<표 II-3>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20
<표 II-4>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	36
<표 II-5> 국내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선행연구	48
<표 III-1> 주요 부부대화 프로그램	58
<표 III-2> 전문가 배경 정보	61
<표 III-3> 9회기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세부내용	63
<표 III-4> 연구 참여자 정보	65
<표 III-5> 연구 단계 및 연구 기간	68
<표 III-6>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구성	69
<표 III-7> 프로그램 1회기	70
<표 III-8> 프로그램 3회기	72
<표 III-9> 프로그램 5회기	73
<표 III-10> 프로그램 7회기	75
<표 III-11> 중재 충실도 문항 및 결과	84
<표 III-12> 사회적 타당도 문항 및 결과	85
<표 III-13> 인식과 경험에 대한 사후면담의 핵심 질문	87
<표 III-14> 전문가 배경 정보	89
<표 IV-1> 9회기 프로그램의 개요	92
<표 IV-2> 프로그램 구성요소	94
<표 IV-3> 프로그램 실행전략	100
<표 IV-4> 연구 참여자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기술통계	104

<표 IV-5> 집단별 부부 의사소통 사전-사후검사 및 교정된 사전-사후 검사 차이의 기술통계	106
<표 IV-6> 부부 의사소통의 사전-사후검사 차이의 공변량 분석도 ..	107
<표 IV-7>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 부부갈등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 비교	108
<표 IV-8>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 부부적응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 비교	109
<표 IV-9>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군과 주요 의미코드	111
<표 IV-10> 전문가 의견에 따른 수정내용	140
<표 IV-11> 9회기에서 11회기 주요 수정내용	142
<표 IV-1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	143



그림 목 차

[그림 II-1] Lasswell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8
[그림 II-2] Shannon & Weaver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9
[그림 II-3] 상호작용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10
[그림 II-4] 교류적 의사소통 모델	11
[그림 II-5] 이중 관심 모델(Dual Concern Model)에 의한 갈등해결 유형	34
[그림 III-1] 프로그램 개발 및 절차	57
[그림 III-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절차	81
[그림 IV-1]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절차	90



부 록 목 차

<부록 1> 예비 프로그램

<부록 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설문지

<부록 3> 부부 의사소통

<부록 4> 부부갈등

<부록 5> 부부적응

<부록 6> 중재 충실도

<부록 7> 사회적 타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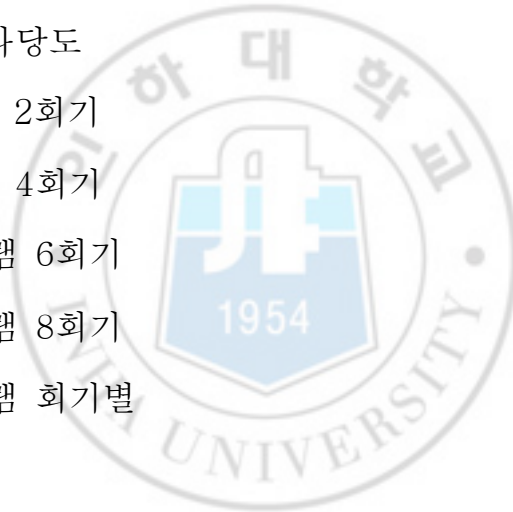
<부록 8> 프로그램 2회기

<부록 9> 프로그램 4회기

<부록 10> 프로그램 6회기

<부록 11> 프로그램 8회기

<부록 12> 프로그램 회기별





논문 개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금희 (Kim, Gum Hee)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개인이 결혼생활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생활에서 부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화, 언어적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 부부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부부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부부간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정 부부에게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적응, 한국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의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 갈등해결, 부부적응 등 부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부가 직면한 언어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함께 결혼생활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문가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부부대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상담기법을 적용한 부부대화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문헌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부의 소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와 실행전략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요소와 전략을 기반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예비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수정·보완하고, 상호이해와 대화전략,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한 본 프로그램을 9회기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지적 모델 강의 및 참여자들의 부부대화경험의 발표·시연, 신체적·정서적 활동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12쌍(실험집단 6쌍, 통제집단 6쌍)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 갈등해결,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공분산분석(ANCOVA)을,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관한 사전-사후검사는 두 중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변화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의 현장관찰일지와 프로그램 과정 시 녹취록을 전사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을 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면담 내용에 대해 질적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 수정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전문가 3인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

발된 다문화가정을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요소는 자신과 배우자의 성향에 대한 상호이해, 부부대화법을 중심으로 협력적인 갈등해결, 부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이며, 참여촉진을 위한 실행전략은 개별상담 및 지원, 심리검사를 통한 이해증진, 인지적 모델링, 학습의 전이증진, 집단 내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이었다. 둘째,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부부 의사소통 향상에 있어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부부 갈등해결에 있어서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부부적응이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섯째, 질적 분석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이 부부의 대화 및 부부 갈등대처능력, 부부의 친밀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부부간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대화방식을 학습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부는 부부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부부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 성격 등을 알아감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부부대화를 통해 실제로 부부갈등을 해결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부부는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경험을 하였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가 관계중심 대화방식인 반영, 인정, 공감을 통하여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문

화가정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 갈등해결,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부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실행 중 실험집단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들의 남편들 역시 아내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소수의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부부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부소통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검증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화적 촉진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가 상호 원활한 언어구사가 가능한 중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주제어: 부부 의사소통, 부부 갈등해결, 부부적응, 느낌대화, 대화전략, 관계향상,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협력적 의사소통, 문화적 촉진자, 개별지원, 인지적 모델링,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 사회는 다른 국가 간에 발생하는 인구 이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회이다. 행정자치부(2015)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구는 약 174만 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형별 인구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34.9%, 재외동포 16.4%, 결혼이민자 8.5%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 다양성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상황임을 나타낸다. 국내 다문화 사회의 형성은 외국의 다문화 사회 형성과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민정책과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였지만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결혼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한재희, 2011). 특히, 1990년 중반부터 지역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되어 현재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중국의 조선족 여성, 일본, 필리핀 등에서 종교적 동기에 의한 국제결혼,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한건수, 설동훈, 2006). 최근 들어,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는 급속한 증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한국 문화적응 등의 프로그램과 정책 등이 교육과학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적인 차원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체험, 한국음식 만

들기(김치 담그기), 한국 전통문화 익히기, 다문화이해교육, 이중 언어 강사, 통·번역 서비스, 가족 이해, 부부이해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상은 여성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꾸린 새로운 가정 즉,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이다. 한 가정 내에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이 존재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심각한 갈등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언어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인 가정 내 문화 충돌은 서로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나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더욱 악화된다(김금희, 김영순, 전예은, 2013). 특히 좀 더 나은 자신의 삶과 자국 가족들의 삶을 위해 결혼 중개업체 등을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단기간에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한재희, 2011). 이러한 형태의 결혼에서 부부간의 상호이해나 서로에 대한 존중, 차이에 대한 수용 등의 태도가 결혼 전에 형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곧 결혼생활 중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부부가 직면한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이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남인숙, 안숙희, 2011; 양점도, 김춘택, 2006; 이영선 외, 2015; 이혜경, 전해인, 2013). 또한 부부간에 악화된 관계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더욱 심각한 가정문제인 가정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2013). 실제로 국내의 가정해체, 즉 이혼 건수의 추이(통계청, 2014)를 살펴보면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가 2007년 약 8,000여건에서 2012년에는 10,887건으로 증가했고 총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에서 2011년에는 1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 건

수는 5,600여건에서 약 8,000여건으로, 증가의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5). 이와 같이 혼인 건수 대비 가정해체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갈등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내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이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서(위인백, 2011),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간의 소통과 이해(김금희 외, 2013)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시도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이다. 부부갈등은 개인의 가치관과 관점이 배우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인 타협과 수용, 그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장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미해결되었을 때 지속적인 긴장을 가져오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생성되는 갈등은 때로는 부부간의 결속력을 축소시키고 정서적인 단절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서적인 단절은 부부가 동반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며 부부관계 자체를 팽팽한 긴장에 이르게 만든다. 갈등을 두 사람이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부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가정해체라는 결과로 연결된다. 따라서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형성된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단절된 정서적 거리감을 다시 연결하여야 한다. 이는 곧 방해 요소들을 적절히 제거하고 타협하는 성장으로 이어진다(송미경, 신호정, 이은경, 2008; 최진아 외, 2012). 갈등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요소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계증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부간의 정서적 표현을 통한 상호 자기개방은 서로에 대한 정서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 상호욕구를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고 관계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대처에도 효과적이다(박남숙, 2000; 이화자, 김순옥, 2010). 즉, 부부간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은 상호존중과 함께 갈

등을 해결해나가는 긍정적인 탄력성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은 부부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부부의 성격에 따른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의 향상에 대한 연구(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적응과 자존감, 의사소통의 훈련을 통해 부부관계를 강화한 연구(구혜경, 유영달, 2006)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이 부부관계의 강화와 성장,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부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전략 등을 다룬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속화시켰다(최미나, 유평수, 2014).

그리고 최근 들어,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의 대상이 일반 부부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정의 부부까지 확대되고 있다(김연수, 2010; 소병숙, 정혜정, 2009; 연영란, 양수, 2012; 최진아 외, 2012). 하지만, 아직 다문화가정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몇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이 그 대상을 다문화가정 부부로 확대하여 그동안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전략을 다문화가정의 부부에게도 적용하고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에서 다문화적 요소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일반가정 부부와는 다른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 요인과 갈등 양상은,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지원이 기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부부 의사소통이나 관계증진을 위한 내용들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부부친밀감의 형성과정에서도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경험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의 특수화, 차별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다문화감수성, 다문화 부부이해, 부부

상담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갈등과 부부 상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부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이해의 증진은 부부관계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는 단순히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 더 나아가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부부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의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부부적응,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은 무엇인가?
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실행효과는 어떠한가?
 - 2.1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부 의사소통의 변화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부갈등의 변화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3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부적응의 변화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4. 프로그램 효과검증과 참여자 면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최종 개발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A. 부부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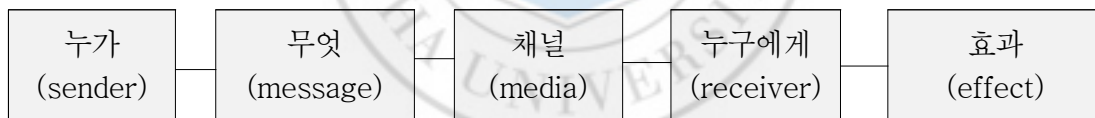
1. 의사소통

의사소통(意思疏通)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4). 영어로 의사소통을 일컫는 단어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살펴보면 ‘공통되는(common)’과 ‘공유하다(share)’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인간이 자신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과 메시지를 공유하고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전달자와 수용자가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부 의사소통(couple communication)은 대화를 통하여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간의 정서적 감정 및 행동에 대한 태도, 신뢰 등에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정의된다(Gross, 1980). 부부들은 친밀감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Christensen & Sullaway, 1984), 부부의 상호 자기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제석봉, 1996). 본 연구에서는 부부 의사소통을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부부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형태로서, 한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방식, 방법, 표현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Satir(1972)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개인이 좌절감과 부정적인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조은경(1994)은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표현, 공간적 거리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Gross(1980)는 부부간의 정서적 감정 및 행동에 대한 태도, 신뢰 등은 대화로써 서로 이해하고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Griffin(2012)은 상호간 마음속 이미지 변화를 위한 상호작용, 언어적, 비언어적 교환의 과정을 의사소통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학자별로 살펴본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Griffin(2012)은 의사소통을 “반응을 이끌어내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이라고 보았고, 이는 언어와 정보 중심으로 구성된 메시지가 전달과정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고 규정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말의 의미를 전하고 상대방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릴 때 진정한 의사소통이 성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Lasswell(1948)은 의사소통을 누가(sender), 무엇(message)을 어떠한 채널(media)을 통하여 누구에게(receiver), 전달하여 어떤 효과(effect)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의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Lasswell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출처: 오미영, 정인숙(2013). 「커뮤니케이션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85

위의 모델([그림 II-1]참고)은 Lasswell의 선형 의사소통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의사소통을 송신자가 말하고 수신자가 듣는 한 방향 또는 선형적인 과정으로 보고 어떻게 의사소통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송신자가 어떤 메시지를 음성이나 몸짓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수신자는 그 메시지를 송신자의 의도대로 이해하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만약 수신자가 받아들인 메시지가 송신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다면,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는 의사소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경우, 수신자가 메시지의 이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는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방해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Shannon과 Weaver(1949)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이해를 왜곡(확대와 축소를 포함하여)하게 하는 요소를 잡음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는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Shannon & Weaver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출처: Shannon, C. E & W. weaver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65

잡음(noise)은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송신자의 메시지 또는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의 해석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그림 II-2] 참고). 예를 들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어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수신자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표현을 부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신자와 수신자 간 다른 한국어 실력이라는 잡음을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의사소통 모델 (Lasswell, 1948; Shannon & Weaver, 1949)은 의사소통이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묘사하는 선형 모델이다. 이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듣기만 할 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중얼거리는 것 또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은 대상자가 있을 때 자신의 말을 전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알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성립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모델에서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Schramm(1954)은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메시지를 보낸 사람 즉, 송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양방향 모델인 상호작용적인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다음의 [그림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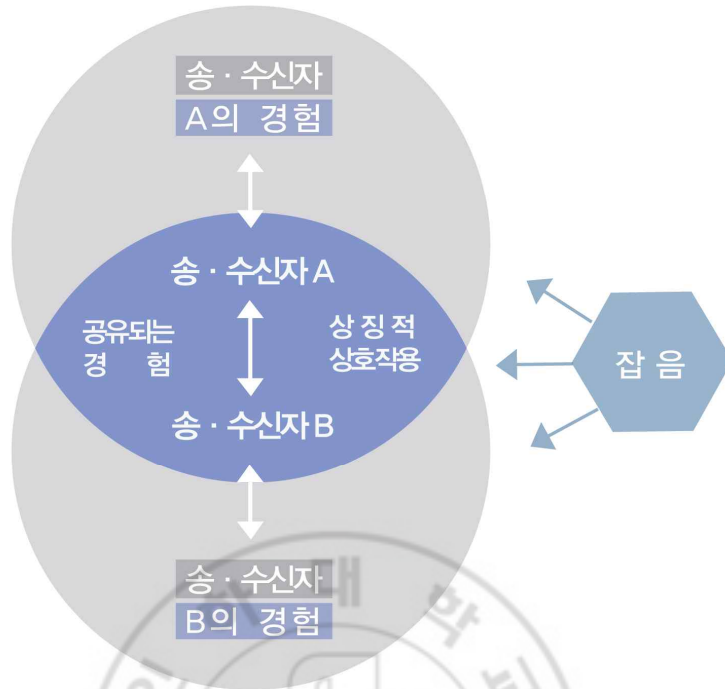


[그림 II-3] 상호작용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출처: 오미영, 정인숙(2013). 「커뮤니케이션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박스. p12

상호작용(interaction)적인 의사소통 모델([그림 II-3]참고)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메시지를 반송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다. 이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교차되며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식의 피드백 포함하여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상대의 경험과 말하는 맥락을 공유하면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송신자만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다시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상호작용으로서의 의사소통이라고 보기보다는 상호 교류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것에서 상호작용이 아닌 교류(transaction)적 의사소통 모델로 이는 다음의 [그림 II-4]와 같다.

사회적 시스템



[그림 II-4] 교류적 의사소통 모델

출처: Wood, J. T. (2009). *Communication in our lives* (4th ed.). Belmont, CA: Thomson-Wadsworth.

의사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과 피드백이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이다. 송신자와 수신자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교류적 의사소통 모델은 의사소통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위의 [그림 II-4]와 같이 송신자이자 수신자인 A와 B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되 경험 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은 자신의 배경과 경험, 태도, 문화적 신념, 자존감 등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협상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잡음이 침투하게 된다. 즉, 의사소통은 참여자

들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서로의 역할을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의 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의 모델들에서 제시된 여러 의사소통의 과정은 각 모델마다 중점을 두는 의사소통의 요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관계적 과정을 통해 메시지라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적 정보일 수도 있고, 감정과 자신에 대한 공감을 촉구하고자 하는 정서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정보나 감정 등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공유에 중점을 둔 교류적 과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좋은 또는 나쁜 관계로 만들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즉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하는 잡음과 같은 ‘방해요인’으로 인하여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 또는 악화시키는 것 모두를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이란 각 개인의 교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혹시 발생한 갈등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이 존재한다.

2.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결혼은 당사자 간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이 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

소이다.

부부 의사소통이란 부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결혼생활이라는 공유된 장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하며 이는 부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모의회, 김재환, 2002). 이처럼 부부 의사소통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동시에 부부갈등을 가져오는 양면적인 역할을 한다. 즉,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억압과 회피 등의 방식을 통하여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간의 문제 또는 갈등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받은 심리적인 영향 또는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의사소통 모델 중 개인의 배경과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부부의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는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부부갈등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오제은, 2005). 부부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처하려는 노력, 즉 관계중심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관계중심 의사소통이란 기본적으로는 부부간의 건강한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해결중심적, 협력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는 부부를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가족구성원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보는 개념이다. 따라서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결혼초기 단계의 의사소통은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듣기, 표현하기, 문제해결기술 등을 상대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은 부부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방현주, 이기숙, 2002).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의 관계를 반영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부는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의사소통방식과 부부간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관계에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배우자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관계중심적인 의사소통은 부부의 협력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넓게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과 주위 사람들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부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중재로서, 메리지 앤카운터(Calvo, 1975)와 이마고 부부대화법(Hendrix, 1999), ENRICH (Olson, Fournier & Druckman, 1982) 등이 있다. 특히 이마고 부부대화법은 부부가 반영(Mirroring), 인정(Validation), 공감(Empathizing)으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신뢰감을 쌓음으로써, 협력적인 의사소통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이마고 부부대화방법의 요소는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이마고 부부대화법

구분	내용
반영 (Mirroring)	반영은 배우자의 말을 정확하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자신의 말로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 (Validation)	말하는 사람의 말의 논리가 이치에 적합하다고 가정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공감 (Empathizing)	공감은 상대방이 경험한 감정을 반영하고 이에 공감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출처: Hendrix(1999). *Imago Relationship Therapy*. John Wiley & Sons Inc.

위의 <표 II-1>에서 제시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초기에 부부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여 부부가 서로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중심 의사소통의 개념을 접목시켜 상대방의 성장과정, 주위 사람들 등과 같은 배우자의 주변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원만한 부부관계에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부부가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Hendrix(1999)는 부부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반영(Mirroring), 인정(Validation), 공감(Empathizing)을 제시한다. 반영이란 배우자의 말을 정확하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자신의 말로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을 통해 배우자는 상대방이 표현하는 생각과 느낌에 집중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상대방을 거울에 비추듯 되돌릴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정이란 말하는 사람의 말의 논리가 이치에 적합하다고 가정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인정은 배우자의 말이 잘못된 생각이나 착각이 아니라고 확신함으로써 배우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이마고 부부대화법의 세 번째 단계로, 상대방이 경험한 감정을 반영하고 이에 공감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Rick(2009)이 인정을 통해 상대방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처럼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맥락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부부간 의사소통은 깊은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부부 의사소통은 이와 같이 자신과 배우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건강한 형태의 의사소통방식을 활용할 때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부부 의사소통은 어떠한 형태로든 부부의 변화를 유발한다.

상호간 친밀감이 부족한 부부를 대상으로 이마고 부부대화법을 활용한 김덕수(2011)의 연구를 보면, 이들 부부의 친밀감을 가로막는 원인은 새

로운 갈등보다는 원가족 내에서 미해결되었던 정서적 과제로 인한 갈등에 있었다. 따라서 부부에게 서로의 성장배경을 이해하려는 활동이 제공되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부부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 부부가 오랜 기간 갈등적 상호작용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부부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김광률(2009)은 부부대화를 통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인 메리지 앤카운터(Marriage Encounter)를 활용하여 부부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감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부부관계에 있어서 긍정성이 증진되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에 중점을 둔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부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마고 부부대화법을 적용한 윤창섭(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정적인 관계형성에서 경험된 이마고의 발견과 함께 무의식적인 심리적 역동을 통찰하여 자신의 방어기제를 탐색하고 대화방법과 대화유형, 서로의 미해결 과제를 나누어 부부의 성장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방어기제들은 부부대화 패턴의 변화와 함께 친밀한 부부관계로 변화시켰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미해결된 경험이 부부관계를 해치는 원인으로 어린 시절 독립적인 인격에 상처받은 경험이 성장 이후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과정을 적용하고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중재하여 이들의 미해결된 과제를 의식화하고 그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부부관계의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의 강, 약점을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돕는 표준화된 가족평가 도구인 ENRICH(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는 부부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강점에 중점을 두어 약점 영역을 인식하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적인 기능을 강조하도록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관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의

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권수정, 전영주, 2007).

3.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의 의사소통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부 의사소통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김금희 외, 2013; 연영란 외, 2012). 다문화가정 부부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다문화가정 부부간 의사소통의 패턴을 알아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내며 의사소통방식과 일치성을 이해하였다. 일치성은 Satir(1972)의 이론에서 부부간 균형적인 부부 의사소통을 말한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도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여 부부관계를 해치는 주요 요소 작용과 관계유형을 힘의 권력에서 설명할 수 있다.

Gross(1980)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부부간의 정서적 감정, 행동에 대한 태도, 신뢰를 가지고 대화로써 서로 이해하고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Griffin(2012)은 의사소통이 언어적, 비언어적 교환의 과정이라고 볼 때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Satir(1972)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개인이 좌절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의사소통 3대 요소로 자기, 타인, 상황으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자아존중감과 연관성이 있으며 이 중 한 부분이라도 무시당하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과정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회유형, 비난형, 계산(초이성)형, 혼란(부적절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유형의 반응이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표 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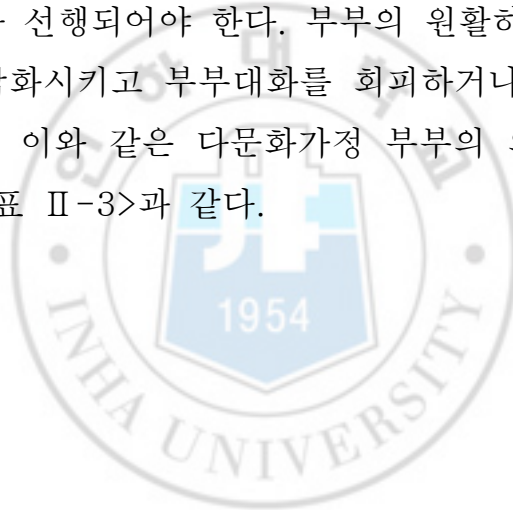
<표 II-2> Satir의 의사소통 네 가지 유형

유형	개념	행동
회유형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을 맞추는	위협과 거절에 대해 자신을 감추고 타인으로부터 화를 내지 못하게 함
비난형	상대방을 무시함	타인이 자신을 강하게 느끼게 함 (약속시간에 상대방이 가버리면 그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함)
계산(초이성)형	매우 이성적이며 정확해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 조용하고 침착함	위협을 해가 없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가치에 중심을 두고(호언장담) 지적인 개념 뒤에 숨김
혼란(부절적한)형	타인의 말과 행동에 무관하며 초점에 맞게 반응하는데 어려워하고 위협을 무시함	말에 뜻이 통하지 않으면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라고 말함

<표 II-2>에서 알 수 있듯이 회유형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내면을 보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는 유형으로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은 자신의 비어있는 마음을 숨기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난형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상대방을 무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상대방을 탓하며 비난과 화가 가득 차 있어 보이는 듯하다. 계산(초이성)형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무시하는 성향으로 과정보다 상황만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는 의사소통방법을 취하고 있는 유형이다. 혼란(부절적한)형은 산만하고, 회피하며, 철회하는 유형으로 현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무시하는 의사소통방법을 하는 유형이다. Satir(1972)의 의사소통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치형은 자기와 상대방, 그리고 상황을 모두 중요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유형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인정하고 중요시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승주, 박은영, 2013). 육혜련(2015)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부부가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해 잘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부부의 결혼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덜 겪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부부대화를 회피하거나 단절하는 경향으로 빈번하게 이어진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3>과 같다.



<표 II-3>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구분		세부내용	출처
요인	언어 및 문화차이	듣기, 말하기 표현부족	곽정임 외(2015) 김금희 외(2013) 최진아 외(2012)
		언어 및 생활방식의 차이	방현주 외(2002)
		원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 아내의 문화 배척	공성숙(2004) 곽정임 외(2015)
	개인적 성향차이	성격차이	이선희 외(2013)
		분노 조절 어려움	방현주 외(2002)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	김금희 외(2013)
		대화방법 기술부족	곽정임 외(2015) 김금희 외(2013) 김연수(2010)
유형	부정적인 대응방식	무관심과 무시하는 행동	이선희 외(2013) 한정희(2012)
		부부대화 회피, 억압과 단절	김금희 외(2013)
		언어적, 신체적 폭력	이선희 외(2013)
		가부장적인 태도 및 연장자에 대한 당연시한 존중	최진아 외(2012)

다문화가정 부부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언어 및 문화차이, 개인적 성향차이가 있고 이와 더불어 무관심, 무시, 폭력 등과 같은 부부간 부정적인 대응방식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 요인은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부간 명확한 의사전달의 어려움이 있으며, 남편들은 아내의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김금희 외, 2013). 이러한 서로의

언어, 문화의 차이는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방식에 따라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며 부부의 의사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의 언어와 문화가 달라 남편의 원가족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원문화까지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주요 요소는 남편들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김연수, 2010). 이는 평상시와 부부대화 시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서적, 물리적 폭력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친밀감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부 갈등해결을 위해 부부간의 부부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친밀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상호이해와 배려가 전제될 때 다문화가정 부부의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분히 줄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갈등해결을 위해 부부간 개인적 성향차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곽정임 외, 2015). 그러나 개인 성향은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성찰을 통해 변화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차이에 따른 요인들은 자기인식의 성장배경에서 학습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대응방식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진아 외, 2012). 다문화가정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무관심, 무시하는 태도는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희, 2012; 이선희 외, 2013).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은 폭력 등을 야기시키며, 부부의 의사소통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올바른 대화방법 등을 통해 순기능적인 대응방

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대응방식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그 근원을 찾아봄으로써 개인과 부부관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 남편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연장자에 대한 당연시한 존중에 대해 강요하기도 한다(최진아 외, 2012). 그러나 존중은 자신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자 하는 데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안정적인 적응이 이루어질 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 또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정 부부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언어 및 문화차이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언어차이와 언어수준 차이에서 시작되는 서로 다른 의미해석 때문에 의사소통 단절이나 회피, 비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미숙한 한국어 구사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원가족과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는다. 이는 나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배경까지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곽정임, 서미아, 2015; 김금희 외, 2013; 원서진, 송인옥, 2011). 이 외에도 부부간 대화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현주 외, 2002).

두 번째, 개인적 성향차이로 인해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부부는 각자의 성장배경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격, 신념 등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결혼생활을 꾸려가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부부도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이기 이전에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생길 수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이와 같은 개인적 성향차이와 더불어 국가적, 민족적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김금희 외(2013)의 연구에서는 서로의 배려가 부족하고 부부대화방법이 서투른 것은 개인적 성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곽정임 외(2015), 이선희, 임성문(2013), 한주리, 허경호(2004)의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분노조절이 어려운 개인의 성향이 부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10; 방현주 외, 2002).

세 번째는 부정적인 대응방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개인의 성향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부들의 무관심, 억압과 회피, 비난, 분노 표출, 단절, 폭력 등의 대응방식은 부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김금희 외, 2013; 이선희 외, 2013; 이화자 외, 2010; 한정희, 2012). 다문화가정이 언어와 문화 등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부 의사소통에서 이들의 유형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한국 문화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남편들은 아내의 원문화를 간섭하고 통제할 뿐 타협하거나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인 남편들의 가부장적인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소통과정에서 서로에게 충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발생한다(강유진, 1999; 김세련, 이인수, 2010; 이현우, 2011; 지은진 외, 2012; 홍미기, 2009).

2)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을 위한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편의 원가족이 자신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 등이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으며, 홍미기(2009)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여성(예: 대졸보다 고졸 학력을 가진 경우)과 결혼기간 및 한국의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이 문화적응이 낮고, 직업이 없는 여성이 직업을 가진 여성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우(2011)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많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문화가정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의 지배와 순응이라는 불균형적인 의사소통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증진과 결혼 불만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예: 메리지 앤카운터(Marriage Encounter), 부부의 성 의사소통과 혼합한 부부대화법 집단프로그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MCCP) 등).

위에서 언급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연수(2010)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증진과 역할분담을 살펴보고자 이들에게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부부갈등 찾기 등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계획하고 역할분담을 위한 부부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의사소통 및 자기관리는 부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의 증진을 위해 부부대화 시나 전달법(I-message)을 통해 명확한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을 전달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의

질과 부부친밀성 증진, 부부의 애정과 관심 증가, 분노조절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

도시지역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로 최진아 외(2012)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에서 부부친밀감 증진을 위해 커플요가와 같은 신체적 접촉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대화방식, 부부갈등 이해 및 관리에 대한 대화연습을 하였다. 또한 부부갈등 시 분노조절과 문화적 차이 이해를 위해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이해증가, 긍정적인 대화방식과 갈등대처방식의 사용, 부부대화의 빈도수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소병숙 외(2009)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부부의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 부부문제 찾기, 배우자의 장점을 찾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나누고 그에 따른 부부의 변화를 확대하였으며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적 이론을 적용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의 효율성 등을 향상시켰다. 그 외에 다문화가정 부부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통합적 치료에 대한 연구(김정옥, 2013)에서는 부부친밀감 향상을 위해 부부간 얼굴에 팩 붙여주기 천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표현하였으며 모래치료 등의 신체적 접촉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연영란 외, 2012)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부 의사소통, 갈등해결, 결혼만족 향상을 위해 ENRICH(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프로그램의 장점인 '관계강점 영역'과 '성장필요 영역'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개인의 성격특성 및 유형, 의사소통 및 갈등해소, 재정관리 및 여가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중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접촉(발 마사지 해주기), 적극적인 자기표현, 경청의 기술, 갈등해결방식 등이 부부간 친밀감과 의사소통의 증진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미나 외(2014)는 다문화가정 부

부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부부적응, 프로그램 영역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Gottman의 이론을 적용한 ‘Gottman의 행복의 집’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부부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향상되었고, 서로의 문화차이를 이해하여 부부적응을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신희천 외(2011)는 문화적 이해, 부부갈등, 경제적 수준, 원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편견, 자녀양육 및 교육 방식의 차이, 부부싸움 이후 소극적인 화해방식 등 다문화가정 부부의 어려운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부간 의사소통방식, 부부역할 문제, 부정적인 간섭, 결혼 전 교제기간 등이 있다(양순미, 2006; 장진경, 신유경, 2013; 한정희, 2012). 먼저,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상대방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관하여 한국인 부부가 겪는 문제에 언어장벽까지 가중되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우자의 잘못된 언어표현 및 대화 도중 말의 의미전달과정에서 오는 오해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저해하고 부부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김금희 외, 2013). 이를 해결하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부부의 일상생활에서의 칭찬, 배우자의 배려, 표현의 자유, 공감적 태도 등과 같은 협력적인 의사소통은 부부의 동반성장까지 가져온다고 보았다. 부부는 올바른 방식의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의견을 인정하고 깊은 수준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부의 반영, 인정 및 공감은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부부역할 문제가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여성은 결혼 이후 자녀양육을 담당해왔고 개인의 주체적인 존재보다는 아내,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던 사회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한

국인 남편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아내,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김연수, 2007; 성현란, 2011; 양순미, 정현숙, 2006; 추현화 등, 2008). 게다가 양육하는 데 있어 아내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여 남편인 자신의 문화 및 한국 문화 모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이처럼 한국인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높을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적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부는 결혼 전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연구진, 연문희, 양지웅, 2013). 결혼 전의 교제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다문화가정 부부는 한국인 부부에 비해 결혼초기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기간이 짧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부부 의사소통 기술을 터득하며 문화적응과 협력, 사회적 지지의 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하여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부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부부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를 고려하지 못해 한국인 남편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에서는 아내의 미숙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내용 전달 자체가 어려웠고, 더 나아가 남편의 지속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부부 갈등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전달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중간에 문화적 촉진자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신체활동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비언어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남편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부부는 일반 부부에 비해 부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김정옥(2013)은 다문화가정 남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숙박형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최진아 외(2012)는 다문화가정 부부 5쌍을 대상으로 관계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이해 증가, 의사소통방식 개선, 분노조절, 결혼만족도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척도, 갈등해결양식,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또한, 소병숙 외(2009)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이론을 기초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통해 의사소통 효율성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의사소통기술 및 대화방법 습득 등이 부부 갈등해결 및 대화기술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부부의 친밀성에서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언어적 어려움 등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충분히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존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부부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남인숙 외, 2011; 송미경 외, 2008; 오금숙 외, 2013; 이해경 외, 2013). 부부의 생활만족도, 교육정도,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는 여성들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부부집단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전달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김정옥, 2013; 소병숙 외, 2009; 송미경 외, 2008; 연영란 외, 2012; 최미나 외, 2014; 최진아 외, 2012). 예를 들어 최미나 외(2014)는 Gottman(1983)의 부부이론에 기반을 둔 방식을 가지고 부부들의 자아존중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합리적 신념체계로 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향상시켰으며 부부간 이해와 수용, 만족이 부부적응을 향상시켰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최진아 외(2012)는 도시지역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상대방존중, 배려, 의견, 문제해결 및 문제조절 등 또한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관계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간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부부갈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의 개인 연구가 필요하고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촉진자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김정옥(2013)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부부친밀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체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문화가정 부부가 활동을 통한 친밀감 향상을 보인 프로그램들은 부부문제를 다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으므로 친밀감 향상을 위한 활동들은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에 제안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대화에서 사용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통방식이 남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내었다. 결혼초기 부부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일반인 부부의 의사소통 검사지 활용하여 의사소통기술 및 친밀감 향상, 배우자의 이해와 문제해결 대처방안에 대해 운영하였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듣기, 표현하기, 말하기 등의 올바른 사용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 표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방현주 외, 2002). 공성숙(2004)의 연구에서는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 증진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Gottman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특징에 대한 강의 및 긍정적 감정 되살리기, 부부 애정지도 만들기, 갈등조절 방식 익히기, 위협요소 피하기, 부드럽게 대화하기, 상대방과 타협하고 관계회복 시도하기 등의 내용요

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감정조절과 갈등대처방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곧 의사소통의 악화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권수정 외(2007)는 ENRICH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내용은 ENRICH 검사,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I-message), MBTI 검사, 함께하고 싶은 재정관리 등으로 구성되었고, ENRICH에 포함되는 부부관계영역 내용으로는 부부집단 6쌍의 부부대화, 결혼만족도, 갈등유형이었으며,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원가족 이해, 영적성장, 부모역할, 성적친밀감, 여가활동 등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앞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정 부부가 갖고 있는 언어장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부부대화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신체적 접촉 등의 활동으로 효과를 보았던 것 이외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아내의 미숙한 한국어 능력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비언어적 요소인 감정이나 의견의 긍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했다(이현주, 손승남, 2014).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남편이 아내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프로그램 구성 시 필수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여성 결혼이민자의 언어적 수준을 고려한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B. 부부갈등

1.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부부갈등은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성격차이, 배

우자의 부정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발생한 충돌이나 대립을 말하며, 사전적 의미로 갈등은 서로 얽혀서 충돌하고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결정적 측면에서 갈등은 상호간의 의사전달에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행동방식에 있어 개인 또는 상호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정의된다(March & Simon, 1993). 부부갈등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서로 충돌하는 욕구와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발생했을 때 형성되는 배우자간의 대립이나 긴장, 자신과 타인과의 투쟁을 의미한다(Coleman, 1984; Scanzoni & Szinovacz, 1980). 즉, 부부갈등은 부부의 의사소통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부부간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갈등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부부는 결혼생활과 가족구성원 간의 접촉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포함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동반되지 못할 때 부부갈등을 겪게 된다. 부부갈등이란 개인의 욕구가 배우자의 결혼생활 전반에 반영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충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둘 사이가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하였다(Gottman, 1983; Krokoff, 1990).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 즉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충돌이라고 보았다. 또한, 갈등이란 의사결정의 표준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겨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개인이나 집단이 곤란을 겪는 상황으로 하나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적, 언어적, 상징적, 감정적 반응들이 또 다른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반응들과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March 외, 1993; Robbins & Judge, 2009). 갈등은 갈등이 발생한 대상에 따라 개인적 갈등, 개인 간 갈등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적 갈등이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은 채로 선택해야만 할 때 발생하는 내적갈등을 의미한다

다. 개인 간 갈등은 조직 내에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개인 상호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유형은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나 가치 등이 반드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한주리, 장해순, 이인희, 2007).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의사가 집단에서 무시당할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 갈등은 외적행동 수준, 언어수준, 감정수준 등의 여러 수준에서 발생한다(Jones & Brinkert, 2008). 앞에서 언급한 세 갈등의 유형 중 개인 간의 갈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관계갈등과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관계갈등이란 상호관계에 감정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Jehn, 1997). 다시 말해, 관계갈등은 집단구성원 간 사고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좌절과 신뢰의 부재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기인한다. 성격적 충돌을 의미하는 관계갈등은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인 불일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는 부부갈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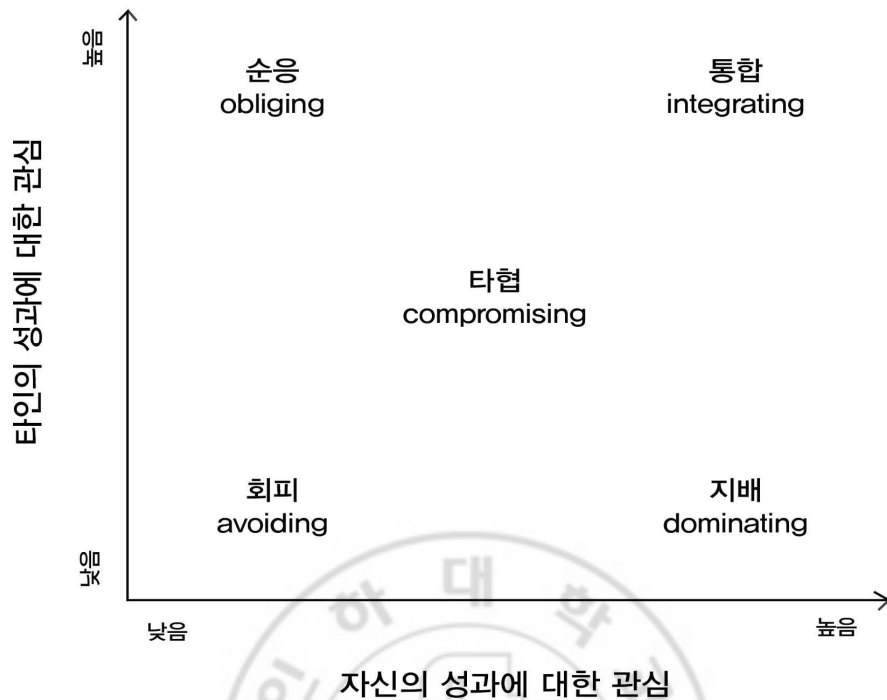
부부갈등의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 간의 불화, 성격의 차이 등이 있고, 이로 인해 부부간에 발생한 충돌이나 대립으로 외적행동 수준이나 언어수준, 감정수준 등 여러 수준에서 갈등이 발생한다(Jones 외, 2008). 즉,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협력을 통해 해결하거나 최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6). 부부갈등의 주된 원인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김금희 외, 2013). 개인은 자신의 욕구가 배우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좌절을 겪으며, 부부사이에서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갈등은 더욱 악화된다.

이 외에도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은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무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부부간 서로에 대한 무관심(Beck, 2005; Krokoff, 1990)을 비롯하여 부부간 권력의 불균형(Raush 외,

1974)과 성역할의 계층화(Collins, 1979) 등이 있다. 특히 부부간의 남녀 성 차이에 따른 역할과 성격차이는 부부갈등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원활한 결혼생활 유지를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양영숙, 2008; 연우석, 채규만, 2014; 윤애란, 이인수, 2013; 이동숙, 2008).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부부갈등의 기저에는 부부친밀감의 부족 또는 부재가 존재한다. 부부친밀감이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부가 정서적으로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관심과 존중, 배려와 같은 부부친밀감이 부재하게 되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부부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친밀감이 높은 부부의 경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개방적이며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숙, 2008). 이는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부의 친밀감 회복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부부친밀감의 내용이 강조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Rahim(1983)은 개인 간 갈등에 관한 대응방식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통합(integrating), 순응(obliging), 지배(dominating), 회피(avoidance), 타협(compromising)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다음의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5] 이중 관심 모델(Dual Concern Model)에 의한 갈등해결 유형
출처: Pruitt & Carnevale (1993).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Buckingham,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위의 [그림 II-5]의 분류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차원에 의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란 자신의 관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란 상대방의 관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의 성과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을 때 나타나는 의사소통방식인 통합은 상호간 협력적인 방식으로 각자의 욕구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의사소통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욕구와 관심을 존중하여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협력(collaboration) 또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표현되기도 한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방식은 반드시 위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언어, 문화, 소통에 대한 인식과 태도, 두 사람의 관계의 질적 또는 양적 수준에 따라서 의사소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순응은 자신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성과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높을 때 나타나는 의사소통방식이다. 이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처방식이다. 그런데 순응은 어느 한 쪽의 권력행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인 지배는 순응과 반대로 자신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타인의 성과에 많지 않은 관심을 두었을 때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는,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욕구와 경쟁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회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통합과 타협은 갈등 당사자들의 대립된 욕구를 교환과 양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부대화를 시도하고 부부문제가 발생할 때 상호 협력적으로 부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부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다문화가정 역시 부부간 친밀감의 부재나 부족으로 부부갈등이 시작된다. 그런데 국내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러한 친밀감의 부족은 일반 부부에 비해 더 큰 갈등의 배경이 된다. 연애기간이 반드시 부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부부가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기간이 일반 부부보다 짧은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 과정과도 연관되는데 다수의 한국인 남편들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만남 이후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본국송금 문제

와 경제적 지위에서 비롯된 무시나 무관심은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 발생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

구분	주요 요인	출처
언어, 문화차이	언어적 소통에 불만족	강유진(1999)
	문화차이	김연수(2010)
경제적 어려움	본국송금 문제	김금희 외(2013)
	결혼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문제	연영란 외(2012)
의사소통에서 발생	단절이나 회피, 비난	안현숙 외(2012) 김금희 외(2013)
	성격차이	곽정임 외(2015) 연영란 외(2012)
여성의 가족문제	친정가족의 국내 장기체류	연영란 외(2012)
부부문제	결혼유지 기간이 길어짐	홍미기(2009)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라	홍미기(2009) 안현숙 외(2012)
	남편의 원가족이 여성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	지은진 외(2012)

위의 <표 II-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은 언어, 문화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강유진, 1999; 김연수, 2010; 홍미기, 2009).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언어적인 소통의 의미와 정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의 미숙함과 동시에 남편들 역

시 아내의 언어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이 관념은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만 강요되는데, 이는 유교사상으로 인한 가족관계 안에서의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학습되어진 인격과 생활습관에서 체제화 된 이러한 한국인 남편의 태도는 과거의 경험과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는 배우자인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요구하고 성역할에 따른 성차별을 일으킨다. 많은 한국인 남편들은 배우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습득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며, 부인에게 한국어를 배울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여성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는 지은진 외(201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 본인은 배우자의 문화나 언어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려하지 않는다. 한국인 남편은 부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를 단순히 배우자의 미숙한 한국어 능력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남편이 동반자로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배우자에게 부부갈등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유진, 1999; 이현우, 2011; 지은진 외, 2012; 홍미기, 2009).

이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이 함께 문제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비난이나 물리적인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자녀양육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가정해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김금희, 전예은, 2013). 상호이해와 부부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과 배우자의 지지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배제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각 개인의 문화적 배경 및 개인적 성향과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부부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의 원인은 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문제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본국에 대한 송금문제를 약속하지만 결혼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신뢰감이 무너진다(김금희 외, 2013; 연영란 외, 2012). 또한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1999; 김연수, 2010). 그 외에도 아내의 가족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부부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처럼 부부갈등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다문화가정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부갈등은 부부간 권력의 불균형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동화주의적인 적응이 강요되는 가정의 문화는,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노력으로 구축하고 유지해가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일방적인 노력과 의무만을 강조한다(김오남, 2006). 남편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자신의 가정으로의 적응을 강요할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 한국에서의 가정에서의 문화적응도는 낮고, 주변화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성현란, 2011).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은 단일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 내의 문화 또는 언어적 다양성, 결혼 전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경험한 내용의 차이로 인한 상호이해와 공감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윤동화(201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주리와 김인영(2012)은 부부갈등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크게 회피와 단절, 인내와 순응, 간섭과 통제, 연대와 소통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회피와 단절의 의사소통 유형은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부부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소통의 가능성만은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서로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

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역기능이 발생할 경우 주로 대화 회피나 대화 단절 등의 방법을 택하여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내와 순응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뒤로 하고 한국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 참아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에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간섭과 통제는 한국 남편들의 일방적인 태도와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권력을 가지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순응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남편들의 태도는 아내의 국가적, 문화적, 경제적인 면보다 한국의 문화를 우선시하는 권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다문화가정 부부가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갈등해결, 의사소통방식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 역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의 제정부부터 이들의 요구에 기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개별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지원까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각 개인의 문화적 배경 및 개인적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부부 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결혼생활에서 부부는 수평적인 입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사고로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남편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남편들이 아내의 생활전반에서 아내의 옷차림, 만나는 사람들, 외출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대와 소통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정서적 요구를 하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 결

혼이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부부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김금희 외(2013)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갈등, 경쟁, 교환, 협력으로 분류하였다. 갈등이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이한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한 서로에 대한 갈등을 의미한다. 갈등유형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분리해볼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인 여성 결혼이민자인 경우 언어적 의미전달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경쟁은 갈등과는 다르게, 둘 이상의 목표를 한 대상에게 한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인 경우 결혼 초기부터 간헐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감정대립 구도에 서게 된다. 교환은 정서적 공감으로 배우자의 문화를 수용하고 타협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상호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협력은 부부가 배우자의 문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의 상호존중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소통방법이다. 갈등과 경쟁, 교환, 협력은 선형적으로 작용하면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

C. 부부적응

1.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

사전적 의미로 적응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지게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위 환경과 생활에 조화를 이루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적응은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Spanier(1976)는 부부적응에 대해 결혼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요소를 부부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결혼의 안정을 추구하는 부부의 정서적, 행동적인 것으로 보았다. 부부적응에 대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개념은 다르지만 Busby 등(1995)은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일치감으로 부부적응을 보았다. Christensen, Jacobson & Babcock(1995)과 Johnson & Greenberg(1995)는 부부의 정서적 감정과 행동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부부적응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Gottman(1994)은 부부적응이 부부갈등과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공존한다고 하였다. 부부적응은 결혼성공, 부부만족, 부부행복 등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부부중심으로 한 관계형성 경험이 부부적응이라 할 수 있다(연영란 외, 2012). 이처럼 부부적응은 결혼생활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즐거움과 행복감과 같은 감정과 태도를 모두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를 사회적 맥락과 함께 해석되는 주관적 관점이라 정의하고 있다(조혜선,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을 결혼생활 전반에서 부부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의 정도라 하여 부부적응에 결혼만족도를 포함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부부적응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성장배경에서 결혼을 통해 부부로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해성(2007)의 연구에서는 부부적응을 배우자와의 결혼관계에서 순응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강유미, 신혜중(2010)은 결혼생활에서 서로를 맞추어가는 단계가 부부적응이라고 보았다.

부부적응은 가족을 연구하는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Burr, 1973; Synder, 1979). 부부적응 또는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혼만족, 행복의 정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연영란 외, 2012). 결혼생활 만족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부부적응은 부부생활 중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개인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부부관계 혹은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부부의 적응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에 따른 평가에 그 기반을 두

고 있다는 것이다.

Burr(1973)는 부부적응 및 결혼만족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국내에서도 결혼만족도, 결혼적응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성공도(Marital Succession),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결혼만족도의 개념과 정의는 학자별로 다르지만 결혼만족도에서 배우자의 결혼적응도와 결혼관계의 주관적인 욕구, 결혼생활에 대한 관점과 기대치에 충족되는 욕구는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요소이다(Roach, Frazier & Bowden, 198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적응은 조화로운 결혼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abatell, 1988; Spanier, 1976). 적응은 환경이나 어떤 체계에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보고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부부적응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욕구와 배우자의 욕구를 조화로운 과정으로 적응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부부적응에 접근하고자 한다.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의 지혜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보았다(고정애, 박경, 2003). 그 결과 지혜의 수준의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고, 이는 결혼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련과 이인수(2010)의 Satir의 성장모델을 근거로 일치성을 본 연구에서도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치성이 높다는 것은 부부적응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일치성에 대한 지혜는 곧 올바른 의사소통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수준과 긍정적인 사고가 부부적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부간의 관계나 이들의 정서적, 언어적 소통의 유형 및 정도 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부소통은 결혼 또는 가족의 기능에서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인식(전영주, 원성희, 김수연, 2010)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직접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개입과 긍정적 문제해결을 위한 부부대화전략의 사용(권수정 외, 2007)까지를 포함한다.

남편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 취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르고, 이러한 의사소통형태가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이상의 남성은 40대 미만의 남성에게 비해 덜 충동적이고 상호건설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취함으로써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세련 외, 2010; 권정혜, 이종선, 2002).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입이 많을수록 부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애 외, 2003; 김세련 외, 2010). 결혼생활은 현실적인 문제와 연동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수입은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가정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신체적, 정서적인 고충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적응과 결혼만족에 있어 가정 경제수입이 많을수록 부부가 느끼는 갈등의 정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부의 성생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경순(1997)은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특히,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는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남편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부부의 성생활이 부부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윤수, 1998). 이 외에도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대화 과정에서 표현하는 기술, 듣는 수준 등이 있으며 이는 부부의 협력이 요구되었다. 더불어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의 수준과 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들(김세련 외, 2010; 김오남, 2006; 윤애란 외, 2013)에서는 결혼유지기간이 길수록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결혼만족도 역시 낮게 나

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부부의 인구통계학적인 배경이나 특성은 부부의 부부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 외에도 부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직업, 시부모와 남편의 형제자매 또는 아내의 부모 및 형제들과의 관계, 부부의 성격특성 등의 각 가정의 부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현재 처한 상황, 이들의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 역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연영란 외, 2012; 홍미기, 2009). 이상으로 살펴본 일반 부부의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적응은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결혼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에는 부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연령 차이, 월평균 가정 경제소득, 결혼지속기간, 교육수준 등이 있다(김금희 외, 2013; 김오남, 2006; 이영선 외, 2015; 한건수, 설동훈, 2006).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가 느끼는 부부적응과 결혼만족의 요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 언어적, 문화적 이해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언어적, 신체적 폭력, 친밀감 부재, 자녀양육, 가사일 분배 및 부부역할 등이라고 하였다(윤형숙, 2005; 이혜경 외, 2013;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한건수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이러한 요인들은 부부적응과 결혼생활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과 남편들의 가부장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부부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적응은 전통적인 한국가족과의 문화차이가 크게 방해하고 있다(한재희, 2011).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와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형태를 우선시하는 문화적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남편의 가족구성원에 적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성현란, 2011).

이처럼 원가족과의 어려움은 부부 당사자의 부부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방적인 존중과 수용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동화하기를 강요한다(김오남, 2006). 이와 같은 형태가 결혼 당사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부부적응을 높이기 위한 부부의 의사소통, 특히 기능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적용한 대화와 소통이 강조된다(Navran, 1967).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의 문화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부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예: 대화단절, 무관심, 편견, 의사소통방식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을 촉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유미와 신혜중(2010)은 다문화가정 부부 4쌍을 심층면접을 통해 상호적응과정을 갈등 후 적응과 초기적응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부적응 단계는 문화차이와 갈등단계, 이해하고 노력하는 단계, 서로 맞추어가는 단계, 안정된 적응 단계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안정된 적응 단계를 위해 부부는 서로에 대해 문화와 언어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차이와 갈등단계는 결혼생활을 통해 현실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결혼 전 한국에 대해 막연한 동경과 달리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 더불어 남편의 경제적 환경과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해결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곽정임 외, 2015; 연영란 외, 2012). 이는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의 왜곡으로, 배우자와의 동질성에 따라 문화차이와 갈등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결혼 전 남편의 말과 결혼 정보업체에 기록된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 부부갈등이 선행되어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적응 단계인 부부가 상호이해하고 노력하는 단계는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은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며, 이때 부부와 가족구성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김금희 외, 2013). 다문화가정 부부간에 발생하는 부부문제는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혹은 대화로 상호간에 전달을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에서 명확한 의미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인내를 가지고 맞추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부갈등에 직면하고 적극적인 부부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서로가 맞추어가는 단계이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적응 단계는 부부의 결속력과 가족정체성이 강화되고 부부가 미래에 대해 설계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부적응이 안정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적응은 아내보다 남편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부부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의회, 김재환, 2002). 즉, 부부적응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부부 중 남편이 아내에 대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있고, 이를 많이 할수록 아내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남편의 노력은 아내의 입장에서 지지와 존중을 받는 느낌을 받게 하여 한국어와 문화를 좀 더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적극적인 대화가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부부적응을 위해 남편과 가족구성원들은 아내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지지와 함께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일치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부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부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과 일치한다(서미아, 2014; 최지명, 2007; 홍미기, 2007). Spanier & Cole(1976)의 부부적응은 적응과 부적응 사이의 연속선상에서의 상태이며 변화가능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부적응이 안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부부적응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부부적응을 위해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미기, 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른 요인과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 연령차이, 가정 경제수준, 배우자의 직업, 자녀 수 등이 있다(윤애란 외, 2013; 조명희, 2014). 일반 부부와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의 결혼생활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부부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조명희, 2014; 정현숙, 1997). 이처럼 일반적으로 결혼 전 연애기간을 통해 남성과 여성은 상호 이해를 위해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이후에도 부부적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결혼 전, 후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부부간의 부부적응은 지속적으로 촉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부부적응이 일반가정의 부부적응과 비교했을 때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우선시되어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유지기간이 지속될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언어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중적인 어려움 등으로 부부적응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다문화가정 부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부적응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과정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으며, 부부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에 결혼생활에서 부부적응은 부부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부부갈등의 문제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늘어감에 따라 이는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D. 선행연구

국내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표 II-5>와 같다.

<표 II-5> 국내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프로그램	실행방법 (대상, 회기, 중재)	연구 결과	제한점 및 제언
곽정임, 서미아 (2015)	갈등관계에 있는 부부를 위한 정서중심 상담 프로그램	실행방법: - 상담자와 신뢰관계형성 -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방식을 규명 - 안전한 공간형성으로 자유로운 질문으로 부부인정하기 - 이면의 정서욕구 직면 후 부부교류를 유도하기 - 상호간 접촉이 원활하도록 토대 만들기 - 갈등에 대한 태도 강화하기 (다문화부부 8쌍, 6회기~ 14회기, 실험연구 중재)	정서적 감정 교류강화, 부부관계회복향상, 부부이해선행 필요, 위축자가 재개입하고 비난자가 순화되는 토대로 변화함	제한점: 8쌍 부부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 아내의 한국어어려움 제언: 정서상담 이후 양적분석 실시 필요, 다국어상담도구 활용 필요, 부부관계이해 필요

연구자	프로그램	실행방법 (대상, 회기, 중재)	연구 결과	제한점 및 제언
최미나, 유평수 (2014)	Gottman 의 이론을 적용한 부 부관계 향 상 프로그 램	실행방법: - 애정 지도그리기 - 상대방 배려와 존중 하는 마음 -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 하기 -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하기 - 두 사람이 갈등해결하 기 -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절하기 - 부부간 인생의 의미 찾기 (다문화부부 10쌍, 6 회기, 실험연구 중재)	자아존중감, 의 사소통, 부부적 응 증진	제언: 부부를 위한 지속적 인 사업 필 요, 의사소통기술 활용, 한국 문화기회 부 여 필요
김정옥 (2013)	통 합 적 치료 연구 부 부 관 계 향 상 프 로 그 램	실행방법: - 모래치료 작용 - 천을 사용하여 관계 매듭상징 및 춤 치료 - 명상으로 미움의 평화 찾기 - 역할극을 통한 갈등 해결 패턴 및 갈등 해결기술 습득하기, - 사이코 드라마 소감 나누기 등 (다문화부부 11쌍, 1박 2일 숙박형, 실험연구 중재)	자아존중감, 의 사소통, 결혼만 족도 향상	제한점: 일반 화의 한계, 단일 사례였 다는 제한점, 사회·인구학 적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 한 한계 제언: 부부의 자아존중감, 결 혼 만 족 도 향 상, 부 부 갈 등 해 결 을 위한 다양한 접 근 방 법 필 요

연구자	프로그램	실행방법 (대상, 회기, 중재)	연구 결과	제한점 및 제언
연영란, 양 수 (2012)	부부관계 증진프로그램	<p>실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을 형성을 위한 위밍업 시간관계 - 성장 영역별 긍정적인 면 찾기 - 각자의 관점에 대해서로 토의 - 표현을 통한 적극적 경청 연습하기 -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0단계 훈련하기 - 가정 재정관리기술 - 친밀감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하기 등 (다문화부부 16쌍, 6회기, 실험연구 중재) 	의사소통, 결혼 만족도향상, 갈등해결방법에 긍정적인 변화 나타남	제한점: 2개의 센터에서 대상자모집으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
최진아 외 (2012)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p>실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의 친밀감 형성하기 - 배우자의 장점 찾기 - 공감으로 듣기 말하기 연습 - 부부커플 요가 활동 - 분노조절을 위한 근육이완 운동 - 부부 갈등해결 및 대처방법 연습 - 대화 사례시연 - 문화적 차이 이해 및 편지쓰기 등 (다문화부부 5쌍, 예비부부 4쌍, 8회기, 실험연구 중재) 	부부만족도 증가, 대화기술 및 경청증진, 관계를 위한 행동증가, 분노조절 가능, 상호이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알게 됨	<p>제한점: 3개국으로 연구제한, 부부갈등이 심각한 부부 적용하는데 제한, 문화이해 간과</p> <p>제언: 학술적 접근 필요성</p>

위의 <표 II-5>의 선행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중재 프

로그그램을 부부관계 측면에서 부부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부관계의 향상, 부부친밀감, 자아존중감 증진,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 및 결혼만족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었다. 이를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 회기, 주요 활동 내용, 연구 결과 및 제한점, 제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한정된 다문화가정은 외국의 다문화가정과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의 다문화가정 형성은 이민사회인 디아스포라 등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즉,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정은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부부이기에 분명히 외국의 경우와 본 연구에서 언급한 다문화가정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문헌검토에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문헌검토에서 나타난 일반 부부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대해 촉진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촉진요인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촉진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촉진요인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요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다는 것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부부의 촉진요인보다 방해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으로,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향상에 대해 원복연 외(2013)의 연구에서는 촉진요인으로 자율성을 제시하였다. 자율성은 현재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태도 중시와 상호존중을 통해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부간의 적응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촉진요인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정서적 감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자기 존

중과 인정이 전제된 원활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희진, 2005; 이화자 외, 2010). 또한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경청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을 때 부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방현주 외, 2002; 박영화 외, 2005). 이 외에도 적절한 부부대화법과 많은 부부대화 등이 일반 부부에게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 일반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으로 공성숙(2004)은 원가족과의 문제, 부부간의 애정표현 부족, 자녀양육 방식, 정서적 거리감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부부대화를 저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모의회, 2002; 한정희, 2012).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는 비난과 공격, 부정적인 감정 표출, 무시하는 행동이 있다(박영화 외, 2005).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지적인 일반 부부의 주요 방해요인에는 부부문제, 무관심, 성격 차이 등이 있는데 이들로 인해 부부들은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나타났다(방현주 외, 2002; 이선희 외, 2013).

한편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은 일반 부부와는 반대로 방해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해요인으로 비난, 부정적인 방어기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있다(김정옥, 2013).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 가정의 경제적 문제, 부부대화의 단절 등도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 중 특히, 무관심으로 인한 부부대화의 단절은 자녀양육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막고, 부부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곽정임 외, 2015). 이 외에도 남편들의 가부장적인 태도, 사회적 지지의 약화, 언어와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아내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어려움, 원가족과의 갈등, 언어적·신체적 폭력 행위 등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

는 연장자에 대한 당연시한 존중 강요, 원가족과의 갈등문제 등이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공성숙, 2004; 이선희 외, 2013).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부부의 의사소통 방해요인은 언어, 문화차이, 여성의 서툰 한국어 사용, 남편들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들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금희 외, 2013). 이처럼 다양한 부부 의사소통의 방해요인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를 연구한 한주리 외(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크게 회피와 단절, 인내와 순응, 간섭과 통제, 연대와 소통으로 구분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서로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역기능이 발생할 경우 주로 대화 회피나 대화 단절 등의 방법을 택하여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회피와 단절의 의사소통 유형은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부부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든다. 인내와 순응은 다문화가정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언어와 문화에 적응 또는 순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남편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아내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순응하기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내와 순응은 다문화가정 부부 중 한 개인만이 겪는 고충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섭과 통제는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 보다는 연령차이가 많고 한국 문화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아내의 행동과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태도가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부부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한주리 외(2012)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상담과 지역 간의 연대, 부부대화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부부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인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촉진요인을 부부관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연수, 2010)에 의하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역할분담 및 규칙을 정하는 것이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부부관계 증진과 결혼 불만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고 있다. 메리지 앤카운터(Marriage Encounter), 부부의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집단 프로그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MCCP), 합의적 질적연구 분석방법 CQR(Hill, Thompson & Williams, 1997) 등의 대표적인 부부대화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국내에서는 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영란 외(2012)는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관계중심의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의사소통방식과 갈등해결방식, 결혼생활의 만족에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부부대화를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향상과 의사소통 요소가 포함된 중재를 제공한 최미나(2011)에서는 부부적응,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을 설문지를 통해 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살핌으로써 부부의 대화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통한 부부간 애정표현을 포함하여 부부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들이 제시되었다.

또 다른 집단 프로그램으로, 공성숙(2004)은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부부특징에 대한 강의 및 긍정적 감정 되살리기, 부부 애정지도 만들기, 갈등조절방식 익히기, 위험요소 피하기, 부드럽게 대화하기, 상대방과 타협하고 관계회복

시도하기 등으로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은 참여 부부의 정서적 감정과 갈등대처방식을 향상시켰고 의사소통의 악화요인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정 외(2007)는 ENRICH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ENRICH검사를 실시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강, 약점을 파악하고,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I-message), MBTI 검사, 함께하고 싶은 재정관리 등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참여한 부부의 부부대화 및 결혼만족도에서 향상이 관찰되었으며, 원가족 이해, 영적성장, 부모역할, 친밀감, 여가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장벽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정 부부가 활발하게 참여하기에는 구조적인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주목하여,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나 활동 내용의 구성(예. 비언어적 요소인 감정이나 교감, 신체적 활동) 등이 제안되고 있다(이현주 외, 2014).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은 연구문제별로 다음의 네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그림 Ⅲ-1]참고). 연구문제1은 프로그램 개발, 연구문제2는 프로그램효과 검증, 연구문제3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 연구문제4는 최종프로그램 개발이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각각의 단계에 따른 연구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문헌검토 • 문헌검토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구성요소 추출을 위하여 일반 부부,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의 특성이나 요구를 다룬 문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예비 프로그램 구성(문헌 및 기존 프로그램 검토를 통한 11회기 프로그램) 	연구문제1 프로그램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및 실행 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문가 3인(부부상담/프로그램 개발자, 전문상담가, 대학 교수), 현장전문가 1인(부부상담/프로그램개발/운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부부 12쌍(실험집단 6쌍, 통제집단 6쌍) - 주 1회 9회기(정규 8회기+브릿지 1회기) -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차이 검증 	연구문제2 프로그램 효과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프로그램 중 수집된 질적 및 실험집단 사후면담 자료 분석 • 1차 프로그램 수정 	연구문제3 참여자 경험과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연구문제2, 3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 대상: 전문가 3인(다문화관련 전공교수, 부부상담전문가, 현장전문가 다문화센터장) 	연구문제4 최종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최종본 완성	

[그림 III-1] 프로그램 개발 및 절차

A. 중재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국내의 일반 부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부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부부 의사소통,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의 부부 관련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과 요구를 도출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문헌을 검토한 후, 그 중 부부관계를 증진하는 17편의 문헌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3인으로부터 1차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문헌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부부 의사소통, 부부 갈등해결, 부

부관계 증진, 부부상담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먼저 부부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선행이론과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탐색하였다(Calvo, 1975; Hendrix, 1999; Satir, 1991). 기존의 대화관련 부부대화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한 부부대화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III-1>과 같으며 연도순으로 제시된다.

<표 III-1> 주요 부부대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접근 방법	주요 활동 내용	국내연구 적용
메리지 엔카운터 (Calvo, 1975)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부대화 일치운 동, 부부의 경험을 나 누기, 부부집단 과정중 시 등(2박3일) 프로그 램	- 발표자의 경험을 통 해 부부의 과거 회 상하기 - 부부대화 편지쓰기 - 느낌표현으로 편지 를 쓴 후 교환하여 느낌 나누기 - 부부의 대화를 전체 앞에서 발표하기 -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한 시간 보내기 등	김광률(2009)
부부집단 상담 프로그램 (Bowen, 1978)	Bowen 원가족 이해 다루기, 대상관계이론,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	- 자아분화를 통해 가 족에 대해 자신을 유지하고 가족구성 원의 정서적 감정과 사고를 중요시하기 위한 활동	현정희(2011) 이다미(2013)
부부관계 향상 집단프로그램 (Satir, 1991)	Satir 성장모델의 특징, Satir의 부부관계에 대 한 이해	- Satir 성장모델을 적 용하여 의사소통의 회유, 비난, 초이성 적, 혼란유형(말, 행 동, 몸짓)등을 파악 하고 일치성 유형으 로 가기 위한 활동	임승주 외(2013) 육혜련(2015)

프로그램명	접근 방법	주요 활동 내용	국내연구 적용
부부세미나 (Gottman, 1999)	8개의 내용(5문제 구성, 예, 아니오) - 사랑의 지도 (배우자의 내면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 호감, 존중(배우자에 대한 호감, 존중정도) - 다가가기 또는 멀어지기(부부 의사소통방식) -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 - 정서적 거리감과 고독(부부간 정서적 거리감) - 거친 시작(의사소통 방식 중 논쟁, 부부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 교착상태와 영속하는 쟁점(지속적인 부부갈등 문제) - 영향력을 받아들이기(부부간에 서로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정도)	- 경청하기, 부부간 호감, 존중의 표현 나누기,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화 영상 보기, 갈등주제를 다루고 경험 나누기, 부부대화방법을 실천하고 집단원과 경험 나누기	공성숙(2004) 김희진(2005) 조성현(2008) 한정희(2012)
이마고 부부 대화법 (Hendrix, 1999)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는 메타이론 접근방법	- 개인의 역할보다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부부가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인 반영, 인정, 공감을 바탕으로 한 부부대화법 실행	오제은(2005) 김덕수(2011)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Knudson, Sommers, &	부부간의 대화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	- 부부의 관계강점, 성장필요영역을 찾고 사랑을 되살리기 위한 과정	연영란 외(2012)

프로그램명	접근 방법	주요 활동 내용	국내연구 적용
Golding,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자기표현, 경청기술 익히기 - 세 가지 희망 작성 후 교환하기 - 갈등해결 10단계 연습하기 - 재정관리 기술 익히기와 여가활동으로 친밀감 증진하기 등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프로그램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필요한 부부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부부대화방법을 적용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는 언어차이로 인해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부부 갈등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넷째, 개인의 자존감 향상을 통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부부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재탐색하여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부부갈등을 해결하며 부부적응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2.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예비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부부, 상담에 관한 문헌 및 기존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결과 총 17편으로 취합할 수 있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부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호이해가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해 부족했고 이 외에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 실행전략 등을 추출하였고 11회기 예비 프로그램의 회기, 내용 등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1~3회기 서로 알아가기, 4~5회기 느낌표현, 6~7회기 부부대화, 8~9회기 갈등해결, 10~11회기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같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부부의 성향에 대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성격 검사지 활용하기 등을 포함시켰다.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 1차 타당도 검증을 전문가 3인으로부터 받았다(<표 III-2>참고).

3. 프로그램 1차 타당도 검증

문헌검토 결과를 토대로 예비 프로그램을 11회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3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A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대학에서 강의 및 활동을 하고 B는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장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C는 부부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전문가 배경 정보

구분	참여 전문가	다문화관련 경력
A	겸임교수(여성인권 활동가)	10년
B	A 여성의 전화 기관장(프로그램개발 운영자)	20년
C	부부상담 전문가	15년

1차 타당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재 프로그램의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회기수를 현실적으로 축소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다회기 프로그램 실시 중 중도 탈락이 프로그램의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11회기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있어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부,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남편그룹과 아내그룹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거나, 부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의 적용이 제안되었다. 이상의 타당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1회기의 예비 프로그램 중 2회기 이상에서 동일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내용을 통합하여 총 9회기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또한 부부의 관계에 중점을 둔 소통 프로그램의 목적 상, 부부를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였고, 프로그램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 부부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등의 활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9회기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9회기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 성	회 기	주 제	활 동 내 용
상호 이해	1	서로 알아가기	- 사전 검사 -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소개 - 나는 누구인가(회상하기) - 배우자 소개하기
	2	서로 이해하기	- 느낌과 생각 구별하기 - 배우자 알아가기 - 심리검사(TA 이고그램 검사)
대화 전략	3	나의 느낌 전달하기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부부 소통1(반영) - 부부성향 알아보기 - 상대방 말에 집중하기, 거울비추기
	4	나의 모습 비춰보기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부부 소통2(인정) - 서로를 위한 편지쓰기 - 있는 대로 바라보기(인정, 공감)
갈등 해결	5	부부문제 직면하기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부부 소통3(공감) - 대처방법 배우기 - 부부문제 탐색하기 - 부부 개별지원
	6	건강하게 소통하기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부부 소통4(갈등탐색) - 부부갈등 드러내기 - 협력적으로 부부 갈등해결하기
미래 에 대한 기대	7	서로의 변화 탐색하기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부부 소통5(변화탐색) - 서로의 변화 및 기대 공유하기 - 공감대 형성 및 유지 강화하기
	8	친밀한 부부로 나아가기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부부 소통6(마무리) - 서로에게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하 기 - 촛불의식, 포옹하기
	9	브릿지과정	- 부부에서 가족으로 확장된 소통 - 부부와 자녀가 대화 나누기 -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경험 나누기

B. 프로그램 실행 및 효과 검증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인 12쌍(실험집단 6쌍, 통제집단 6쌍)의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문제1의 결과로 나온 9회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그림 III-1]참고).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부 12쌍이다. 이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부 중 다문화관련 기관과 센터에서 가족캠프, 아버지 인문학교실, 남편들의 성교육,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부부가 함께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목적적 표집방법은 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비확률 표집추출에 해당되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조모임, 다문화가족의 남편모임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사생활 보호’라는 규정과 다문화가정 부부와 가족구성원들, 기관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각 기관 실무진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다문화가정 부부가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연구 참여자 정보

집단	구분	나이	출신국	학력	직업	평균 수입 (만원)	결혼 기간 (년:개월)	자녀수	비고
실험집단	T1	남편	48	한국	고졸	기계장비 설치	500 미만	7:4	2 ^a
		아내	37	필리핀	대졸	가사 생산 활동			
	T2	남편	51	한국	고졸	토목 건설업	500 미만	14:1	2
		아내	42	필리핀	고졸	단순 종사			
	T3	남편	55	한국	초졸	가구내 고용활동	100 미만	15:5	2
		아내	41	필리핀	대졸	단순 종사자			
	T4	남편	47	한국	고졸	보완관련	500 미만	6:7	1
		아내	32	베트남	고졸	제조관련			
	T5	남편	43	한국	고졸	토목 건설업	300 미만	15:8	3
		아내	40	필리핀	고졸	가사 생산 활동			
	T6	남편	49	한국	대졸	사진현상 관련	150 미만	8:3	1
		아내	33	필리핀	고졸	가사 생산 활동			
통제집단	C1	남편	54	한국	중졸	기타	100 미만	12:11	1
		아내	50	필리핀	고졸	기타			
	C2	남편	58	한국	고졸	기계장비	300 미만	8:3	1
		아내	33	필리핀	대졸	가사 생산 활동			
	C3	남편	47	한국	고졸	단순 종사자	200 미만	15:0	2
		아내	42	필리핀	고졸	가사 생산 활동			
	C4	남편	50	한국	고졸	기타	300 미만	11:1	2
		아내	40	필리핀	고졸	기타			
	C5	남편	46	한국	대졸	서비스업	500 미만	7:0	1
		아내	26	베트남	고졸	서비스업			
	C6	남편	40	한국	고졸	판매서비스	300 미만	6:0	2
		아내	26	베트남	고졸	가사 생산 활동			

a=중도입국 자녀 1명 포함

연구에 참여한 12쌍(실험집단 6쌍, 통제집단 6쌍)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부의 결혼생활주기 중 신혼기는 결혼 후 초기 5년(박수선, 2013)에서 7년(강혜숙, 김영희, 2008; 김영희, 정선영,

2007; Kurdek, 2005; Neff & Kamey, 2007)정도이다.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관계 중심의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해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부부를 연구 참여집단으로 하였다. 둘째,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부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부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부부 중 현재 부부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 요구를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연락 및 면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 셋째, 현재까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 또는 부부 의사소통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로 다문화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를 하였던 경우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부부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부부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지원의 목적으로 연구자의 지속적인 방문이 가능한 경우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본 중재 연구 대상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가정 방문, 추가적인 상담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중재에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험집단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12쌍의 부부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12쌍의 부부는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본 연구가 종료된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들로 이루어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결혼유지기간, 여성의 출신국, 연령, 가정환경에서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비확률 표집추출에 해당되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짝짓기 기법으로 배치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11).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프로그램의 스케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참여 가능한 부부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부부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집단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필리핀 출신 여성 5명과 베트남 출신 여성 1명 그리고 이들의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 남성의 평균 연령은 48.8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37.5세이다. 이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11년 2개월이었다. 통제집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는 4명의 필리핀 출신 여성과 2명의 베트남출신 여성 그리고 그들의 한국인 배우자였으며, 참여자 평균 연령은 남성이 49세, 여성이 36.2세, 평균 결혼기간은 10년 1개월이었다.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부부들은 대부분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실험집단에 한 가정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12쌍의 부부 중, 실험집단 부부 1쌍의 경우는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이룬 후에 본국에서 아이를 중도 입국시킨 상황이었다. 이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었다. 전체 실험집단 가정 중 4쌍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통제집단 중 맞벌이 부부는 1쌍이었다. 위의 <표 III-4>의 연구 참여자 정보에서 직업에 대한 표기는 고용노동부 산업분류별 2차 분류기준으로 하였다(기타는 사전 검사지에 연구 참여자 본인의 인식을 토대로 작성한 직업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

2. 실험 기간 및 장소

본 프로그램 개발 이후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 검증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월간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이 끝난 후 2015년 1월에 연구자와 실험집단 부부,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은 함께 사전모임을 가졌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는 중재가 이루어진 기관 내 강의실에서 1월 중에 실시되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실험집단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행되었다. 중재 프로그램은 1~8회기(회기 당 2시

간, 총 16시간)와 8회기가 끝난 후 1박 2일 브릿지과정인 9회기(12시간)가 실시되어, 총 28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브릿지과정에서 실험집단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 면담이 실시되었고, 이 과정이 종료된 후 사후검사가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실행 이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 단계 및 연구 기간은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연구 단계 및 연구 기간

연구단계	연구기간													
	2014년			2015년									2016년	
	10	11	12	1	2	3	4	5	6	10	11	12	1	
프로그램 개발		예비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수정 프로그램		최종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석														
대상자모집 및 선정														
사론회기 및 사전 검사														
중재 및 브릿지과정 사후검사														

4월부터 5월까지 연구문제 B의 1, 2, 3인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연구문제1의 절차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다(<표 III-6>참고). 이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관계개선이나 의사소통의 향상을 다룬 기

존 프로그램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하나인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9회기의 프로그램이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 부부갈등의 최소화, 자아존중감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다른 부부들과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요구에 따라 개별지원을 상시로 진행하였다.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표 III-6>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구성

범 주	내 용		출 처
프로그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관계중심 - 자아존중감 향상 - 의사소통 이해 - 부부갈등 최소화 - 결혼만족도 향상 		김금희 외(2013) 연영란 외(2012)
프로그램 기본 방향	- 서로 알아가는 부부		Hendrix(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느낌과 생각 구별하기 - 거울에 비추기 - 알아주기 - 공감을 통한 존중하기 - 부부대화 증진 		Calvo(1975) 최연자 외(2009)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단계(회기)	구성요소
	정규 8회기	상호이해 (1-2회기)	알아가는 여정
		대화전략 (3-4회기)	부부소통을 위한 대화, 개별 부부지원
		갈등해결 (5-6회기)	건강한 부부싸움을 통한 부부갈등 이겨나가기, 개별 부부지원
		미래에 대한 기대 (7-8회기)	변화 그리고 희망
브릿지 과정	확장된 소통 (9회기)	부부중심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는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서로 알아가기, 자기의 느낌표현, 부부대화를 통한 부부 갈등해결 및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이며, 방향은 부부가 대화를 통해 부부갈등을 최소화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재 프로그램은 부부의 상호이해와 대화전략, 갈등해결,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성격검사 활용과 신체적 접촉, 느낌대화를 통한 부부대화 실험, 부부들의 문제행동에 따른 행동수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부부대화를 통한 갈등관리 및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느낌표현과 공감적인 대화 등의 전략들을 소개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회기별 단계의 내용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1) 상호이해 단계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부부간 상호이해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1~2회기 동안 이루어지고 자신과 배우자의 성향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 중 1회기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이 단계는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프로그램 1회기

주 제	서로 알아가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한다. - 서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소개 - 강의: 알아가는 여정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칭 짓기 및 의미 발표 - 나는 누구인가? - 나의 배우자 소개하기 			

	정리 (30분)	- 부부소통 프로그램에서 나의 기대 발표 - 자신의 느낌 나누기
유의사항	과제1: 10초 동안 배우자를 서로 바라보기 과제2: 나의 느낌 5개 이상 적어보기	
회기별 준비물	사전 질문지, 그리기 도구(도화지, 색연필 등), 과제노트, 명찰, 느낌표,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스트레코드, 다과	

다문화가정 부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2회기를 상호이해 단계로 구성하였고 이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는 단계이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는 자신과 배우자를 소개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갖게 된다.

상호이해 단계에서는 개인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심리검사인 TA 이고그램 검사를 하였다. 이는 자신과 배우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부분 중 닮고 싶은 점과 피하고 싶은 점들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배우자를 알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고 현재 자신과 배우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의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래서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심리검사와 부모를 회상해보는 활동을 통해 알아본 후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2회기 프로그램은 <부록 8>에서 제시).

2) 대화전략 단계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부부간 상호이해를 토대로 부부들이 올바른 부부대화법을 익혀 실제 부부갈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프로그램의 3~4회기는 다문화가

정 부부들이 반영, 인정, 공감의 부부대화법을 익히고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올바른 부부대화법을 실행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3회기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3회기는 다음의 <표 III-8>과 같다.

<표 III-8> 프로그램 3회기

주 제	나의 느낌 전달하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의사소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부부대화인 느낌대화로 부부편지를 쓸 수 있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2회기 점검: 한 주간 나의 느낌 나누기 - 강의: 부부 소통1 (반영, 부부성향 알아보기: 이고그램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생각 구별하기 - 상대방 말에 집중하기 - 반영: 나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나와 배우자의 모습 발견하기 - 강의 및 활동 내용 확인하기 			
유의사항	과제: 반영 기법을 사용해서 대화 시도하기				
회기별 준비물	이고그램 검사지, 손거울, 과제노트, 명찰, 느낌표,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 스테코드, 다과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대화전략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배제하고 거울에 비추듯이 배우자가 하는 말과 표현을 되돌려주는 ‘반영하기’ 단계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는 자신의 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대화의 패턴을 재인식하게 된다. 상대방인 배우자가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거울에 비추어 주듯 되돌려주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자신과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회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대화 중에 이루어지는 반영은 배우자가 표현하는 것을 잘 듣고 되돌려 줌으로써 배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배우자를 인정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대화 과정은 부부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가기에 앞서 부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런 다음 부부들은 공감을 경험하며 부부 대화에 진솔함을 더할 수 있다. 이러한 반영, 인정, 공감의 부부대화법을 익히는 것 외에도 부부들은 자신과 배우자가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부부갈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 직후는 부부들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을 도울 수 있게 한다(4회기 프로그램은 <부록 9>에서 제시).

3) 갈등해결 단계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학습한 반영, 인정, 공감 등의 부부대화법과 느낌으로 표현하기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부부갈등을 조정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프로그램의 5~6회기 동안 이루어지고, 부부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5회기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I-9>와 같다.

<표 III-9> 프로그램 5회기

주 제	부부갈등 직면하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의 요인을 알아낼 수 있다. - 부부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4회기 점검: 한 주간 나의 느낌 나누기 - 강의: 부부 소통3 (공감, 부부 갈등대처방법, 협력적인 소통) 				

	전개 (60분)	- 부부문제 탐색하기 - 협력적인 의사소통 연습하기: 부부 하나 되기
	정리 (30분)	- 우리 부부의 갈등대처방법 되돌아보기 - 건강한 부부 갈등해결방법 터득하기
유의사항	과제1: 우리 부부 갈등대처방법을 적어오기 과제2: 반영, 인정, 공감을 사용하여 갈등에 대해 대화하기	
회기별 준비물	과제노트, 명찰, 느낌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이 단계는 개인과 부부 그리고 집단 간의 역동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부 갈등대처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부부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 단계를 거쳐 온 부부들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부부대화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편견, 판단과 평가를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부부갈등을 조정해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5~6회기 동안 갈등대처방법, 관리기술을 습득하면서 실제 부부들의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해가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6회기는 보다 심층적으로 부부갈등에 접근하는 단계로 구성하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건강한 부부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부부대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6회기 프로그램은 <부록 10>에서 제시).

4) 미래에 대한 기대 단계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부부대화법을 중심으로 실제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나아가 부부의 변화를 경험하며 동반성장에 이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프로그램의 7~9회기 동안 이루어지고,

이 중 7회기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프로그램 7회기

주 제	서로의 변화 탐색하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 칭찬할 수 있다. - 개인 및 배우자의 변화를 확인하고 부부의 희망을 나눌 수 있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6회기 점검: 한 주간 나의 느낌 나누기 - 강의: 부부 소통5 (변화탐색, 반영·인정·공감 재확인)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변화 인식하기 - 서로의 변화 및 기대 공유하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대 형성 및 유지 강화하기 - 부부가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유의사항	과제: 부부 변화에 대해 탐색하고 이에 대한 내용 적어오기				
회기별 준비물	과제노트, 명찰, 느낌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부부는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 행동양식, 성격 등을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들에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이러한 갈등에 대해 그동안은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했을지라도 이제는 부부가 함께 올바른 부부대화를 통해 협력해서 극복해나갈 수 있다. 7회기는 이전에 학습한 부부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해가는 방식에 대해 확인해보고 서로의 변화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부부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부부들은 지속적인 부부대화를 하고 갈등대처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이 부부들에게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8회기는 부부의 소중한 경험이 부부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갈등대처방법을 습득하고 실행함으로써 부부의 동반성장을 가져오는 단계이다. 특히 부부의 성장을 위해 이들은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과정을 가졌다(8회기 프로그램은 <부록 11>에서 제시).

1회기에서 8회기까지 중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동안 각 부부당 3회기씩 상시로 부부 개별지원을 하였다. 이는 가정을 방문하여 부부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들이 집단에서 드러낼 수 없는 부부들의 문제를 가정에서 드러내어 부부대화기술을 중심으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시로 이루어지는 부부 개별지원은 집단에서 가정이라는 장소의 이동과 더불어 부부에서 가족구성원들로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브릿지과정의 9회기는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증진된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부중심에서 가족, 자녀 등의 다른 가족구성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즉, 중재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부부를 중심으로 실행하였다면 브릿지과정은 부부에서 가족구성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어 보는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부모와 자녀, 가족구성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자녀는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대화방법을 실천하는 장이 브릿지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실험집단이 본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는 의미에서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4. 종속변인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를 중심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이해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부부대화를 통해 부부갈등을 최소화하고 부부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부부 의사소통

부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ienvenu(1970)가 개발한 부부 의사소통 척도(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MCI)를 사용하였다. MCI는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사실들과 양상들을 활성화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MCI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스타일에서 나타난 간극과 갈등을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MCI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4단계 리커트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거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10번, 11번, 15번, 17번, 19번 문항은 역 채점 계산 문항). 이는 <부록 3>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간의 말하는 패턴, 경청하고 반응하는 방법들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의 의사소통 효율성 등의 연구에 MCI가 사용된 바 있다(김경신, 조유리, 2000; 김오남, 2006; 김진희, 김경신, 1998; 심혜선, 이정우, 2001; 지아가 외, 2014; 진명자, 2005; 최윤화, 2000). 의사소통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신 외(2000)의 연구에서 점수범위는 7-35점으로 신뢰도 계수는 남편이 .81이고 부인은 .83으로 평균 .82였다. 김진희 외(1998)에서는 남편은 .83,

부인은 .83이었으며, 지아가 외(2014)에서 신뢰도 계수는 .80 이었다. 김오남(2006)에 의하면 신뢰도 계수가 .75 이상으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사용하였으며 의사소통 효율성은 .87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Schumm 외(1983)가 개발한 부부갈등의 양상과 패턴을 측정하는 도구인 부부갈등 척도(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이하 KMSS)를 활용하였다.

KMSS는 결혼한 부부가 그들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각 단계별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갈등 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권윤아, 김득성, 2014; 정현숙, 1997). KMSS는 자기보고식 도구로 갈등관리의 변화, 부부만족, 관계척도를 통한 배려, 공감, 조화, 자기존중감, 배려, 토론, 회피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관한 평가, 부부 목표-방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결혼관계를 개선하고자 부부들이 계획하는 의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척도이다. KMSS의 응답방식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묘사된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자주 개인이 느끼는지를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대화 도중',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로 대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KMSS를 사용하였다. 또한 발생의 빈도와 정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용하고자 응답 방식을 갈등이 일어나는 빈도에 대한 5점 척도('거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11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진 16번 문항은 통계로 하지 않고 인터뷰를 통해 '실망, 화남, 혐오, 생색, 분개, 적개심, 좌절, 괴로움, 자기연민, 냉소, 당

신을 향한 존경'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에서 전달되는 정서적인 질문이기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질적 연구로 변환하여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16번 문항을 제외한 총 2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KMSS는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전체 문항 중 17개 문항 1, 2, 3, 4, 6, 8, 10, 12, 13, 14, 15, 17, 19, 24, 25, 26, 27번은 역 채점 문항). 김득성(1989)의 연구에서는 만족을 7점 척도로 하였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계수로 사용하였으며 부부갈등은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갈등해결 부분이 낮은 이유는 대화시작 시에는 문화적 촉진자와 연구자가 개입을 하였기에 높은 점수가 나타났지만,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도중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는 이러한 개입이 없이 이루어져 결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낮은 점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부부적응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부적응 척도(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의 결혼적응, 결혼만족, 결혼관계의 주관적인 욕구, 결혼생활에 대한 관점과 기대치에 충족되는 욕구 등을 측정한다. Spanier(1976)가 개발한 부부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Busby, Christensen, Crane과 Larson(1995)이 RDAS로 재구성하여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RDAS를 연구자가 번안하고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RDAS는 배우자의 부부적응을 측정하기에 부부의 결혼생활에서의 부부적응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척도의 구성요소는 만족관련, 응집관련, 동의관련이다. 만족관련은 안정성과 갈등이다. 응집관련 요소의 경우 의

논과 활동이며, 동의관련은 가치관과 애정,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의견일치정도, 결혼적응, 대화패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RDAS는 비교적 짧으면서도(32개 아이템) 다차원적(4개 하위척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세부 하위 영역은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문항의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모두 총14문항 중 10개 문항 1, 2, 3, 4, 5, 6, 11, 12, 13, 14 역 채점 문항). RDAS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부부관련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RDAS는 국내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윤애란 외, 2013; 최성일, 2004). 윤애란 외(2013)의 연구에서는 부부적응이 .92로 나타났다. RDAS의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의 범위는 .76-.95이며 평균 내적일치도 계수는 .87 이었다. 최성일(2004)의 연구에서는 RDAS 결혼적응도=.81, 일치도=.86, 만족도=.69, 응집도=.5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계수로 사용하였으며 부부적응은 .89로 나타났다.

5.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예비모임

연구 참여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로 한정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부부 집단상담 내지는 부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부부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참여자인 실험집단 6쌍과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예비모임을 가졌다. 예비모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실행방법을 안내하였다. 그런 후 이들에게 참여 시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혀주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 시 법률

에 의해 다문화가정 부부의 개인의 신상 정보와 녹취록 등은 연구를 위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녹취록은 본 연구가 완료된 이후 1년 이내에 폐기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공유하기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절차는 [그림 Ⅲ-2]와 같다.

절차	내용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 안내문 배포, 기관장의 추천 · 연구 참여자 및 가족구성원 만남 및 연구에 대한 인식
▼	
사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의사소통 척도 · 부부갈등 척도 · 부부적응 척도
▼	
중재 프로그램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이해 · 대화전략 · 갈등해결 · 프로그램 강의 및 실행 · 중재 충실도 측정 · 부부 개별지원 · 브릿지과정 · 사회적 타당도
▼	
사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의사소통 척도 · 부부갈등 척도 · 부부적응 척도

[그림 Ⅲ-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절차

위의 [그림 Ⅲ-2]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중재하였다. 이는 상호이해, 대화전략, 갈등해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강의 및 실행, 중재 충실도 측정, 부부 개별지원, 브릿지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부부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부부의 노력과 함께 가족(부모,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2) 사전검사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에게 2015년 1월, 프로그램 1회기 시작 이전에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영어와 한국어의 사용이 자유로운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한국어 번역 문항과 원문의 의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번역된 문항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원문을 참고하여 단순화하거나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읽기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과 교육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 2인이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모든 척도는 한국어 외에도 연구 참여자의 모국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며, 각 언어별로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검토되어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는 한국어와 연구 참여자의 모국어로 된 설문지가 주어졌으며, 설문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학 박사과정 학생의 도움이 제공되었다.

3) 중재 프로그램 실행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후에 관

런 전문가의 프로그램 검토 및 예비 실행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되었다. 완성된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실험집단(6쌍)의 부부에게 매주 1회씩(120분) 9주간에 걸쳐 실행되었다.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로 부부 개별지원이 각각 3회씩 이루어졌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여성단체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대화 및 부부 갈등해결을 위해 운영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 및 동반자적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4) 사후검사

중재 프로그램인 9회기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검사와 같은 질문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부부에게 도움을 주었다.

6. 중재 충실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연구자에 의해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9회기 중 무작위로 6회기를 교육학 전공 박사수료생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중재 충실도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중재 충실도 문항 및 결과는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중재 충실도 문항 및 결과

번호	문항	M	SD
1	프로그램 주제와 목적에 맞게 자료가 준비되었다.	5.00	.00
2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5.00	.00
3	프로그램 시작 때 회기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4.40	.55
4	회기별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실행하였다.	5.00	.00
5	참여부부에게 질문과 발표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4.60	.55
6	해당 회기 프로그램 시작과 마침 시간이 적절하였다.	4.60	.55
7	프로그램은 목표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	5.00	.00
8	부부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40	.89
총 계		4.75	.29

위의 <표 III-11>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중재 충실도는 총 8문항으로 평가되며 1점에서 5점까지 점수의 합산이 높을수록 중재 충실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재 충실도 결과, 자료 준비 문항은 평균 5점으로, 모든 회기에서 매우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자료 활용에 대한 문항은 평균 5점으로, 모든 회기에서 매우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프로그램 시작 시 회기별 목표를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4.4점으로, 대체로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회기별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실행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5점으로, 모든 회기에서 매우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실험집단 부부에게 질문과 발표기회, 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4.6점으로, 모든 회기에서 대체로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회기 프로그램 시작과 마침 시간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4.6점으로, 대체로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프로그램은 목표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5점으로, 모든 회기에서 매우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부부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4.4점으로, 3회기에서는 보통이다,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에서는 대체로 그렇다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8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75점으로 연구자가 자료 준비와 활용을 충분히 하였으며, 계획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실하게 중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사회적 타당도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부부에게 사회적 타당도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향후 프로그램에 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즉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 1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의 <표 III-12>와 같이 5점 척도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대체로 만족, 5점= 매우 만족).

<표 III-12> 사회적 타당도 문항 및 결과

번호	문항	M	SD
1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75	.45
2	부부간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83	.39
3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58	.51
4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83	.39
5	부부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75	.45
6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92	.29
7	다음 단계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4.33	.78
8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다른 부부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십니까?	4.25	.75
총 계		4.66	.26

사회적 타당도 결과, 연구 참여자는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었냐는 문항에 평균 4.75($SD=.45$), 부부간 대화에 대한 문항은 평균 4.83($SD=.39$),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문항, 평균 4.58($SD=.51$),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문항, 평균 4.83($SD=.39$), 부부의 친밀도를 높이는 문항, 평균 4.75($SD=.45$),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느냐에 대한 문항에 평균 4.92($SD=.29$)로 응답하였다. 다음 단계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평균 4.33($SD=.78$)으로 응답하였으며,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다른 부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문항은 평균 4.25($SD=.75$)로 응답하였다. 8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4.66($SD=.26$)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비교적 상당히 만족한 수준의 사회적 타당도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8. 자료처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미친 영향을 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group design; 성태제, 시기자, 2011)를 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계 분석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를 비교한 결과, 연구문제2의 부부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연구문제2의 부부갈등, 부부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5>참고). 따라서 연구문제2의 부부 의사소통은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하고,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를 비교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연구문제2의 부부갈등, 부부적응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C. 프로그램 실행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 방법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관찰일지와 녹취록, 사후면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메시지, 의사소통방식과 관계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을 관찰하여 기록한 현장관찰일지와 프로그램 실행과정을 녹취한 파일을 전사처리한 자료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녹음(회기 당 평균 120분)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연구자료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는 1회기 당 120분씩, 총 36시간에 대한 프로그램 과정을 MS워드를 이용하여 전사한 전사본이다. 전사자료는 맑은 고딕체의 글씨 크기 10이며 1.5줄의 간격으로 1페이지 당 25줄로 구성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9회기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페이지는 총 557페이지였고, 회기 당 평균 60페이지에 달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 면담은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 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실행 전략 등이 부부에게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질문은 다음의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인식과 경험에 대한 사후면담의 핵심 질문

내 용
프로그램에 대해 부부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부부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인터뷰 질문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 인터뷰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약한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후면담 녹취자료는 위에서 제시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19페이지 분량이 수집되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다문화 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Strauss & Corbin(2007)의 연속적 비교법의 단계로 부호화하고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1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관계변화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행과정 전사본을 가지고 분석하여 1차 코드북을 개발하였다. 1차 코딩에서는 프로그램의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부터 프로그램 구성 내용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1차 코딩이 완성된 후 2차 코딩에서는 현장관찰일지를 추가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여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해서 2차 코드북을 만들었다. 이러한 2차 코드북을 보다 계열성을 지니도록 유목화하여 정리해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군을 도출하여 3차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또한 사후면담 전사자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상위 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3차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개의 대주제와 각각의 대주제에 따라서 3개, 2개의 하위 주제로 정리되었다.

D. 프로그램 최종본 개발 방법

프로그램 실행 효과 및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1차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증받기 위하여 전문가 3인에게 2차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문가 B와 C는 1차 타당도 검증에도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D는 대학에서 다문화교육 전공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전문가 배경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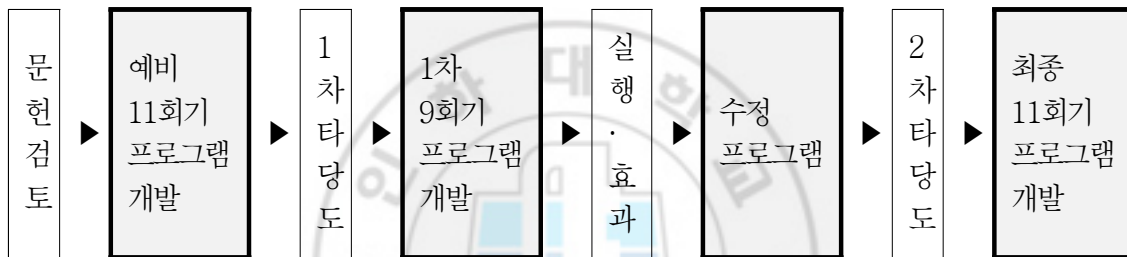
구분	참여 전문가	다문화 관련경력
B ^a	A 여성의 전화 기관장(프로그램개발 운영자)	20년
C ^a	부부상담 전문가	15년
D	다문화교육전공교수	10년

a=1차 전문가 타당성 검증에도 참여하였음

수정된 프로그램과 함께 이전 프로그램의 회기별 상세 내용, 효과 분석 등을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검증 의견과 수정 제안을 면담과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총 11회기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을 적용하여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문헌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11회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1차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1차 9회기 프로그램(<표 IV-1>참고)을 개발하였다([그림 IV-1]참고).



[그림 IV-1]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절차

1차 9회기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실행한 결과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관해 사후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증받기 위하여 2차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략을 보완하여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최종본은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부대화법을 익혀 실제 부부들의 갈등을 해결해갈 수 있기 위한 내용과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A.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와 실행전략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선 문헌검토를 거쳐 프로그램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추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포함시켜 1차 9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프로그램의 목표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부대화기술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가정 내에서 부부끼리 협력적인 갈등해결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다음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부부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을 직면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반영, 인정, 공감 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부부대화기술과 갈등대처방식을 이해하고 익히도록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부들의 가정 내에서 실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해가며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배운 부부대화법을 중심으로 부부대화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의 전이를 키우고 대화기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그램의 구조

1)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일반 부부 및 다문화가정 부부와 관련된 부부상담,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다룬 17편의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 증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두 회기를 줄여서 9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개요는 다음의 <표 IV -1>과 같다.

<표 IV -1> 9회기 프로그램의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다문화가정 부부 6쌍(12명)
운영시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 및 실행단계
운영시간	1~8회기 운영시간 120분, 전체 8회기(총 16시간) 9회기 브릿지과정 1박 2일(20시간) 1~8회기까지 저녁 시간대 운영
교육장소	대도시 A단체 강의실
프로그램 내용	자신과 배우자의 성향 파악을 통한 자기이해 및 상호이해 부부 갈등해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부대화법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내용
실행전략	강의, 안내, 인지적 모델링, 발표, 시연, 집단상담, 개별지원 등 다 문화가정 부부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실행전략을 사용

2) 프로그램 구성요소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 갈등해결, 부부적응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각 부부들이 부부대화방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문헌검토를 통해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일차적으로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이해부족으로 연결되어 결국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고 단절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일반 부부와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바탕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문화가정 부부의 자신과 배우자 성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호이해로 나아가 부부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내용, 둘째, 부부대화법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셋째, 앞의 과정들을 거친 후 부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상호간의 바람을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크게 다섯 가지,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자기인지 및 성찰, 긍정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으로 정리해볼 수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는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용되었다. 각 구성요소는 다음의 <표 IV-2>에서 제시하였고, 출처는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다.

<표 IV-2> 프로그램 구성요소

프로그램 구성요소	내용	출처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국적 차이로 인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배우자의 문화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들에 대하여 부부대화, 언어 및 문화의 이해 등의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원활한 부부관계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	곽정임 외(2015) 김연수(2010) 박수선(2013) 원복연 외(2013) 이선희 외(2013) 전영주 외(2010) 최윤희(2000) 최진아 외(2012)
자기인지 및 성찰	자신의 성향,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등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기 이해와 성찰적 행위를 바탕으로 부부간 상호이해를 도움	박수선(2013) 원복연 외(2013) 최윤희(2000)
긍정적인 의사소통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화단절 상황을 극복하고자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표현하기,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와 같은 부부대화법을 사용하여 부부 상호간의 이해 영역을 넓히고 협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함	공성숙(2004) 김연수(2010) 김희진(2005) 박남숙(2001) 박수선(2013) 방현주 외(2002) 연영란 외(2012) 이선희 외(2013) 이화자 외(2010) 전영주 외(2010) 최미나 외(2014) 최윤희(2000) 최진아 외(2012) 한정희(2012)
문제해결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직면하고,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부부가 협력적으로 제거해 가는 것으로 부부대화법,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여 부부간의 실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해갈 수 있도록 함	공성숙(2004) 김희진(2005) 박수선(2013) 연영란 외(2012) 이화자 외(2010) 최미나 외(2014) 최윤희(2000) 최진아 외(2012) 한정희(2012)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부부가 보다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면서 배우자와 삶을 함께 공유하는 측면이 있음	연영란 외(2012) 최윤희(2000)

(1)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반 부부에게도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수선, 2013; 원복연 외, 2013; 이선희 외, 2013; 전영주 외, 2010; 최윤화, 2000). 이는 결혼이 당사자 간의 단순한 결합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서로 다른 가치관, 성격, 생활양식 등이 융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결혼과정에서 배우자를 알아가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국적 차이로 인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과 상호문화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대화, 언어 및 문화차이 이해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돕고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곽정임 외, 2015; 김연수, 2010; 최진아 외, 2012).

이를 위한 활동으로 배우자 소개하기, 심리검사를 통해 부부성향 알기, 부모 기억 떠올리기, 부부대화를 통해 문화차이 알아가기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배우자를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배우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배우자와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면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에 따른 배우자의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심리검사를 통해 부부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호교류는 쌍방향적인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부부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상호이해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기인지 및 성찰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헌에서는 배우자를 알고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등의 자신을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박수선, 2013; 원복연 외, 2013; 최윤화, 2000). 한 개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

서 학습되고 형성되는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상호이해를 통한 부부관계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활동에는 자기소개하기, 부모 기억 떠올리기, 심리검사를 통한 자신의 성향알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부부들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소개하고, 심리검사와 부모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면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심리검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성향과 행동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돌아보며 성찰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3) 긍정적인 의사소통

문헌을 검토한 결과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해가기 위해 일반 부부와 다문화가정 부부 모두에게 부부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연수, 2010; 김희진, 2005; 박수선, 2013; 방현주 외, 2002; 연영란 외, 2012; 이선희 외, 2013; 전영주 외, 2010; 최윤화, 2000; 최진아 외, 2012).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간에 감정, 생각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넓혀가는 행위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는 일반 부부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언어차이로 인해 회피, 부부대화 단절 등의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상호이해의 영역을 넓혀가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의사소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은 대화 시간이 많고 적은 양의 문제보다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의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들은 긍정적인 관계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올바른 부부대화법을 배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공성숙, 2004; 박남숙, 2000; 이화자 외, 2010; 최미나 외, 2014; 한정희, 2012). 여기에서는 거울을 비추듯이 배우자가 하는 표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반영하기, 배우자를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기, 배우자의 감정에 들어가 이해하는 공감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이끌 수 있다. 또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표현하기와 같은 활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끌어어나가고자 한다.

(4) 문제해결

부부갈등은 부부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긴장감이 자리 잡게 되고, 정서적 단절에까지 이를 수 있어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실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공성숙, 2014; 김희진, 2005; 박수선, 2013; 이화자 외, 2010; 최윤화, 2000; 한정희, 2012).

다문화가정 부부는 상호이해 및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일반적인 원인과 더불어 언어 및 문화차이, 결혼 구조상으로 야기되는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갈등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부부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부부들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연영란 외, 2012; 최미나 외, 2014; 최진아 외, 2012).

이를 위해 부부들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직면하고, 앞서 언급한 느낌표현, 반영, 인정, 공감의 부부대화법을 직접 시연해 보는 활동들로 구성하여 부부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갈등대처방법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도 기

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부부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는 결국 지속적인 부부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부부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부는 친밀한 관계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5)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문헌을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원복연 외, 2013; 최진아 외, 2012; 김연수, 2010; 방현주 외, 2002).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관점에서 토의하였고(연영란 외, 2012), 당신에게 주는 선물(최윤희, 2000)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부부친밀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부부간에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하는 활동을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는 부부의 관계 성장을 위하여 배우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합리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바람을 배우자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고려하고, 배우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하여 단순히 자신만의 요구사항을 말하기보다 현실가능한 선에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로 부부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는 여가 시간이나 삶을 직접적으로 함께 공유할 때 책임감을 가지며 더욱 친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화하고 갈등을 줄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서로에게 소망하는 바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요청에 대해 당장 가능한지, 어렵지만 가능한지 등으로 나누어 표현을 하고, 자신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행동에 대해 계획하고, 약속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부들은 상호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며 한층 친밀한 부부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그램 실행전략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성은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수용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부부들은 상호이해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부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내용과 다문화가정 부부이기에 더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구성하였고, 프로그램 내용적 요소들이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고 효과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실행전략들을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17개의 논문을 분석해보고 일반 부부와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필요한 실행전략을 추출한 후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해 요구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된 프로그램 실행전략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개별상담 및 지원, 심리검사를 통한 이해증진, 인지적 모델링, 학습의 전이 증진, 집단 내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다섯 가지 실행전략은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행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각 전략별로 내용을 <표 IV-3>에서 제시하였고, 출처는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다.

<표 IV-3> 프로그램 실행전략

프로그램 실행전략	내용	출처
개별상담 및 지원	기본적으로 집단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집단 속에서도 연구자와 개별 부부들이 삼각구도로 앉아 개별적으로 축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집단 내에서 드러낼 수 없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개별지원이 이루어져 부부대화법을 중심으로 실제 갈등을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가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곽정임 외(2015)
심리검사를 통한 올바른 자기이해	자신과 배우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성향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 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	박수선(2013) 이선희 외(2013)
인지적 모델링	언어차이로 인해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내들과 부부대화법, 갈등대처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부부들을 위하여 연구자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참여자들이 사고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직접 소리 내어 시연해보는 과정으로 학습한 기술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면화하도록 함	공성숙(2004) 김정옥(2013) 방현주 외(2002)
학습의 전이 증진	프로그램 내에서 배운 부부대화법을 실제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제 부부들이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연영란 외(2012)
집단내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집단 내 다른 부부들 앞에서 배우자에게 바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실천적이고, 책임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신들 부부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음	연영란 외(2012) 최윤화(2000)

(1) 개별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여러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참여하는 집단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부들을 만나 라포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부부문제에 대해 드러내놓고 부부대화로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부부갈등 노출을 통해 다른 부부들은 갈등대처방법과 문제해결 과정을 여러 차례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다른 부부들 앞에서 대화하는 부부들은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책임감과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에 부부가 드러낼 수 없는 갈등이 있을 경우 집단이라는 상황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상담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부 개별지원이 필요하다(곽정임 외, 2015) 이때 부부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상담 및 지원을 하되 부부의 변화를 보기보다는 다른 부부들 앞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갈등에 대하여 집단 내에서 배웠던 대화기술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집단에서 개별 가정으로의 장소 이동이 아니라 가정으로의 확대이자 가족구성원들과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심리검사를 통한 올바른 자기이해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당성 있고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헌검토에서는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배우자의 초기경험에 대해 살펴보는 전략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수선, 2013; 이선희 외, 2013).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나와 심리검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며 자신의 성향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이러한

성향이 실제 행동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또한 심리검사 중 부부매치도를 활용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부부매치도란 부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이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알고, 부부를 이해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인지적 모델링

문헌을 검토한 결과 부부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술과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인 부부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부부들에게 먼저 절차를 보여주고 강의식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을 통해 실제로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공성숙, 2004; 김정옥, 2013; 방현주 외, 2002). 특히, 다문화가정 아내들은 아직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모델링을 통해 실제 실행을 관찰하고 차근차근 모방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집단 프로그램은 먼저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해주고 연구자가 한 부부와 함께 앉아 각 부부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구조로 진행한다. 부부들은 의사소통기술과 갈등대처 단계에 대하여 사고를 명료화한 후, 직접 소리 내어 시연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 기술을 직접 수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면화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자는 부부들의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부들은 부부대화법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 학습의 전이 증진

전이란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상황 또는 실제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 전이는 배운 것을 토대로 다른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면 자동적으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서 부부 대화법을 학습한 부부들은 프로그램 밖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한 내용, 기술을 적용해봄으로써 학습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윤희, 2000). 그래서 부부들에게 부부대화 노트를 매주 작성하게 하여 배웠던 대화법을 중심으로 부부대화를 가정에서 해봄으로써 반복과 연습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 내에서만 아닌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장소의 확대를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부들은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연습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익힌 기술을 적용하며 부부끼리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5) 집단 내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프로그램 내에서 배우자가 해줬으면 하는 합리적인 변화에 대해 요청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이다(연영란 외, 2012; 최윤희, 2000).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고 수용하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어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활동은 집단 내에서 다른 부부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일종의 공개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부들 앞에서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을 요청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실천적인 힘이 부족한 개별적인 부부의 약속이 아니라 보다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선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다른 부부의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신들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요구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하며 부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요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B.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기술통계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연구 참여자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부부 의사소통 <i>M(SD)</i>				부부갈등 <i>M(SD)</i>				부부적응 <i>M(SD)</i>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T1	3.42 (.77)	3.16 (.50)	3.95 (1.08)	3.53 (.77)	3.38 (.85)	3.15 (.73)	3.69 (1.12)	3.12 (.82)	3.86 (.66)	4.21 (.80)	4.21 (.58)	4.07 (.83)
T2	3.11 (.81)	3.16 (1.42)	3.74 (.87)	3.68 (1.06)	3.12 (.65)	2.50 (1.53)	3.31 (.74)	3.04 (1.31)	3.21 (.70)	2.86 (1.41)	3.79 (.58)	3.79 (.89)
T3	2.74 (1.66)	2.63 (1.21)	3.05 (1.58)	3.11 (.66)	2.54 (1.82)	3.08 (.84)	2.81 (1.63)	3.23 (1.11)	1.93 (1.33)	2.93 (.92)	2.36 (1.34)	3.07 (.73)
T4	3.89 (.88)	4.11 (.81)	4.58 (.51)	4.11 (.88)	3.65 (.94)	3.31 (1.05)	4.15 (.78)	3.96 (1.31)	3.71 (.61)	4.00 (.55)	4.29 (.47)	4.14 (.77)
T5	2.68 (1.00)	3.26 (.73)	3.53 (.90)	3.47 (.84)	3.23 (.86)	3.15 (.67)	3.19 (.63)	3.50 (.71)	2.93 (.92)	3.14 (.53)	3.29 (.83)	3.43 (.51)
T6	2.16 (1.17)	3.00 (.88)	4.79 (.42)	3.11 (.99)	3.04 (1.18)	3.27 (1.12)	3.38 (1.70)	3.12 (1.03)	2.00 (1.30)	3.21 (.43)	4.57 (.65)	3.79 (.97)
전체	3.00 (.61)	3.22 (.49)	3.94 (.65)	3.50 (.38)	3.16 (.37)	3.08 (.29)	3.42 (.46)	3.33 (.35)	2.94 (.83)	3.39 (.57)	3.75 (.82)	3.71 (.40)
집단	3.11		3.72		3.12		3.38		3.17		3.73	
전체	(.54)		(.56)		(.32)		(.39)		(.72)		(.61)	

구분	부부 의사소통 <i>M(SD)</i>				부부갈등 <i>M(SD)</i>				부부적응 <i>M(SD)</i>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C1	3.79 (1.36)	3.11 (1.10)	2.53 (.77)	2.68 (.89)	3.31 (1.41)	3.23 (.91)	3.27 (.83)	3.08 (.74)	2.71 (.99)	3.64 (1.01)	3.07 (.62)	3.07 (.62)	
C2	3.53 (1.02)	3.21 (.85)	3.21 (.63)	3.21 (.54)	3.19 (.69)	3.27 (.87)	3.27 (.83)	3.15 (.88)	3.79 (.89)	3.71 (.47)	3.86 (.77)	3.79 (.58)	
C3	3.63 (.90)	3.42 (1.12)	2.95 (.71)	3.26 (.93)	3.04 (.77)	3.08 (.80)	2.96 (1.00)	2.96 (.92)	2.50 (.76)	2.50 (.76)	2.71 (.91)	2.93 (1.14)	
통제 집단	C4	3.21 (.63)	3.32 (.75)	2.11 (1.66)	3.11 (.74)	2.65 (.56)	3.04 (.77)	2.62 (1.27)	2.96 (.60)	2.86 (.53)	3.79 (.80)	1.43 (.51)	3.29 (.91)
	C5	4.42 (.69)	4.58 (.61)	3.37 (.76)	4.11 (.66)	3.54 (.95)	3.58 (.90)	3.27 (.53)	3.54 (.58)	3.71 (.61)	4.21 (1.12)	3.00 (.00)	3.86 (.77)
	C6	3.58 (.84)	4.37 (.60)	3.00 (.00)	3.53 (.77)	3.19 (.63)	3.38 (.64)	3.08 (.39)	3.38 (.50)	3.57 (.51)	3.79 (1.05)	3.64 (.50)	3.36 (.50)
전체	3.69 (.40)	3.67 (.64)	2.86 (.47)	3.32 (.48)	3.15 (.30)	3.26 (.20)	3.08 (.26)	3.18 (.24)	3.19 (.56)	3.61 (.58)	2.95 (.86)	3.38 (.38)	
집단 전체	3.68 (.51)		3.09 (.51)		3.21 (.25)		3.13 (.24)		3.40 (.59)		3.17 (.67)		

<표 IV-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에 참여한 부부의 경우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 등 모든 영역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의 점수가 향상되었고, 통제집단에 참여한 부부의 경우 전 영역에서의 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집단 간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한 각 연구문제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수준을 알기 위해 사용된 검사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부 의사소통의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및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부부 의사소통은 사전($M=3.11$, $SD=.54$)보다 사후($M=3.72$, $SD=.56$) 점수가 .60점($SD=.68$) 더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사전($M=3.68$, $SD=.51$)보다 사후($M=3.09$, $SD=.51$) 점수가 .59점($SD=.40$)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집단별 부부 의사소통 사전-사후검사 및 교정된 사전-사후검사 차이의 기술통계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사후	사후-사전	사전	사후	사후-사전	교정 사후-사전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부부 의사소통	3.11 (.54)	3.72 (.56)	.61 (.68)	3.68 (.51)	3.09 (.51)	-.59 (.40)	-.44 (.15)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의사소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표 IV-5>참고),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하고 사전-사후검사 차이 값을 교정하였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부부 의사소통의 사전-사후검사 차이의 공변량 분석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사전검사)	6.56	1	6.56	27.99***
집단	3.66	1	3.66	16.60**
오차	4.92	21	.23	
합계	15.14	24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표 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검사 점수는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차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F(1,21)=27.99, p<.001$]. 따라서 사전검사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1,21)=16.60, p<.01$]. 이러한 결과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 정도는 통제집단 부부의 변화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인 다문화가정 부부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부부갈등의 변화 정도가 통제집단 부부의 변화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집단의 부부갈등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V-7>참고).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음을 나타내므로, 실험집단 부부의 경우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참여 후, 부부갈등 수준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의 사전점수 평균은 3.12점($SD=.32$)이고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3.38점($SD=.40$)으로 프로그램 참여 후에 평균 .26점($SD=.25$) 상승했다.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 3.21점($SD=.25$)에서 사후검사 평균 3.13점($SD=.24$)으로 사전보다 사후검사 때 .08점($SD=.09$)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런 개입이 없었던 통제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갈등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에 대한 것은 다음의 <표 IV-7>과 같다.

<표 IV-7>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 부부갈등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 비교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t
	사전	사후	사후-사전	사전	사후	사후-사전	
	M(SD)	M(SD)	M(SD)	M(SD)	M(SD)	M(SD)	
부부갈등	3.12 (.32)	3.38 (.40)	.26 (.25)	3.21 (.25)	3.13 (.24)	-.08 (.09)	4.45***
- 대화시작	2.90 (.59)	3.36 (.38)	.45 (.41)	3.29 (.32)	3.06 (.32)	-.23 (.24)	4.97***
- 대화도중	2.77 (.89)	2.63 (.90)	-.15 (1.04)	2.92 (.48)	2.81 (.52)	-.10 (.45)	.13
- 문제해결 시	2.70 (.26)	2.61 (.43)	-.99 (.41)	2.83 (.33)	2.83 (.28)	.00 (.29)	.69

*** $p < .001$

추가적으로 부부갈등 검사의 하위 요소인 대화시작, 대화도중, 문제해결 시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표 IV-7> 참조),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사전-사후검사 차이가 가장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4.97$, $p < .001$). 대화도중이나 문제해결 시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부갈등의 사전-사후점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화시작 시, 부부 갈등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부부적응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IV-8> 참고).

<표 IV-8>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 부부적응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 비교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t
	사전	사후	사후-사전	사전	사후	사후-사전	
	M(SD)	M(SD)	M(SD)	M(SD)	M(SD)	M(SD)	
부부적응	3.17 (.72)	3.73 (.61)	.57 (.69)	3.40 (.59)	3.17 (.67)	-.23 (.54)	3.17**
- 의견합치도	2.97 (.92)	3.67 (.71)	.69 (1.06)	3.68 (.57)	3.42 (.70)	-.51 (.47)	3.62
- 결혼적응	3.23 (.58)	3.75 (.53)	.52 (.36)	3.18 (.49)	3.08 (.75)	-.1 (.73)	2.64*
- 결속력	3.44 (1.09)	3.83 (.89)	.39 (1.20)	3.19 (1.10)	3.31 (.93)	.11 (1.08)	.60**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 사전점수는 3.17점($SD=.72$)이고 평균 사후검사 점수는 3.73점($SD=.61$)으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참여 후에 부부적응 점수가 평균 .57점($SD=.69$) 상승하였다. 통제집단은 사전

검사 점수 평균 3.40점($SD=.59$)에서 사후검사 점수 평균 3.17점($SD=.67$)으로 사전보다 사후검사 때 .23점($SD=.54$)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통제집단에서 확인된 점수의 하락은 이 집단의 부부들이 인식하는 부부적응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실험집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의 변화 정도가 통제집단 부부의 변화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부적응의 하위요소별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결속력변인이 가장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t =.60, p<.01$), 결혼적응 변인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의견합치도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통제집단은 사후검사 때 점수가 .51점($SD=.47$) 낮아졌으나, 실험집단은 .69점($SD=1.06$)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관계중심의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결속력과 결혼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C.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현장관찰일지와 프로그램 실행과정을 녹취해 전사한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부부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참여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

그램에 대한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스물여덟 개의 주요 의미코드, 아홉 개의 세부 주제, 다섯 개의 하위 주제, 두 개의 대주제로 정리되었다(<표 IV-9 참조>).

<표 IV-9>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군과 주요 의미코드

대 주제	하위 주제	세부 주제	주요 의미코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	메시지	초기: 평행선에 있는 우리	- 언어 소통의 어려움 - 문화차이로 인한 오해와 무시 - 부정적인 인식과 표현
		후기: 교차점에 마주 서있는 우리	- 감정표현 증가 - 변화에 대한 요청
	의사소통 방식	초기: 거친 목소리인 당신	- 비난 - 분노 표출 및 욕설
		중기: 내 목소리 되돌아보기	- 갈등조정에 대한 소통의 시작
		후기: 건강하게 소통하기	- 부부 의사소통기법 학습 - 고마움에 대한 표현
	관계	초기: 바라보기 힘든 당신	- 불만으로 인한 갈등관계 - 무관심으로 인한 친밀감 부족
후기: 사랑하고 싶은 당신		- 친밀감 증진 - 호칭의 변화 - 서로에 대한 배려 -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서지원 -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성과 및 강점	실효성 있는 내용 구성	- 긍정적인 느낌 표현방법 습득 - 상호이해 증가 - 부부대화의 필요성 - 부부의 친밀감 증진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	- 문화적 촉진자 - 부부를 위한 신체적 접촉 활동 -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서지원 - 가족으로의 확대 - 개별지원 및 라포형성
	프로그램 제한점		- 통역으로 인한 시간 소모 -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자녀 돌 봄 문제

<표 IV-9>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코드화된 주요 의미코드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제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에 대한 오해와 무시, 부정적인 인식과 표현은 초기의 평행선에 있는 우리라는 세부 주제로 정리되었다. 마찬가지로 감정표현 증가와 변화에 대한 요청의 주요 의미코드는 후기의 교차점에 마주 서있는 우리라는 세부 주제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초기, 후기의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메시지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비난, 분노 표출 및 욕설은 초기의 거친 목소리인 당신으로, 갈등조정에 대한 소통의 시작은 중기의 내 목소리 되돌아보기로, 부부 의사소통기법 학습, 고마움에 대한 표현은 후기의 건강하게 소통하기로 정리되었다.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방식이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불만으로 인한 갈등관계, 무관심으로 인한 친밀감 부족의 주요 의미코드는 초기의 바라보기 힘든 당신으로, 친밀감 증진, 호칭의 변화, 서로에 대한 배려,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서지원, 배우자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주요 의미코드는 후기의 사랑하고 싶은 당신이라는 세부 주제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관계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메시지, 의사소통방식, 관계라는 세 가지 하위 주제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참여경험이라는 대주제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 표현방법의 습득, 상호이해 증가, 부부대화의 필요성, 부부의 친밀감 증진의 주요 의미코드는 실효성 있는 내용 구성이라는 세부 주제로 정리되었고, 문화적 촉진자, 부부를 위한 신체적 접촉 활동,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서 지원, 가족으로의 확대, 개별지원 및 라포형성은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의 세부 주제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세부 주제는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강점이라는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통역으로 인한 시간 소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의 주요 의미코드이며 프로그램 제한점이라는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강점과 프로그램 제한점이라는 하위 주제는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라는 대주제로 범주화되었다.

1.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

현장관찰일지와 프로그램 실행과정 전사자료를 가지고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대주제에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의 변화로서 관찰된 메시지, 의사소통방식, 관계의 세 가지 하위 주제로 정리되었다.

1) 메시지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초기에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문화차이로 인한 오해와 무시를 하며,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후기로 접어들수록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배우자에게 하는 감정표현이 늘어났고,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

(1) 초기: 평행선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초기에 참여자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부부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과 배우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한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내들의 경우 언어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남편들은 아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통 사람... 설렁탕, 김치찌개...”(T12. 1/15:24)¹⁾

“아니, 나 고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한국 처음 한국이

1) 프로그램 실행과정 전사본 인용문 출처 표기방식: 참여자ID(부부번호,1:남편,2:아내). 회기/페이지:시작줄번호-마지막 줄번호

잖아요. 이 사람은 뭐 메리야스나 양말 뭐 어찌구 나한테 시키는 거 다 시키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T32. 1/29:10)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라고 했을 때 T1 아내는 ‘보통 사람’이라 말하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설렁탕, 김치찌개’라고 대답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단답형은 이는 한 아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부부의 아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아내들은 남편과의 언어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워했고, 한국어가 미숙해 프로그램 내에서 남편을 소개할 때 완전한 문장이 아닌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띄엄띄엄 표현하고 있었다. T3 아내의 경우 자신은 한국이 처음이라 한국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에게 지시하여 곤란함을 겪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아내들은 남편과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미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활하지 못한 부부간의 대화를 이끌어 배우자와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고, 나아가 상호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부부관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남편들은 아내가 집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자신들의 말로 하니 알아들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아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오해를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까지 여겼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하고 술은 안 먹어요.”(T21. 1/18:18)

“술. 근데 남편이랑 같이 먹는 거는. 필리핀 사람은 그런 거 안 돼요. 남편이랑 같이 술 먹으면.”(T2.2). (T52. 1/20:14)

“난 처음 알았어. 그냥 셸이 내가 싫어서 같이 안 마시는 줄 알았지. 우리하고 달라요?”(T21. 1/20:18)

T2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여겼으나 T2 아내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필리핀 출신 아내들이 자신들의 문화는 남편과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T2 남편은 아내와의 국적 차이로 인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고, 이를 그저 아내가 자신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면 부부대화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도 오해하는 것으로 그쳐버렸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내에서 배우자를 소개하는 시간에 연구자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배우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또 술 먹는 거...노래방 가는 거 그것이에요. ...다른 거요? 없어요.”(T31. 1/33:2)

“좀 솔직히 말해서 고집 좀 세요. 잘 빠지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요...네에. 좀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 같아요.”(T61. 1/35:36)

“남편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고 화를 내고 성급하고 지시적이고 그래서 자기는 집에 들어오면 즐겁지 않다.”(현장관찰일지 T21. /2:12-13)²⁾

T2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처럼 남편의 태도로 인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즐겁지 않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 T3 남편과 T6 남편은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아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소개하였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한국 음식을 못 하는 사람,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점과 이러한 차이에도 알아가려는 노력보다는 ‘당신

2) 현장관찰일지 인용문 출처 표기방식: 참여자ID(부부번호,1:남편,2:아내). 회기/페이지: 시작줄번호-마지막 줄번호

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점을 부각시켜 단정 짓고, 평가하며 넘어가려는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간의 언어차이는 배우자를 소개하는 데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 공유와 의미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가정경제, 자녀양육, 노후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는 모두 결혼생활을 5년 이상 한 부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내는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남편과 메시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내의 모국어를 모르고 있으면 비언어적인 행동과 태도에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아내의 모국어를 알 수 없기에 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에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성향을 알고, 부모에게서 어떤 점을 물려받았고 그러한 특성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부부대화를 통하여 부부문제를 탐색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부부들은 자신들의 갈등을 드러내고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고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들, 생각들에 대하여 서로가 알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문화적 촉진자의 통역을 통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이해하고, 아내들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중반을 지나가면서 부부 또는 개인의 변화가 나타남을 느낄 수 있었다. 예로 T2의 아내는 술을 좋아하지만 남편과는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프로그램 과정에서 출신국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T2의 남편은 '이제야 알았다'는 표현을 하였다.

(2) 후기: 교차점에 마주 서있는 우리

프로그램 과정에서 아내의 모국에서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그 자체가 금기시 하고 있는 문화임을 알고 난 다음 자신이 아내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고 머쓱한 웃음으로 대처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 일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나아가는 협력적인 부부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감정표현을 하며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는 모습이였다.

“저도 솔직히.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썼으면 마음 같아선 마누라의 느낌도 알고 싶어.”(T51. 1/63:13)

그동안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T5 남편은 이제는 서로가 부부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혀갔으면 했고 그래서 배우자의 느낌은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부들은 그동안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 일에 함께 의논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부대화의 기술을 배워 실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봄으로써 부부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온 것과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주며 정중히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는 영어 학습지 공부하는데 집에서 꾸준히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 남편으로서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좀 이해해주고 앞으로 꾸준히 당신이 그래도 잘하니까 꾸준히 잘 도와줬으면 해.”(T11. 4/15:16-17)

T1 남편은 자녀의 영어 교육에 있어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는 입장을 아내에게 말하여 앞으로의 자녀 교육도 잘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와 아내의 장점을 살려 자녀를 잘 교육하고자 하는 T1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초기에 배우자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T5 남편은 이제는 서로가 부부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혀갔으면 하고 그래서 배우자의 느낌은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침에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 다른 아빠들은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왔다고 애길 했는데 왜 아빠는 데리고 가지 않아...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그런데 앞으로는 아들도 데리고 갈 거고 경준이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실은 너무 나도 행복했어.”(T51. 4/24:25-27)

이는 T5 남편의 경우로 다른 가정에서는 아빠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지만 T5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간다는 점에 미안함을 느끼고 앞으로는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4 부부는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예쁜 아기 낳아줘서 고맙고 힘든데 같이 와서 고맙고.”(T41. 2/41-29)

“처음 와서 한국말 많이 못해서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다 이해해줘서.”(T42. 2/29:13)

초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부부들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해가 부족하여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서로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협력적으로 부부대화를 시도해감으로써 부부는 정서적으로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부의 변화는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선행하고 이를 배우자가 느낄 때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변화는 상대방이 변화를 먼저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우선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의사소통방식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초기에 배우자에게 비난, 분노 표출 및 욕설과 같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이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반영, 인정, 공감이라는 부부대화법을 통해 부부들은 동의하는 표현,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늘려갈 수 있었다.

(1) 초기: 거친 목소리인 당신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방식은 비난, 분노 표출 및 욕설과 같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상호간 상처를 주고받는 의사소통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냥 보통 여자예요. 쇼핑하는데 가끔씩 안 좋아요. 화내요.”(T62. 1/36:1)

T6 아내는 자신은 보통 여자들과 같이 가끔 쇼핑을 즐길 뿐인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화를 낸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 부부 외에도 T3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을 챙기지 않고 외출 후에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거나 전화도 받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왜 남편이 자기를 나무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욕하는 부분에 있어 본인은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T4 아내는 남편이 요리를 하는 데 있어 한두 번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요리해줬을 때 맛이 없다고

화를 낸다고 하였다. 한 번 알려주면 되지 왜 안하느냐고 다그치는 남편의 태도가 무서웠다는 것을 개별지원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울먹이며 말하였다.

이렇듯 초기의 부부들은 자신의 요구와 생각에 부합하지 않을 때 무작정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부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부부갈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인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부인이 대화를 거절한다.”(현장관찰일지 T32. /2:24-25)

T3 남편은 신체적인 질환으로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그러한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남편의 현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남편은 잦은 음주를 하고, 아내에 대해 비난하고 화를 내며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중기: 내 목소리 되돌아보기

부부는 서로 불만사항에 대해 화살을 던지면서 정작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부부갈등의 불씨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부부들은 여전히 싸우지만 갈등조정을 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그때 나의 마음은 화난 게 아니고, 진짜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데 전화 와서 언제와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화난 건데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때 어쨌든 미안해...전화해줘. 아니면은 내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아니면 뭐 항상 아침에 회식한다고 미리 얘기를 하거든.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뭐 올 시간 지났는데 안 왔다면은 당연히 전화 당연히 전화 해주면 더 좋지.”(T11. 5/41:9-11)

“아이 엄마가 쇼핑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도 사 오는 거 같애. ...꼭 사고 싶은 건 꼭 사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사고 노후 대책을 했으면 좋겠어.”(T61. 5/54:11)

T1 부부는 남편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내가 그 동안에 전화를 하여 남편이 갑작스럽게 화를 낸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화가 났던 상황을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아내의 입장도 존중해주며 갈등을 해결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6 남편은 평소 아내의 쇼핑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왜 자신이 불만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을 비쳤고, 아내에게 자신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부부들이 자신의 요구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무작정 화를 내고, 이해시키지 않고 맞서 싸웠던 모습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들은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무작정 말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자신의 입장은 어떤지 느낌을 들어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며 화를 누그러뜨린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기를 지나 부부들은 프로그램 후기에 가면서 그동안 배운 부부대화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가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후기: 건강하게 소통하기

부부들은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부대화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부관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부대화기술을 학

습하였다. 먼저 생각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배우자를 평가하지 않고, 배우자의 말을 거울에 비추듯이 그대로 되돌려주는 반영하기,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하기의 부부대화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매주 부부대화 노트를 통해 프로그램 내에서 배운 대화법을 중심으로 실제 가정에서 부부끼리 협력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하도록 해 학습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올바른 부부대화법을 통해 부부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전히 부부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를 역기능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원만한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T2 남편은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한층 부드러워진 변화를 느꼈다고 말하였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 같은데 근데.. 아무리 친구가 좋고 그래도 .. 일단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그 전에 늦게 들어오고 할 때는 내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든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살면서.”(개별지원 T21. 1/2:12-15)³⁾

T2 부부는 갈등관계에 심한 상태에 있는 부부였다. 남편은 아내가 프로그램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자신의 부부가 대화를 원하지만 단절된 상태임을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는 남편을 피해서 집을 나가는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부부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남편인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부드러워진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그러한 남편의 말에 그렇다고 동의를 표하며 남편의 부드러워진 말투와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3) 개별지원 인용문 출처 표기방식: 참여자ID(부부번호,1:남편,2:아내). 회기/페이지:시작 줄번호-마지막 줄번호

“배우자로서 사실 뭐 낯선 한국에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예쁜 딸 아들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T11. 5/20:4-6)

“아무래도 얘기했어도 듣지 않고 어.. 맨날 저만 답답하고 속상하죠. 근데 이제.. 여기 참석해보니까 이제 많이 변했고 이제 어.. 일단 제가 제안하는 말은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 결정하면서 좋아졌어요.”(T52. 8/48:22-23)

T1 남편은 자신과 결혼하여 타지에서 낯선 한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고마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아내가 힘들어 했을 처지와 상황에 아내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5 아내의 경우 그동안 남편의 행동에 속상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남편이 자신이 제안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을 해가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남편들이 그들의 갈등에 대해 초기에 비난, 분노 표출, 욕설로 대응하던 모습과는 달리 프로그램 과정을 겪어오면서 아내의 말을 들어볼 여유가 생기고, 말투에서부터 부드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들과 함께 아내들 또한 변화를 겪었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고 먼저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부들에게 지배적이었던 비난, 경쟁, 분노와 같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부부대화가 단절되고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한 부부관계를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관계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초기에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었고, 무관심으로 인해 부부친밀감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후기로 접어들수록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친밀감이 증진되었고, 호칭의 변화가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늘어났다. 또한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여 실제 관계증진이 되는 모습이었고, 배우자의 지지를 비롯하여 집단원 등 사회적 지지까지 얻을 수 있었다.

(1) 초기: 바라보기 힘든 당신

프로그램 초반의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배우자에게 불만이 많아 갈등관계에 있었고, 서로 서먹하고 관심이 없어 부부간의 친밀감은 부족해 보였다.

“T2 아내는 실험집단의 사전 모임에서도 두 사람이 싸우고 온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였으며 사전검사지를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였다.”(현장관찰일지T22. 1/2:5-6)

T2 아내는 부부가 함께 짝을 이루어 앉아야 함에도 서로 등을 돌리고 앉거나 아예 옆으로 가서 앉는 것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였다.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하였다. 특히, 남편의 경우 서로 다른 아내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거나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이었다.

“서로가 소 닭 보듯이 뭐 그렇게 하다가...”(T21. 8/37:7)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느낌으로 때려잡는 건데.”(T21. 1/19:1)

초기에 부부들의 관계는 T2 남편의 말에 의하면 ‘서로가 소 닭 보듯’ 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과의 언어, 문화적 차이에 대해 부부대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이 지레짐작하여 대충 알고 넘어가며 결국 아내를 오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단절된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부들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친밀감을 통해 부부들은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고 정서적 거리를 좁혀감으로써 부부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이들은 친밀감이 부족한 모습이였다. 예컨대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대답을 할 만큼 부부가 평소에 함께 고민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T62) “술 먹으면 생각나는데.. 근데 평소에는 그런 감정이 나지 않더라구요.”(T61. 1/51:11)

“일 년.. 몇 년 됐나? 2년 됐나?”(T21) “아니야!”(T22. 1/49:16)

부부들의 경우를 보면 부부의 성생활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거나 서로가 느끼는 정도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부부들은 가까이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모습이였다. 부부의 친밀도를 위하여 부부들에게 스킨십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서로 원하는 정도가 다르거나 어색해함을 느낄 수 있었다. T5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애정표현을 징그럽다며 거부한다고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남편은 애정표현을 하는 아내에게 적응하기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T5 남편은 아내의 표현이 조금 지나쳐서 쑥스럽고 어색하다는 것이지 애정표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남편이 아직까지도 자기에 대한 애정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아내는 굉장한 친밀감으로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인데 T5 남편은 이 스킨십이 너무 지나쳐서 불편스럽다고 표현 하였다.”(현장관찰일지 T52. 1/2:1-3)

“신랑한테 저도 어제 배웠거든요, 우리 필리핀에서 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삼형제인데도 엄마, 아빠를 어디까지나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도 했는데 저도 우리 신랑한테 습관 되어가지고 근데 우리 신랑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징그럽다.”(T52. 1/66:17-19)

T5 아내는 애정표현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남편의 경우 아내가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 가정과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애정표현도 좋지만 자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쏟아주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서로 다른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대화법을 통해 서로에게 느낌을 전달하였고, 매주 부부가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부부대화 노트를 통해 인정과 공감하는 협력적인 부부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때 연구자인 촉진자가 이들 부부와 삼각구도를 만들어 앉아 부부대화법을 중심으로 올바른 부부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직접 시연하고 소리 내어 따라하게 하는 등의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 부부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 후기: 사랑하고 싶은 당신

다른 부부 한 쌍이 나와서 시연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모습을 다른 다섯 쌍의 부부들이 집중하고 연구자의 모델링을 보면서 익히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들의 차례가 오기 전에 미리 선행학습이 된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던 부분이었다. 프로그램 매 회기마다 부부대화를 통해 부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경험하는데 이는 실제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부문제를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회기가 늘어갈수록 서먹했던 부부들은 더욱 친밀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현장에서 해결할 때 부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자신의 감정표현을 통해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단순한 강의나 부부대화기술

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친밀감이 우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감을 쌓기 위하여 프로그램 사이에 음악에 맞춰 부부끼리 춤을 추는 시간을 갖게 했다. 이에 T1 부부는 다정하게 서로 눈을 맞추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T2 부부, T6 부부는 진지한 모습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T4 부부 또한 다정한 포즈로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들에서 프로그램 초기에 비해 부부들의 친밀감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가 프로그램의 회기를 거듭해오면서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남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야, 저기’라고 하였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호칭만 달리 해도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서로에 대한 호칭은 자신의 속한 소속감, 애정 등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칭은 즉,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호칭이 무엇인지는 부부대화를 통해 알아냈다. 프로그램 과정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남편이 아내를 평소에는 ‘야’, ‘어이’, ‘이봐’ 등으로 불렀던 것을 이제는 ‘누구 엄마, 아내 이름, 여보’와 같이 부르게 되었다. 한 부부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T5 남편은 아내를 ‘마누라’로 불렀으나 후반에는 좀 더 존중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보’라는 호칭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부의 변화와 함께 부부의 관계가 평등해지고, 배우자를 존중해주는 것과 같이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계기를 통해서 서로 바뀌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이게 소용이 없었겠죠. 그런 밑바탕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련해주게 이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비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귀 기울여 들려고 생각을 좀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봐요.”(T21. 8/37:6-8)

“진짜 많이 아프니까 뭐 걱정도 해주고 많이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참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요즘으로.”(T61. 8/55:24)

“내가 내가 그랬거든요. 일주일동안 내가 보고 싶어요. 나 보고 싶었어요. 여보?.”(T51. 8/44-7)

초기에 무관심했던 부부들은 프로그램을 거쳐 오면서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호에 대한 배려적인 모습을 띠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2 남편의 경우 자신 부부들은 예전에 비해 대화를 많이 하는 편으로 바뀌었고 배우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6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던 배우자가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아침에 밥도 안 챙겨주고 저기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아내가 이제 바로 이제 노력해가지고 아침밥도 챙겨주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분이 좋고 고마워.”(T41. 7/40:13-14)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에 따라 성실하게 대처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부부관계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와 부부의 변화에서 집단의 변화까지로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부부가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메시지, 의사소통방식, 관계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부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한국어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내들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남편들, 준비가 부족한 결혼 성사 구조로 인하여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부 대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부부간의 원활한 의미 전달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배우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난, 분노 표출, 욕설

과 같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갈등을 직면하는 부부 대화나 성격검사,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기억해보기, 친밀감 형성 등의 부부소통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성향을 바로 알게 되었고, 상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차츰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친밀감과 신뢰를 쌓으며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갔고, 갈등에 있어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부의 모습으로 변모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사후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대주제에, 프로그램 성과 및 강점, 프로그램 제한점이라는 두 개의 하위 주제로 정리되었다.

1) 프로그램 성과 및 강점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사후면담의 결과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강점에는 실효성 있는 내용구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영, 인정, 공감이라는 표현 기법과 느낌표현을 통해 부부들의 갈등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 신체적 접촉 활동과 배우자에게 합리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활동을 통해 부부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었고, 가족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프로그램 외적으로 부부들에게 개별지원을 하였던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이 가능했고 부부들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었다.

(1) 실효성 있는 내용구성

실효성 있는 내용구성에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긍정적인 느낌표현방법의 습득, 상호이해 증가, 부부대화의 필요성, 부부의 친밀감 증진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아내들은 남편들과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은 표현된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과 다르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어 그때 참석 때부터 처음에는 저는 참석하기 싫었어요. 우리 부부가 자주 소통 안 되고 여기 참석하는 게 저는 싫어하는데 남편이 대화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싸워요. 근데 나중에 좋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T22. 9/3:12-14)

대화 단절상태에 있었던 부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할 수 있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참석 때부터 사실 뭐 그거 없어도 7년 동안 살았지만 ...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좀 마찰이 있었는데...”(T11. 9/2:10)

다문화가정 부부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아왔다. 남편의 경우 아내에게 한국음식과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내와 언어가 다르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포기하였다. 부부 의사소통에 앞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는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부부는 이 부부소통 프로그램에서 배우자의 성향과 자신의 성향을 알기 위해 부모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 부모와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부부 프로그램을 하면서 방법대로 대화로써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많이 알게 되고 또 대화로써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대화 하는데 많이 가까워졌던 거 같아요.”(T11. 9/2:10-12)

남편은 한국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입장인 아내가 자신보다 더 답답했을 것이라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부부소통 프로그램에서 아내의 말을 단순히 통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느낌까지 전해주는 문화적 촉진자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서로를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후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개인 과 부부의 성향 알기’ 요소가 다문화가정의 부부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아내들의 한국어에 대한 미숙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적 촉진자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소통의 통로를 연결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부부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는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생각보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부부대화법을 익히고 반영, 인정, 공감의 부부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평소에 일반인 부부도 생각과 느낌을 구별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강의와 실제 대화를 통해 부부들은 생각과 느낌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생각을 느낌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혼내는 등의 부부갈등이 많았는데 느낌으로 대화를 하니 듣는 남편과 아내도 화가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T5 남편은 배우자의 말에 의해 자신이 비난받고 있거나 평가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 과정은 단순히 부부대화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지적인 모델링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말과 행동을 실제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모델링은 특히 한국어가 미숙한 아내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남편들은 부부대화 및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주었다고 하였다. T5의 남편의 경우 인지적 모델링을 통해 배우자가 말을 하는 동안에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경청)과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반영), 배우자의 입장에서 인정하는 것(인정), 내가 배우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공감)하는 것을 연습하여 부부대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고 T5 남편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배우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의 부부대화를 통해 부부는 한층 친밀해진 부부관계의 변화의 시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끝나고 가면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 같아요. 말하게 될 거 같아요. ... 앞으로는 그 자동이체 빠고 그냥 고지서로 받아갖고 직접 은행 가게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부부교육 받으면서 너무 잘했던 거 같아요.”(T61. 9/1:16-17)

T6 남편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가정 경제권을 공유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은 이제 아내를 믿고 은행 일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한 번도 애들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난 백번 열 일을 제쳐 놓고라도 참석하겠다고..., 근데 이런 기회가 진짜 없어요.”(T51. 9/17:12-14)

특히 남편들은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몇 시간을 달려와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남편들의 변화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아내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었고 아내 역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는 가정과 부부라는 소속감을 느꼈다고 T2 아내는 표현하였다. 이처럼 부부의 변화는 부부대화를 통해 정서

적 거리를 좁히고 부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부부가 동반성장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뭐.. 그냥 큰 건 아니면 혼자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한 거는 자꾸 대화하다 보면 어느 쪽이 진짜 옳은 건지...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서로 얘기해서 그렇게 결정 하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대화해서 한 거니까 설마 조금 잘못 됐다 하더라도 서로 상의를 했던 거니까.”(T11. 9/8:1-12)

그리고 부부들은 연구자가 개인, 부부의 갈등 문제를 알고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를 들어줄 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 배우자의 갈등 상황, 상처에 대해 직면할 수 있었고 치유를 받았으며 부부대화를 통해 부부간의 관계가 한층 나아졌다고 한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내들은 필리핀 출신 여성 5명과 베트남 출신 여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베트남 출신 여성은 자신이 그룹원보다 언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처음에는 이 부부 소통 프로그램에 정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역을 해 주니까 더 부담감이 없어졌고 부부끼리는 서로 더 이해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많이 더 하고 싶은데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T42. 9/5:21-6:2)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엔 뭐 많이 의견 결정을 할 때 의견 교환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엔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엔 좀 답답하다...”(T41. 9/10:12)

이 외에도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는 각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가정해체 위기에 있던 부부는 서류상의 이혼 형식만을 남겨둔 채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우였다. 부부갈등은 이렇듯 개인과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해체라는 상

황까지 이어지며 이는 곧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 처음에는 부부소통 프로그램 할까 말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단 생각이 들고 어.. 위기의 부부에서 탈출한 것 같구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T21. 9/2:24-25)

T2 남편은 이혼위기에서 탈출하였으며,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프로그램 보다는 부부 카운셀링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T3 아내의 경우 역시 자신과 부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부부 개별지원에서 그동안 못했던 문제들을 연구자 앞에서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T5 부부 역시 개별지원에서 자신들이 안고 있는 상처를 드러내 놓고 대화함으로써 부부갈등을 해결해갔다.

“이 부부 소통 프로그램 참석하면서 이제 그.. 남편 상처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마음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소통도 잘 됐고 그리고 스스로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다시 얘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T52. 9/4:13-14)

“지난번에 남편 분이 자기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많이 강해졌어요. ...”(T52. 9/5:9)

“무조건 시키거나 짜증부리면서 해달라고 요구 요구를 하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아들은 그게 확 아빠를 딱 보니까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사소한 일이지만은 지킬 건 지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번 교육 받으면서 많이 느꼈어요.”(T51. 9/18:23-24)

다문화가정 부부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자신들이 겪어온 경험을 드러내고 상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으며 부부대화법을 실행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부관계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나아

질 수 있었다.

(2)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들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에는 문화적 촉진자 활용, 부부를 위한 신체적 접촉 활동,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서지원, 가족으로의 확대, 개별지원 및 라포형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을 위해 같은 문화권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교육학 전공자를 문화적 촉진자로 섭외하여 베트남 출신 여성이 자신의 모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화적 촉진자를 활용하면서 베트남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풀렸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부부대화를 통해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촉진자의 중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 갈등해결을 하는 과정이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가요와 클래식, 팝송, 국악 등의 음악을 틀어주어 부부가 함께 춤을 추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T2, T3, T5 남편들은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로 마주 보고 춤추고, 생각을 하며 명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피드백을 하였다. 처음에 부부들은 친밀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 댄스와 명상 등의 활동이 어색하여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T2 부부의 경우를 살펴봐도 처음에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부부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회기가 거듭될수록 부부들은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부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내에 서로 등대고 있기, 부부 체조하기, 발 씻어주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 포옹하기 등의 신체적 접촉 활동을 포함시켰다. 부부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랜 시간 배우자와 함께 살아왔지만 이런 걸 해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며 배우자의 소중함과 그동안 몰랐던 감정에 대해 느꼈다. 또한,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자신들 부부에서 확대된 사회적 지지가 존재할 때 부

부관계를 더욱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부들은 서로에게 합리적인 변화를 요청하며 부부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부부간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즉시 가능한 것, 어렵지만 가능한 것을 고려하며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청하였다.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배우자에게 요청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지지를 얻고 서로 신뢰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 마사지.”(T12) “한 번 이상 해줄게.”(T11. 8/8:65)

“마사지 적어 마사지. 등 마사지. 응 알았어. 난 즉시 가능해.”(T41) “응 알았어. 난 즉시 가능해.”(T42. 8/8:62)

“아 남편한테 말하던 건요. 어깨를 마사지 해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두 번.”(T21) “저 괜찮아요.”(T22. 8/8:68)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맥주 한 잔 하는 거.”(T31) “예스~!”(T32. 8/8:63)

이 부부들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 이 요청에 배우자들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마사지인 경우는 더 자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어떤 부부의 경우 아내는 마사지를 원했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과일 깎아주기를 원해서 즉시 가능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한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맥주 마시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 또한 흔쾌히 즉시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데이트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16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어디 간 적 없어. 영화도 못 보고.”(T52) “힘들지만 가능해요.”(T51. 8/8:68)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함께 놀러가자는 데요. 바람 쐬러.”(T22)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놀러가는 건 가능해요.”(T21. 8/8:70)

부부는 서로의 친밀감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했다. 한 달에 한 번 데이트를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 가자고 하는 요청에 대해 부부가 각자 어렵지만 가능으로 대답하였다. 이렇게 부부들은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그룹원 앞에서 부부의 약속을 하는 것은 상호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부들은 한층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의 9회기인 브릿지과정은 1박 2일(12시간) 동안 외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과정이다. 이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부부대화의 지속을 위해서 부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 또한 필요하기에 그동안 부부중심이었던 프로그램 과정을 가정의 구성원까지로 확대하였다. 브릿지과정 중에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서 전문가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식들은 그동안 부모의 불화로 자신들의 존재가 두려웠고 불안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많이 달라졌다고 좋아하며 울기도 하였다. 이에 부모는 부부대화를 하며 앞으로 더욱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꺼낼 수 없는 부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 부부 개별지원을 통해 집에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부부들은 그룹원 앞에서 말할 수 없었던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부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두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 이틀 전부터 연구자에게 받았던 연락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프로그램에 더욱 참여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밥을 같이 해먹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2) 프로그램 제한점 및 한계

프로그램은 통역으로 인한 시간 소모와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했고 이에 프로그램 시간이 늘어났으면 하였다. 그러나 회기 당 12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동일한 출신국가로 한정짓지 못하여 두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120분에서 30분 더 시간이 연장되는 날이 많았다.

부부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시간을 연장해서 좀 더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좋아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거나 친구 집에 부탁한 경우의 부부들은 불안함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3.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프로그램 수정 제안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수정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정 제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출신국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신국의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참여자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통역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은 다양

하였지만 대다수 서투른 편에 속하였다. 이는 통역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고, 문화적 촉진자를 활용하더라도 자기표현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동일한 시간에 자녀를 위한 수업,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부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시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 게다가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에 진행되어 아이를 혼자 집에 혼자 두었거나 친구 집에 부탁한 부부들의 경우 프로그램 중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일한 시간에 자녀를 위한 수업으로 언어, 진로탐색 및 여가교실을 운영하거나 자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회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부부 모두 골고루 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지만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발표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거나 오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회기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D.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 개발

중재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여 프로그램이 부부 의사소통, 부부 갈등해결,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하여 전사자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사후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증 받기 위하여 전문가 3인에게 2차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정내용은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전문가 의견에 따른 수정내용

구분	수정내용	고려사항
프로그램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표현카드 단어장’ 활용하여 남편의 이해에 도움주기 - 시간을 한 회기로 하여 기본적인 성교육이 필요 - 자녀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 필요 	동일집단 선정 시 소수의 출신국 여성들의 연구참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고려(예:미얀마, 캄보디아)등
용어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표현’을 ‘감정’ - ‘미래에 대한 기대’ 를 ‘부부의 꿈과 비전’ 	
실행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대화 내용 ‘녹음’을 ‘동영상’ 대체 	프로그램 이후 상호 지지집단의 기능까지 연결

첫째, ‘느낌’이라는 표현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가변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감정’이라는 용어는 보다 포괄적이고 고정되며, 장기적으로 유지된 감정은 장기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느낌’을 ‘감정’으로 수정한다면 참여자들이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감정표, 생각표를 만들 때 두 언어로 표현하여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부부관계에서 정서적인 감정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부 성생활에 대해서는 한 회기 정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양상에 대해 그룹원과 부부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부부들도 유사한 부부문

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집단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기대’에 부부의 꿈과 비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 외의 의견으로 소수집단의 출신국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그룹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다. 전문가들에게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증을 받고, 제안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9회기에서 11회기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주요 내용과 함께 보완된 내용은 다음의 <표 IV-11>과 같다.



<표 IV-11> 9회기에서 11회기 주요 수정내용

회기	기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회기	확대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비고
1	배우자에 대한 소개하기	⇒	1	배우자에 대한 소개하기 가족에 대한 이해 추가^a	
2	문화차이 이해하기	⇒	2	문화차이 이해하기 출신국 문화 영상보기 활동추가	
3	부부대화방법(반영, 인정, 공감)	⇒	3	부부대화방법 부부간 대화 시연 기회 추가	
4	부부대화방법(반영, 인정, 공감)	⇒	4	부부대화방법 부부갈등 직면하기 추가	기존의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기대 회기(7-8)를 갈등 해결 회기(5-6)에 포함하여 부부갈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어보는 기회를 추가함
5 6	건강하게 소통하기	⇒	5 6	건강하게 소통하기	
7 8	부부갈등 다루기 2회기		7 8	부부대화를 중심으로 부부갈등을 다루고 시 연기회 5회기로 확대 추가	
		추가	9	부부 역할분담하기 미래의 예산계획하기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기를 추가함
		추가	10	부부 성생활 이해하기 부부의 꿈과 비전 제시 하기	
9	브릿지과정 부부이해를 가족의 이해로 확대	⇒	11	브릿지과정 부부이해를 가족의 이해로 확대	부부에서 가족의 확대로 전환함

a=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이탤릭체로 표기함

다문화가정을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9회기에서 11회기로 늘렸다. 부부대화방법은 부부에게 좀 더 심도 있는 발표기회를 주기 위해서 2회기에서 3회기로, 부부갈등을 다루고 갈등해결을 위한 회기는 2회기에서 5회기로 3회기를 확장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부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대에 자녀의 언어, 진로탐색(2회기, 6회기), 여가활동(4회기, 8회기)을 격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에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최종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

구 성	회 기	주 제	구성요소	실행전략
상호 이해	1	나와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인가? •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소개 • 배우자를 소개하기 • 가족의 이해 늘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부부소개 및 차이점 발표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지원(문자, 전화) • 라포형성(함께 밥먹기) • 가족 초대하기
	2	나의 모습 찾아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차이 알아보기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울동,댄스) • 심리검사를 통해 부부성향 알기 • 자녀에 대한 불안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촉진자 활용 • 출신국 문화영상 보기 • 한국문화 영상 보기 • 심리검사 • 자녀를 위한 수업(언어, 진로탐색)진행전문가 초대
부부 대화	3	감정과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강의(감정과 생각을 구별하기 형식) • 감정표, 생각표 국가별 단어구성하여 자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 향상을 위한 전략 • 댄스, 명상 음악 준비 • 감정과 생각 구별자료지원 • 남편들도 배울 수 있는 아내의 모국어 단어지원

구 성	회 기	주 제	구성요소	실행전략
부부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과 생각 표현하기(시연) • 부부의 얼굴을 눈감고 만져보기(발표) 	
	4	부부 대화 방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대화 방법: 반영 • (반영)말하는 사람이 표현 한 것을 받는 사람이 되돌려주는 방법 • 부부갈등을 실제로 다루기 • 상대방 말에 집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노트(부부문제내용, 해결방식, 해결내용) 구체적으로 표기한 노트 지원 • 실제부부대화 모습 동영상 보여주기 • 자녀를 위한 수업(여가 교실)운영
	5	부부 대화 방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대화방법: 인정 • 말하는 내용을 인정해요! • 느낌대화 편지쓰기(시연) • 부부갈등을 실제로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대화 사례(영상 보여주기) • 실제적 대화사례 지원
	6	부부 대화 방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 • 발마사지 후 느낌표현 • 부부대화방법: 공감 • 그때 당신의 심정을 알겠어! 나라고 그랬을 거예요! • 서로를 위한 느낌편지쓰기 및 시연 • 부부갈등을 실제로 다루기 •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마사지 자료지원 • 명상 음악 준비지원 • 대화전략에 대한 연습 • 자녀를 위한 수업(언어, 진로탐색)운영
갈등 해결	7	부부 갈등 마주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갈등강의(갈등유형) • 춤동작을 통해 자신의 문제 바라보기 • 부부갈등 직면하기 • 부부갈등을 실제로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동작 치료 전문가 초대지원 • 부부갈등 사례(영상 보여주기) • 개별지원
	8	갈등 풀어 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갈등대처(대처방법) • 부부 갈등해결하기(시연) • 갈등대처하기(시연) • 형클어진 실타래 함께 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음악지원 • 형클어진 실타래 지원 • 자녀교실 운영

구 성	회 기	주 제	구성요소	실행전략
미래 에 대한 기대	9	건강 하게 소통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게 싸우기 • 부부 회복탄력성 강화 • 부부변화 탐색 • 칭찬해주기 • 역할분담 하기 • 미래에 대한 계획세우기 •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하기 • 협력적인 부부대화 시연 • 부부 성생활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게 싸우는 사례 영상지원 • 칭찬 스티커 지원 • 가계부 지원 • 성교육자료 영상 지원
	10	친밀한 부부로 나아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예산 계획 세우기 • 부부의 꿈과 비전 • 협력적 부부대화 경험 • (부부 갈등해결 부분 경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액자지원 • 대화노트(부부문제내용, 해결방식 및 내용) 최종 확인
가족 으로 확대	11	부부 에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으로 확대 및 가족과의 연결 • 가족대화(자녀 언어, 진로 탐색 후 부모와 함께 대화하기) • 수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함께 준비한 수료식(부모에게 편지쓰기)편지지 지원 • 언어, 진로탐색, 여가교실 전문가 초대지원

최종 11회기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각 회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2회기는 부부간 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나와 우리, 나의 모습 찾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해, 자신과 배우자 소개, 가족에 대한 소개, 문화차이 이해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배우자의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녀교실 운영의 실행전략이 있다. 3-6회기는 부부대화를 주제로 하여 실제 부부들의 갈등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부대화방법을 익히는데 이때 인지적 모델링의 강의방식을 통해 부부들이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실제 부부들이 자신들의 갈등을 매회기마다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편들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언어에 대해 간단한 단어라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부부간 언어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도록 구성하였다. 7-8회기는 갈등해결을 주제로 부부들이 갈등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제 부부갈등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 회기를 건강하게 소통하기에 포함하여 부부의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로 건강한 대화를 통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회기(7-8회기)이며 부부 갈등해결 및 대처전략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의 9-10회기는 부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장, 단기적으로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11회기는 가족으로 확대라는 연결성을 가지고 부부와 가족과의 대화 및 가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기술을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부부가 협력적인 갈등조정 및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검토를 통하여 예비 11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1차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내용의 적합성을 검증 받은 결과 1차 9회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5가지로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자기인지 및 성찰, 긍정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별상담 및 지원, 심리검사를 통한 올바른 자기이해, 인지적 모델링, 학습의 전이 증진, 집단 내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의 5가지 실행전략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말투와 같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부부들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면담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실효성 있는 내용 구성,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의 프로그램 성과 및 강점과 통역으로 인한 시간 소모, 자녀 돌봄 문제에 대한 제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 실행효과 검증 및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사후면담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수정·보완하고 전문가들로부터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을 받아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더 요구되는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중심으로 11 회기로 이루어진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A. 논의

1.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부부들 스스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갈등을 조정, 관리해갈 수 있도록 하고자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부상담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다문화가정 부부뿐만 아니라 일반 부부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수선, 2013; 원복연 외, 2013; 이선희 외, 2013; 전영주 외, 2010; 최윤희 2000). 이는 최미나 외(2014)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부부들이 상호교류를 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던 맥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정임 외(2015)의 연구 결과에서 부부간 정서적 교류의 정도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 프로그램에서 부부간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부간 이해하는 과정을 토대로 부부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연수, 2010; 김희진, 2005; 방현주 외, 2002; 최진아 외, 2012). 이와 관련하여 광정임 외(2015)의 연구에서 부부들의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경우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부부들의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영란 외, 2012; 최미나 외, 2014; 최진아 외, 2012). 이처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상호이해, 긍정적인 의사소통, 부부간 갈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내용 등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부간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 부부대화법을 바탕으로 한 부부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가정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행전략과 관련하여, 광정임 외(2015)의 연구에서 부부들의 상호이해를 돕고 부부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는 점과 부부들이 부부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시도하는 방법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부들이 실제 갈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한 내용과 기술을 적

용하며 부부들 스스로가 학습 능력이 길러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최윤희, 2000). 또한 부부대화법을 익혀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부부들에게 먼저 절차를 보여주고 강의 식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을 통해 실제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공성숙, 2004; 김정옥, 2013; 방현주 외, 2002).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부부들에게 실제 실행을 관찰하고 차근차근 모방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홍숙(2006)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남편들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를 쑥스러워한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인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개별상담 및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제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으로의 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지원과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가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상담 및 지원, 심리검사를 통한 올바른 자기이해, 인지적 모델링, 학습의 전이증진, 집단 내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의 5가지 실행전략을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김홍숙(2006)의 연구에서 집단상담이 부부의 지지, 그룹원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적 촉진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는 언어 및 문화적 지원은 통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참여자들과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촉진자가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연구 참여를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정 부부가 참여하는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져야할 주제라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에 대한 논의

1차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된 후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점수 차이가 통제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와 관련한 Gottman의 이론을 적용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최미나 외, 2014), 통합적 치료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김정옥, 2013),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연영란 외, 2012),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최미나 외, 2012)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부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요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검사지를 활용하여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고, 집단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부부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부부대화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부대화 중에 이루어지는 주된 교육 내용은 부부대화법의 요소인 반영, 인정, 공감이며

이는 이마고 부부대화법과 메리지 엔카운터의 핵심요소들로 부부대화 내에서 부부의 상호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오제은, 2005; Calvo, 1975). 이러한 내용은 부부대화 시 방해가 되는 요인인 평가와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일부로 적용한 것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이론도 포함하지만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은 상담자의 인지적인 모델링 강의와 함께 부부가 직접 대화를 실행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기존의 프로그램 형식에 없었던 부부대화기법과 부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부부대화 실행과 활동이 포함되었다. 공성숙(2004)의 연구에서 부드럽게 대화하기, 타협하기 등을 다루었고,곽정임 외(2015), 원복연 외(2013), 최진아 외(2012)의 기존 연구들도 부부관계를 위해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 또는 결혼만족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동안 부부관계를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송미경 외, 2008; 연영란 외, 2012; 최미나 외, 2014).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부부대화법을 제시하여 부부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변미희, 강기정, 2010; 이은주, 2010; 임인숙, 강충구, 전병희, 2010).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다문화가정 부부를 중심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부부들이 그룹원 앞에서 학습했던 의사소통기술을 직접 실행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부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구성요소와 실행전략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부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연구 설계를 충실히 따르며 진행되어 실험집단에게 언어적·문화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 부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중재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연수, 2010; 연영란 외, 2012; 최미나, 2011; 최진아 외, 2012; 한주리 외, 2012)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언어적, 문화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어로 설명하는 단편적인 언어 지원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촉진자라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실험집단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중재의 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부부갈등에 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점수 차이가 통제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관계에 있는 부부를 위한 정서중심 상담 프로그램(곽정임 외, 2015),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연영란 외, 2012)의 연구결과의 맥락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심리검사를 통해 부부가 자신과 배우자의 성향을 알고, 이를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부부들은 심리검사를 토대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정폭력 부부상담 연구에서 활용한 것이 부부들이 서로 이해하고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류도희, 2013; 윤호균, 이선희, 2000). 이는

부부간의 성격을 파악하여 자기이해와 자기성찰을 하면서 부부간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장지영, 황순택(2012)은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과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NEO-FFI 인성검사로 성격적 부적응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인지행동치료 접근, 미술치료 등을 활용하였다(강말숙, 전영주, 2003; 김재정, 2015; 장혜경, 이정미, 2012).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부부들에게 심리검사를 제공한 것은 부부들 상호간 이해를 도와 부부들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둘째,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 같은 주변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양육 문제와 원가족 문제를 포함한 부부문제를 다룬 연영란 외(2012), 이화자 외(2010) 등의 연구, 원가족과의 문제가 부부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선희(2011)의 연구 등이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부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시부모를 대하는 태도문제,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부부가 부부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직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부부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부부갈등이 가족갈등으로 확대되거나 가족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부갈등, 가족갈등 상황을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부부갈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부 개별지원을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부부 갈등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전문적인 부부상담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개별지원에서는 각 회기에서 실습했던 개별 부부의 상황을 바탕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다루고, 이를 또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들 스스로 부부갈등이 극단적인 경험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부들은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개별지원은 부부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부부들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 부부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감정(느낌)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막연히 회피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3)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점수 차이가 통제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부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소병숙 외(2009)에서 부부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부적응과 결혼만족도 향상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김정옥, 2013; 연영란 외, 2012; 원서진 외, 2011; 장운정, 박정윤, 2009; 최미나 외, 2014; 최진아 외, 2012). 본 연구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부부적응 및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본 프로그램에서 부부간의 물리적 및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친밀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부부활동을 했던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는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송지현, 이태영(2010), 지은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부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

신체적인 접촉과 부부간 대화 증가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자 부부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매 회기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율동과 명상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 활동의 경우 15초 동안 안아주기, 손잡고 바라보기, 서로 등 대기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부간 대화의 빈도가 높아지고 부부 의사소통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부부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결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박영화 외, 2005; 윤명숙 외, 2014; 장운정,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부부의 메시지가 부정적이더라도 대화의 빈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부대화법을 실습하고 연구자의 촉진과 함께 부부대화를 하면서 결국 부부의 긍정적인 부부 의사소통을 이끌어내었다.

셋째,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상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부부적응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부부적응은 배우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여부와 차이의 수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최미나 외, 2014). 본 프로그램에서는 상호의 문화에 대한 교육과 이를 활용한 부부대화를 통하여 배우자가 상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차이를 수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부부적응은 부부가 갈등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부정적인 표현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연구인 장진경 외(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가 배우자와의 문화차이를 수용함으로써 부부적응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의

양적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현장관찰일지와 개별지원 및 프로그램 실행과정 전사자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참여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실행과정 전사자료와 현장관찰일지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을 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초기에는 언어차이로 인한 의미전달의 어려움을 겪고, 문화차이로 인해 오해와 무시를 하며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드러내면서 비난, 분노 표출, 욕설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는 문헌검토를 했던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연영란 외, 2012; 최진아 외, 2012).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부부들은 점차 감정을 표현하며 갈등조정을 위한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배우자에게 동의하고,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배려하고 친밀한 지지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문헌검토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부부가 부부대화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시연과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학습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방현주 외(2002)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적극적인 듣기와 표현하기 등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순화시킨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나-전달법(I-Message)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적 경청을 경험한 것이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권수정 외, 2007). 또한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부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공성숙, 2004; 권수정 외, 2007).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사후면담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부부는 긍정적인 느낌표현의 방법을 터득하고 상호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정희(2012)의 연구에서 감정표현을 통해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부부들이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맥락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고, 김정미(2008)의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에서 행동적 모델, 연습, 피드백 등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부부들이 부부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후 학습한 부부대화법을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지적 모델링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부부들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상호이해를 증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문화적 축진자를 활용하여 부부들은 서로 의사전달뿐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고, 아내가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는 점을 해결해주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부부의 언어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언어적, 비언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 등의 친밀감을 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오금숙 외, 2013; 이해경 외 2013). 실제로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 활동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부부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김정옥, 2013; 운영숙, 2002; 이현주 외, 2014). 또한 진영록(2013)은 부부의 성적 친밀감이 부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신체적 접촉 활동, 관계증진에 도움이 되는 문서 지원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부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려고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들의 협력적인 대화와 더불어 배려, 성적 친밀감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부간 더 깊은 상호이해를 가져온

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부부 개별지원, 가족으로의 확대, 라포형성 등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할 수 있었다. 다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 동일하지 않아 두 언어를 통역해야 한다는 부분에서의 시간 소모와 부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 중에 자녀의 돌봄 문제가 걱정된다는 점에서 제한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중재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경우, 문화와 언어차이뿐만 아니라 부부간 큰 연령차로 인한 세대차이의 문제, 국가 간 국력차이로 인한 경제력 격차 등 다양한 갈등 발생 요소를 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중매를 통해 결혼이 성사되어 결혼 전 교제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부부간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 효과 검증과 더불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보다 검증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다문화

가정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의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대다수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거나(김연수, 2010; 남인숙 외, 2011; 설동훈, 이계승, 2011; 원서진 외, 2011) 한국인 남성을 대상(임성옥, 강성률, 2011)으로 하는 등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참여만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거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채옥희 외, 2008). 그래서 남편들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임을 드러내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요구를 반영하여 부부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전 회기에 걸쳐 부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대화 및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모래치료, 신체활동 등 단편적인 구성을 통해 부부간 의사소통과 친밀한 부부적응을 위해 모색하였다(김정옥, 2013). 하지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부부 의사소통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부부의 의사소통기술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부소통이란 부부일치감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문헌검토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여 부부간 상호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부상담, 실생활의 경험을 반영한 에피소드를 통한 의사소통 교육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상의 특수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다중 요소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향후 다문화가정을 위한 개별지원과 관계중심 부부소통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가정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가진 문화적 촉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적용함으

로써 다문화가정 부부를 지원하는 새로운 예시를 만들어냈다는 의의를 지닌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 촉진자는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재자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연영란 외, 2012; 최미나 외, 2014; 최진아 외, 2012)를 살펴보면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미흡을 꼽았다. 또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도 차이가 있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인 여성 결혼이민자와 같은 문화권의 여성을 문화적 촉진자로 섭외하여 프로그램에 합류시켰다. 연구 참여자는 촉진자의 합류로 모국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남편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아내에게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문화에 대한 무형식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중재연구로서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는 참여의사를 밝힌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부 12쌍(실험집단 6쌍, 통제집단 6쌍)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용된 중재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부상담 및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에게 현장 적합성을 검토 받고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정·보완을 거쳐 개발되었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의 요구와 필요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검증된 이론과 10년 이상 부부상담 전문가로서 본 연구자의 경험이 결합되어 이론적, 실증적 측면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 시에도 그 효과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추후 다문화가정 부부소통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 12쌍(실험집단 6쌍, 통제집단 6쌍)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용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자 차원에서 가능하면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배치하였지만,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집단 내의 다문화가정 부부들 역시 개별적인 요구와 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재 프로그램의 수혜 정도와 영향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별 부부지원’이라는 동일한 중재의 요소가 개별 부부가 가지는 갈등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다른 활동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회기의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집단 간의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회기의 프로그램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이는 각 부부의 경험과 부부갈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성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상황에 대한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상의 제한점이 있었다.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문화가정 부부들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재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사용 언어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해 수준을 갖춘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하였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갈등 상황에서의 전략의 사용 등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한 한국어의 구사 능력에 있어서 제한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들의 경우 일부 활동에서의 참여에 제한을 가지는 경우가 나타났다. 한국어에 기반을 두어 제공되는 중재의 특성 상, 부부가 특정한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부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 역시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이처럼 한국어에 있어서 사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수준, 배우자와의 소통의 정도, 그룹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성 정도 등은 연구 설계 시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참여자의 특성이었지만, 연구 결과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소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 내에서 소수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 내에서 소수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실험집단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부이다. 참여한 국가도 다양하지 않았고, 국내 다문화가정 부부의 출신 국가별의 비율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다문화가정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부의 개별적 상황이나 생활 터전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넷째, 한 회기에 주어진 시간이 120분이라는 시간적인 공간의 제한점이 있었다.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1회기 당 120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으로는 적당할 수 있으나, 언어적 소통이 완벽히 자유롭지 않은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대화라는 충분한 연습과 적용이 필요한 활동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더 많은 회기의 확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D. 제언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등을 토대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한 후속연구 및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이에 따른 이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정 부부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반적인 현황이나 실태, 요구에 대한 탐색 등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응용단계의 연구를 위해서, 이러한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반연구를 토대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적합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모델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적·비언어적 대화 모두를 의사소통의 매개로 하는 연구인만큼, 참여자의 문화적 또는 언어적 배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참여자의 국가별 특성과 그에 따른 참여 경향이나 요구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구성 시 민감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견고화된 중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지만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실행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수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보다 일반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처럼 프로그램 실행 효과의 일반화를 보기 위해 더 많은 대상에게 적용한 연구들은 개발 단계부터 적용 효과까지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질적, 양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후속연구나 실제 현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부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적인 자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특수성 및 다문화교육전공자, 부부상담 전문가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자 및 촉진자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부부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자질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 이는 상담자로서의 촉진적인 태도와 전문기술을 요하며(곽정임 외, 2015), 부부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존중과 수용적 태도(Kim, 2013)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다양성의 범위가 큰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램 참여자의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적절한 촉진자를 활용하는 능력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언어적·문화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한을 가지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 연구의 경우에는, 부부간 또는 참여 부부와 프로그램 운영자 간에 문화를 전달하고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촉진자의 참여가 제안될 수 있다. 문화적 촉진자란 다문화가정 부부 중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 결혼이민자와 출신국가 및 사용 언어가 동일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여자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언어에 대한 통역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언어에 중점을 둔 통역만으로는 충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제한이 따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참여자 중심의 지원으로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문화적 촉진자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

그램 중재를 제공하여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몇 가지 제한 기준을 두었으나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 나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동일한 출신국가별 집단구성 및 참여자의 인원 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 회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의 상호 원활한 언어구사가 가능한 중재가 개발되어야 하고 다문화가정 부부의 연령차이, 세대차이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연구의 의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의 관계중심 부부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적극적인 참여의 전제와 함께 지역의 연계성 및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상담이나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부나 가족의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은 부부상담 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도 이를 꺼리게 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상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된 제안으로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이나 이들이 가지는 특별한 요구에 따른 어려움을 가진 개별 부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기반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식의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http://www.korean.go.kr>

<http://www.moel.go.kr>

<http://kostat.go.kr>

<http://www.moi.go.kr>

- 강말숙, 전영주(2003). 인지-행동적 성 상담 프로그램이 신혼기 여성의 성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39.
- 강유미, 신혜중(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4), 1393-1410.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강혜숙, 김영희(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35-156.
- 고정애, 박경(2003).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3(2), 75-91.
- 공성숙(2004).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141-171.
- 곽정임, 서미아(2015).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서 중심상담 적용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8, 157-223.
- 구혜경, 유영달(2006).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정도 및 이혼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문화**, 20(4), 1-34.
- 권수정, 전영주(2007). ENRICH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247-275.
- 권윤아, 김득성(2013). 결혼생활의 표면적 문제와 핵심 문제가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14.

- 권윤아, 김득성(2014). 부부간 핵심문제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5(2), 847-863.
- 권정혜, 이종선(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2), 313-330.
- 김경미(2008).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이 한국계-미국인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복지상담학연구**, 3(1), 73-87.
- 김경신, 조유리(2000). 부부의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김계하, 선정주, 오숙희(2013).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29-39.
- 김광률(2009). 기독교인 부부 관계요인과 증진 프로그램 개관. **기독교교육논총**, 20, 155-182.
- 김금희, 김영순, 전예은(2013).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부부간 협력적 의사소통에 나타난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 **언어와문화**, 9(2), 73-100.
- 김금희, 전예은(2013). 상호작용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245-246.
- 김금희, 민기연, 이영선(2015).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02-214.
- 김덕수(2011). 부부치료에서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의 탁월성에 관한 문헌적 연구. **가족과상담**, 1(2), 1-22.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세련, 이인수(2010). 사티어 성장모델의 일치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87-107.
-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연수(2010). 가족 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 결혼이민자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9-90.
- 김영희, 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영기, 한성열, 한민(2011).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도의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199-218.

- 김오남(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연구. **가족과문화**, 18(3), 63-106.
- 김정옥(2013).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치료적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32-152.
- 김재정(2015). **다문화가정 부부의 관계증진을 위한 부부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 김경신(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6(1), 63-76.
- 김희진(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김홍숙(2006). **갈등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산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인숙, 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류도희(2013). 가정 폭력 부부의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부부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4), 67-87.
- 모의회(2002). 자기 존중감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부적응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45-73.
- 모의회, 김재환(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 박경순(1998). **결혼갈등과 우울감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남숙(2001).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남숙, 연문희(2002).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상담학연구**, 3(2), 337-366.
- 박민자(2010). **결혼위기 부부를 위한 해결중심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과 효과검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선(2013). 신혼기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85-98.
-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진옥, 이광동(2014). 다문화가족 부부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가정내 역할유형 및 젠더의식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문화**, 26(1), 205-236.
- 박진옥(2011). **결혼이주여성가족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현주, 이기숙(2002).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 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증진에 관한 연구: 유아기 가족의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39-54.
- 변미희, 강기정(2010). 다문화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1.
- 서미아(2014). 중년기 부부갈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 감정과 성 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4(2), 343-354.
- 설동훈, 이계승(2011).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성태제, 시기자(2011).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성현란(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 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219-239.
- 소병숙, 정혜정(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 해결중심단기 가족치료이론을 기초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31-151.
- 손희란, 송선희(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 만족도,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10), 57-69.
- 송미경, 신호정, 이은경(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267.
- 송지현, 이태영(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保健社會研究**, 164-192.
- 신희천, 최진아, 김혜숙, 이주연(2011). 도시지역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고찰을 위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3(2), 299-322.

- 심혜선, 이정우(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29-145.
- 안현숙, 변상해(2012). 배우자 직업유무가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의사소통기술,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7(2), 215-225.
- 양명숙, 이혜선(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족 탄력성과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대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2), 431-445.
-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영숙(2008).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점도, 김춘택(2006).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福祉行政論叢**, 16(1), 1-20.
-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57-80.
- 연영란, 양수(2012). 부부관계 증진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1(3), 250-261.
- 연우석, 채규만(2014). 성 의사소통 훈련을 혼합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결혼 및 성 만족에 미치는 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1-19.
- 오금숙, 김윤정(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3(1), 15-25.
- 오미영, 정인숙(2005). **알기 쉬운 커뮤니케이션 길라잡이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오제은(2005). 커플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상처' 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와 내면아이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55-1070.
- 오제은(2009). 상담일반: 내면아이 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실존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 원복연, 박태수, 허철수, 김성봉(2013). 현실치료를 적용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6), 3283-3305.
- 원서진, 송인옥(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95-113.
- 윤동화(2014). **다문화 가정해체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명숙, 한지은, 김남희(2014).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에 미치는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한국알코올과학학회**, 15(1), 1-16.
- 윤애란, 이인수(2013). 부부갈등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지혜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3), 1739-1754.
- 윤희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 문화**, 8(2), 299-339.
- 윤호균, 이선희(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 7, 1-21.
- 윤창섭(2012).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부제로 인한 위기 극복과 교화 활성화**. 장로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육혜련(2015).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 의사소통의 일치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12(1), 1-23.
- 이다미(2013). 불안정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경험한 어머니-자녀에 관한 사례 연구: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중심으로. **복음과상담**, 21, 222-254.
- 이동숙(2008). 부부성장 집단프로그램이 개인 및 관계 성장에 미치는 효과: 중년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81-111.
- 이선희, 임성문(2013). 통합적 행동치료에 기초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49-476.
- 이영선, 김금희, 민기연, 박미숙, 박순덕, 방현희, 선곡유화, 이석란, 전경미, 판티훤짱, 이설희(2015). 이중적 어려움: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 **특수교육**, 14(1), 227-253.
- 이운수(1998). 한국여성의 성의식 및 성 실태. **한국성의학연구소**.

- 이은주(2010).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 민감성, 부부의사소통,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편대상 프로그램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45-71.
- 이지현, 진수진, 주현정, 조연실(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 이현우(2011).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 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손승남(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 이민자의 삶과 자녀교육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 **교육종합연구**, 12(4), 209-236.
- 이혜경, 전해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이화자, 김순옥(2010). 가족상담: 경험적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상담학연구**, 11(2), 831-854.
- 임승주, 박은영(2013).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변화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1), 151-162.
- 임성옥, 강성률(2011). 다문화가족 한국인남편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251-272.
- 임인숙, 강충구, 전병희(2010). 국제결혼 경로별 부부권력과 부부관계 만족도-경기도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2(1), 35-63.
- 위인백(2011). 인권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317-327.
- 장운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지영, 황순택(2012).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33-148.
- 장진경, 신유경(2013).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09-126.
- 장혜경, 이정미(2012). 집단 미술치료가 다문화가족 부부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5), 1217-1239.

- 전영주, 원성희, 김수연(2010). 임상문제를 가진 부부를 위한 부부집단상담의 효과성 연구-이해와 소통 증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109-136.
- 전혜성(2007).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부신념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은정, 박정윤(2009). 가정 폭력피해결혼이민자 여성의 경험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221-234.
- 정현숙(1997). 논문편: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제석봉(1996). **가족 및 부부의 심리와 성장**. 대구효성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 조명희(2014). **결혼이민여성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경(1994). 父母-靑少年 子女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論文集**, 15, 303-338.
- 조성현(2008). **집단상담을 통한 성인초기부부의 문화성향 변화가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2011). 한국판 부부적응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 조혜정(2012). 기독교 중년 여성의 신앙성숙이 삶의 질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교육정보**, 32, 97-122.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
- 지아가, 권혁철, 이영순(2014). Gottman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이 부모기 전이 부부의 친밀감,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21(3), 413-432.
- 지은진, 최지명, 김교현, 권선중, 박은진, 이민규(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7(1), 243-252.
- 진명자(2005). **부부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영록(2013). **부부간의 상호작용 변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옥희, 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 남편의 갈등. **한국 생활과학지**, 17(5), 891-902.
- 최미나, 유평수(2014). Gottman의 이론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79-102.
- 최미나(2011).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성일(2004).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高鳳論集**, 35, 97-114.
- 최연자, 이경완, 정춘화, 이해란(2009). 자기노출과 합리적 정서훈련이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2), 186-196.
- 최윤화(2000).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9(2), 13-25.
- 최진아, 신희천, 김혜숙, 이현서(2012). 도시지역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505-531.
-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 한건수, 설동훈(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청년여성문화원, 서울: 보건복지부.
- 한재희(2011). **한국적 다문화 상담**. 학지사.
- 한정희(2012). **가트맨 부부치료 프로그램의 한국부부 집단상담 적용 및 효과 검증**. 복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주리, 김인영(2012). 다문화가정의 부부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갈등형성과 대처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9, 159-196.
- 한주리, 장해순, 이인희(2007). 출판사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커뮤니케이션 불안감이 갈등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출판학연구**, 53, 399-431.
- 한주리, 허경호(2004).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능력, 논쟁성향 및 성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18(4), 148-190.

-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인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Ed.),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pp. 33-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eck, A. T. (1988). *Love is Never Enough: How Couples Can Overcome Misunderstandings, Resolve Conflicts, and Solve Relationship Problems Through Cognitive Therapy*. Harper. 제석봉 역(2005).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서울: 학지사.
- Bienvenu.M.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n*, 19(1), 26-31.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usby, D. M., Christensen, C., Crane, D. R.,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 289-308.
- Burr, W. R., Atern, L., & Knowles, E. M.(1977). An empirical test of Rodman's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30.
- Calvo, G. (1975). *Marriage encounter: Official national manual*. St. Paul. MN: Marriage Encounter, Inc.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m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 Christensen, A., Jacobson, N. S., and Babcock, J. C..(1995). Integrative behavioral therapy. In N. S. Jacobson and A.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Y.: Guilford.

- Coleman, P. K.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New York: The Bobbs-Merrill.
-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A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Y: Academic Press.
- Cooley, C. H.(1909).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Scribner.
- E. Graber, C. Laurenceau, J. Miga, E. Chango, and J. Coan(2011). "Conflict and Love: Predicting Newlywed Marital Outcomes from Two Interaction Contexts," *J. of Family Psychology*, Vol.25, No.4, pp.541-550.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Scott: Foresmanand Company.
- Gottman, J. M. (1983). *Hidden Agenda Checklis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Gottman, J. M. (1994).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Y: Simon & Schuster.
- Griffin, E. (2012).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8th ed.). New York: McGraw-Hill.
- Gross, H. E. (1980). Dual-carrer couples who live apart: Two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0, 567-576.
- Hawkins, J. L. & Johnson, D. (1969). Perception of Behavioral Conformity, Imputations of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507-511.
- Hendrix, Harville(1999). *Imago Relationship Therapy*. John Wiley & Sons Inc.
- I John W. Creswell 저. 질적연구방법론-다섯가지접근.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0). 학지사.
- Jehn, K. A. (1997). A qualitative analysis of conflict types and dimensions in organizational grou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3), 530-557.
- Jones, T. S. & Brinkert, R. (2008). *Conflict coaching: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nd skills for the individual*. Sage Publication.

- Johnson, S.M., and Greenberg, L. S.(1995). The emotionally focused approach to problems in adult attachment. In N.S. Jacobson and A.S. Gurman(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Y.: Guilford.
- Kang, L. L. (2010). Effects of ENRICH program on self-esteem, depression, marital communication, conflict solution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in low-income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elly, A. B., Fincham, F. D. & Beach, S. R. H.(2003). Communication skills in couples: A review and discussion of emerging perspectives. Greene, J. O. & Burlison, B. R. (Ed). (2003).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032, 723-751.
- Kim, Y. K.(2013). The dimensionality of clients' perceptions of counselor's factors as theraprutic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2), 203-226.
- Krokoff, L. J. (1990). Hidden agendas in marriage:Affective and longitudinal dimensions. *Communication Research*, 17, 483-499.
- Kurdek, L. A. (2005).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early in marriage: A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68 - 84.
- Lasswell, Harold D.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Bryson, L.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New York: Harper, 37-51.
- Lazarus, R. S. & S. Folkman.(1984). Stress, coping, adjustment in female adolescent incest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15, 293-305.
- Navran, L. (1967). Communication skills Inventory. *Journal of family process*, 6, 173 - 184.
- Neff, L. A. & Karney, B. R. (2007). Stress crossover in newlywed marriage: A longitudinal and dyadic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594 - 607.

- March, J. G., & Simon, H. A. (1993). *Organizations Revisited.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 299-316.
- Olson, D. H., Fourier, D. G., & Druckman, J. M. (1982). *PREPARE-ENRICH counselors manual*. MN: Prepare-Enrich.
- Pruitt, D. G., & Carnevale, P. J. (1993).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Buckingham,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aush, H. L., Barry, W. A., Hertel, R. K., & Swain, M. A. (1974). *Communication, conflict and marriage*. San Francisco: Jossey-Bass.
- Rice, F. P.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 Bacon.
- Rick Brown (2013).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은 역 (2013).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 Roach, A. J., Frazier, L. O., & Bowden, S. T.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537-546.
- Robbins, S. P. & Judge, T. A. (2009). *Organizational Behavior*. Pearson Learning Solution.
-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 (1991).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CA: Science & Behavior Books. 한국 버지니아사티어 연구회 역 (2000). *사티어 모델*.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Satir, V. (1972). *Peoplemaking*. Science and Behavior Books. 배영자 역 (1979). *피플 메이킹*, 서울: 보이즈사, 1979.
- Sander Hydels & Richard L. Weaver II (2004). *Communicating Effectively 7th ed.* McGraw-Hill Companies, Inc. New York, NY. 2-32.
- Scanzoni, J. & Szinovacz, M. (1980). Family decision-making: a developmental sex role model.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111*, 309.

- Schramm, W. (1954). How Communication Works. *The Process and Effects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3-26.
- Schumm, W. R., Scanlon, E. D., Crow, C. L., Green, D. N., & Buckler, D. L. (1983).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in a sample of 79 marr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53, 583-588.
- Shannon, C. E & W. weaver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65
- Snyder, D. 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ong, S. H. & An, H. J. (2011).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167-179.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Sage Publication, California.
- Walsh, F,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공역(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나남출판.
- Wood, J. T. (2009). *Communication in our lives* (4th ed.). Belmont, CA: Thomson-Wadsworth.

부 록

- <부록 1> 예비 프로그램
- <부록 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설문지
- <부록 3> 부부 의사소통
- <부록 4> 부부갈등
- <부록 5> 부부적응
- <부록 6> 중재 충실도
- <부록 7> 사회적 타당도
- <부록 8> 프로그램 2회기
- <부록 9> 프로그램 4회기
- <부록 10> 프로그램 6회기
- <부록 11> 프로그램 8회기

최종본 회기별

- <부록 12> 1회기: 상호이해
- <부록 13> 2회기: 나의 모습 찾아가기
- <부록 14> 3회기: 감정과 생각
- <부록 15> 4회기: 부부대화방법 1
- <부록 16> 5회기: 부부대화방법 2
- <부록 17> 6회기: 부부대화방법 3
- <부록 18> 7회기: 갈등해결
- <부록 19> 8회기: 갈등해결
- <부록 20> 9회기: 미래에 대한 기대
- <부록 21> 10회기: 미래에 대한 기대
- <부록 22> 11회기: 가족으로의 확대

<부록 1>

예비 프로그램

회기	주제	목표	내용 및 활동	형식	시간 (분)
1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해	사전 검사, 프로그램 소개	남편	120
2	• 자기이해	내가 생각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회상하기)	아내	120
3	• 배우자 이해	알아가기	배우자 알아가기	부부	120
4	• 성향알기	부부매치도	실행:심리검사(TA이코그램 검사)	남편	120
5	• 느낌 전달하기	부부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교육: 부부 소통1 실행: 반영(거울비추기)	아내	120
6	• 부부 대화	부부소통을 위한 대화하기	교육: 부부 소통2 실행: 편지쓰기 방법	부부	120
7	• 부부갈등직면하기	부부갈등 이해	교육: 부부 소통2 부부갈등 유형, 부부갈등	부부	120
8	• 건강한 부부싸움	대화를 통한 갈등이겨 나가기	부부 소통3 (인정) 협력적인 소통	부부	120
9	• 경험나누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부부 소통5 (공감) 우리는 동반자	부부	120
10	• 부부의참 만남	부부 당 3회 상담	변화 그리고 희망	부부	120
11	• 친밀한 부부	브릿지과정 탐색	촛불의식, 포옹하기	부부	120

<부록 2>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설문지

설문지 ID :

				-				
--	--	--	--	---	--	--	--	--

※ 설문지 ID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는 관계중심 부부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응답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구책임자: 김금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

전화번호:

이메일: kgkdl@hanmail.net

지도교수: 이영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대학원 다문화학과)

전화번호:

이메일: ylee@inha.ac.kr

인하대학교 기관위원회

전화번호: 032) 860-7154

<부록 3>

I. 부부의사소통척도(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MCI)

다음 문항을 읽고 당신의 경우에 가장 해당 하는 곳에 ✓표 하세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답하세요.

번호	문항	거의 항상 그렇 다 ①	자주 그렇 다 ②	때때 로 그렇 다 ③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④	전혀 그렇 지 않다 ⑤
1	당신은 배우자가 말을 안했으면 좋았을 사항들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2	당신의 배우자의 목소리 톤이 짜증나게 들리십니까?					
3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까?					
4	당신의 배우자는 화가 나면 당신에게 모욕을 줍니까?					
5	당신은 배우자가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 배우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지 못합니까?					
6	배우자가 당신에게 화를 내면 당신은 분노를 느끼십니까?					
7	배우자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배우자와 의논하기를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8	당신의 진심을 배우자에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까?					
9	당신은 배우자보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더 편합니까?					
10	배우자가 당신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11	당신의 생각, 기분, 믿음을 배우자에게 얘기해서 배우자가 당신을 이해하도록 합니까?					
12	배우자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13	배우자가 말을 할 때 때때로 진실과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번호	문항	거의 항상 그렇 다 ①	자주 그렇 다 ②	때때 로 그렇 다 ③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④	전혀 그렇 지 않다 ⑤
14	배우자가 말을 할 때 사실은 듣고 있지 않으면서 듣는 척 합니까?					
15	당신이 우울해 하거나 낙담했을 때 배우자가 당신의 기분을 띄워 주려고 노력 합니까?					
16	당신의 배우자는 자신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비난합니까?					
17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외부 관심사 및 활동을 함께 합니까?					
18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19	당신과 배우자는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눕니까?					



<부록 4>

II. 부부 갈등척도(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

다음 문항을 읽고 당신의 경우에 가장 해당 하는 곳에 ✓표 하세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답하세요.

A.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자주 아래와 같이 느끼니까?

번호	문항	거의 상 그 렇 다 ①	자 주 그 렇 다 ②	때 때 로 그 렇 다 ③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④	전 혀 그 렇 지 않 다 ⑤
1	두 분은 서로의 다른 감정을 빠르게 이해합니까?					
2	많은 고통 없이 서로를 이해합니까?					
3	문제에 대한 서로의 다른 관점을 바르게 헤아립니까?					
4	당신의 배우자는 배우자와 다른 당신의 의견에 대해 당신의 감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5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까?					
6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대화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려 합니까?					
7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문제에 관한 당신의 많은 생각에 반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8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관점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까?					
9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관점의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10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당황하게 하거나 화가나게 합니까?					
11	당신의 배우자는 자신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마치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된 것처럼 당신을 비난합니까?					

B.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화 도
중, 얼마나 자주 아래와 같이 느낍니까?

번호	문항	거의 항상 그렇 다 ①	자 주 그 렇 다 ②	때 때 로 그 렇 다 ③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④	전 혀 그 렇 지 않 다 ⑤
12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 당신은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3	당신이 동의하는 의견에 대해 당신은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4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 문제에 대한 서로의 다른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15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점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16	다음의 감정이 당신의 배우자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에 전해집니까?					
	① 실망	② 화	③ 혐오	④ 생색	⑤ 분개	⑥ 적개심
	⑦ 좌절	⑧ 괴로움	⑨ 자기연민	⑩ 냉소	⑪ 당신을 향한 존경	

C.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자주 아래와 같이 느낍니까?

번호	문항	거의 항상 그렇다 ①	자주 그렇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17	타협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좋다'고 느낄 만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18	결정된 사항은 당신은 당신의 첫 의견과 아주 조금 변경되었습니까?					
19	당신은 당신과 배우자가 만족할만한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까?					
20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불평으로 가까운 시일에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됩니까?					
21	당신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자마자 당신의 배우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니까?					
22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합니까?					
23	당신이 아무리 당신의 배우자가 찾은 해결책보다 더 나은 것을 제안하더라도, 당신의 배우자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합니까?					
24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을 합니까?					
25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26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27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부록 5>

Ⅲ. 부부적응 척도(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

A. 다음 문항을 읽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 당신과 배우자가 얼마나 의견이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 하세요.

번호	문항	항상 일치 ①	거의 대부분 일치 ②	가끔 일치 ③	자주 불일치 ④	항상 불일치 ⑤
1	종교문제					
2	애정표현					
3	주요 의사결정					
4	부부성관계					
5	관습 또는 관례(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 정확하고 적절한 행동					
6	직업 결정					

B. 다음은 당신의 결혼 적응과 관련하여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 하십시오.

번호	문항	거의 항상 한다 ①	자주 한다 ②	때때로 한다 ③	대체로 하지 않는다 ④	전혀하지 않는다 ⑤
7	이혼이나 별거와 같이 부부관계를 단절하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8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부부싸움을 합니까?					
9	결혼하신 것을 후회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0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1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여가 생활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합니까?					

2-2. 배우자의 학력

-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⑥ 기타()

당신과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당신의 직업

- ① 사무직 ② 자영업 ③ 영업직 ④ 전문직 ⑤ 기타()

3-2. 배우자의 직업

- ① 사무직 ② 자영업 ③ 영업직 ④ 전문직 ⑤ 기타()

4.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50만원 미만 ③ 2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5. 당신과 배우자의 결혼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 년 ____ 개월

6. 당신 부부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6>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 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프로그램 주제와 목적에 맞게 자료가 준비되었다.					
2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3	프로그램 시작 때 회기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4	회기별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실행하였다.					
5	참여 부부에게 질문과 발표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6	해당 회기 프로그램 시작과 마침 시간이 적절하였다.					
7	프로그램은 목표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					
8	부부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록 7>

사회적 타당도 체크리스트

성별: 남 여

부부 소통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만 족 ⑤
1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당신(부부)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2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부부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	부부가 서로 알아 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	부부대화를 통해 부부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부부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	부부소통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7	다음 단계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8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다른 부부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십니까?					

<부록 8>

상호이해 : 2회기

주 제	서로 이해하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아간다 - 상대방에게 집중한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주간 나의 느낌 나누기(1회기 점검) - 강의: 느낌과 생각 구별하기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기억(느낌 알아보기) - 나는 부모와 닮은 모습 찾아내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내가 알아내는 것 표현하기 - 심리검사(TA 이코그램 검사) 			
유의사항	과제1: 배우자에게서 나의 부모 모습(장점) 바라보기 과제2: 나의 느낌은 어떠한가(느낌표 붙이기)				
회기별 준비물	유인물(부, 모 그림), 필기도구, 느낌표 과제노트, 명찰,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부록 9>

대화전략 : 4회기

주 제	나의 모습 비춰보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 부부편지 쓰기로 대화를 촉진한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율동2(명상) 강의: 부부 소통2 - 부부소통 대화하기(반영) - 부부갈등 직면하기 - 편지쓰기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지쓰기(발표) - 있는 대로 바라보기(인정) - 부부갈등 문제 직면하기 - 그랬구나! '나'라도 그랬을거야!(공감)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반영, 인정)하기 - 부부갈등 다루기 			
유의사항	과제: 대화주제선택(편지쓰기, 반영, 인정) 실천하기				
회기별 준비물	편지지, 필기도구 과제노트, 명찰, 느낌표,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부록 10>

갈등해결 : 6회기

주 제	건강하게 부부싸움하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 부부대화를 통한 갈등을 이겨나간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부부 소통4 (인정, 공감) - 우리는 하나 - 협력적인 소통(반영, 인정, 공감)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갈등관리 - 부부 하나 되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부부갈등 해결 - 협력적인 소통(반영, 인정, 공감) 			
유의사항	<p>과제1: 부부갈등을 위한 노력하기</p> <p>과제2: 갈등에 대해 대화하기(반영, 인정, 공감)</p>				
회기별 준비물	과제노트, 명찰, 느낌표,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스트레코드, 다과				

<부록 11>

미래에 대한 기대 : 8회기

주 제	친밀한 부부로 나아가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 그리고 희망 - 브릿지과정 탐색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부부 소통6 (반영, 인정 공감) - 부부소통 기법 환기시키기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한 부부로 가는 길(반영, 인정, 공감) - 부부갈등대처 및 관리 능력 기르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전체) 소감 나누기 -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 하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 변화에 대해 탐색하고 이에 대한 내용 적어오기				
회기별 준비물	과제노트, 명찰, 느낌표,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최종본 회기별

<부록 12>

1회기: 상호이해

주 제	나와 우리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배우자를 알아갈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 및 가족의 이해를 알아갈 수 있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을 위한 활동(댄스, 명상)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규칙정하고 별칭 정하기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인가 - 배우자를 소개한다 - 프로그램의 성격 - 가족의 이해를 도모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도록 요청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배우자의 장점 되돌아보기 - 부부의 문화차이 선행 학습하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대화 노트에 부부의 문화차이 적어오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부록 13>

2회기: 나의 모습 찾아가기

주 제	나의 모습 찾아가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돌아본다. - 부부의 성향을 알아가기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배우자의 문화차이 발표하기 - 개인과 부부의 성향에 대해 발표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모델을 통해 배우기 - 한국, 출신국의 문화차이 영상보기 - 문화차이 부부별 발표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차이 점검하기 - 감정과 생각차이 선행 학습 			
유의사항	과제: 출신국 감정 표, 생각표 한 단어씩 10장 이내 만들어 오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자녀	자녀 언어, 진로탐색 1				

<부록 14>

3회기: 감정과 생각

주 제	감정과 생각 나누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과 생각이 다른 점을 찾아 간다. - 부부에 대해 감정 표현해 본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인지적 모델링 강의 - 과제물 확인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표로 자신과 배우자를 표현하기 - 감정표를 활용하여 부부 각각 발표하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과 생각의 차이 재검토 - 부부대화방법(반영) 영상 보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1가지 구체적인 대화노트에 따라 적어오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4회기: 부부대화방법 1

주 제	부부대화방법 1(반영)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 부부대화방법을 습득한다. - 부부대화와 감정표현으로 반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인지적 모델링 강의 (반영: 말하는 사람이 표현한 것을 받는 사람이 되돌려주는 방법)			
	전개 (60분)	- 과제물에 적힌 부부문제를 직접 촉진자와 함께 시연하기 - 감정 표현으로 부부문제 해결하는 방법 습득 - 부부의 대화 영상보기			
	정리 (30분)	- 실제적인 부부갈등 문제 점검하기 - 부부대화방법(인정) 영상 보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2번째 구체적인 대화노트에 따라 적어오기,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선행 연습해오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동영상 자료 준비				
자녀	여가활동 1				

<부록 16>

5회기: 부부대화방법 2

주 제	부부대화방법 2(인정)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 부부대화방법을 습득한다. - 부부대화와 감정표현으로 인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인지적 모델링 강의 (인정: 배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전개 (60분)	- 과제물에 적힌 부부문제 2를 직접 촉진자와 함께 시연하기 - 감정표현으로 부부문제 해결하는 방법 발표 - 부부의 대화사례 영상보기			
	정리 (30분)	- 실제적인 부부문제 시연 경험 점검하기 - 부부대화방법(공감) 영상 보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3번째 구체적인 대화노트에 따라 적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연습해오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트레코드, 다과, 영상물				

<부록 17>

6회기: 부부대화방법 3

주 제	부부대화방법 (공감)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대화방법을 습득한다. - 부부대화와 감정표현으로 공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인지적 모델링 강의 및 시연(공감: 그때 당신의 심정을 알겠어! 나라고 그랬을 거예요!)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물에 적힌 부부문제 3을 직접 촉진자와 함께 시연하기 - 감정표현으로 부부문제 해결하는 방법 발표 및 시연 - 사랑의 편지쓰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인 부부문제 3 시연 경험 점검하기 - 갈등사례 영상 보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4번째 구체적인 대화노트에 따라 적고 부부대화방법으로 가정에서 연습해오기(부부가 해결한 것과 안 되는 것 구체적으로 적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영상물				
자녀	자녀 언어, 진로탐색 2				

<부록 18>

7회기: 갈등해결

주 제	부부갈등 마주하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대화방법을 통해 부부갈등을 직면해 본다. - 부부 스스로 갈등해결을 위해 시도해 본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인지적 모델링 강의 및 시연 (갈등 직면할 때 취하는 태도)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물에 적힌 부부문제 4를 직접 촉진자와 함께 시연하기 - 감정표현으로 부부문제 해결하는 방법 발표 및 시연 - 춤 동작을 통해 자신의 갈등 마주하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인 부부문제 4 시연 경험 점검하기 - 갈등사례해결 영상 보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5번째 구체적인 대화노트에 따라 적고 부부대화 방법으로 가정에서 연습해오기(부부가 해결 한 것과 안 되는 것 구체적으로 적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전문가 초대				

<부록 19>

8회기: 갈등 해결

주 제	부부갈등 풀어내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면한 갈등을 드러내고 부부갈등을 풀어 본다. - 부부 스스로 갈등해결 경험을 해 본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울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인지적 모델링 강의 및 시연(갈등 해결방법)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물에 적힌 부부문제 5를 부부가 갈등해결을 시연하기(촉진자 배제) - 감정표현으로 부부 갈등해결 발표 및 시연 - 부부갈등 미해결 시에 촉진자와 함께 시연하기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인 부부 갈등해결 5 시연 경험 점검하기 - 형클어진 실타래 함께 풀기(부부가 함께 풀어보기) 			
유의사항	과제: 부부 갈등해결에 대해 6번째 문제를 구체적인 대화노트에 따라 적고 부부대화 방법으로 가정에서 연습해오기(부부가 해결한 것과 안 되는 것 구체적으로 적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자녀	여가활동 2				

<부록 20>

9회기: 미래에 대한 기대

주 제	건강하게 소통하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방법으로 부부 갈등해결 알아보기 - 협력적인 대화방법을 통해 부부대화하기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인지적 모델링 강의 및 시연 (건강하게 싸우는 방법)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물에 적힌 부부 갈등해결 6을 부부가 갈등해결을 시연하기(촉진자 배제)(6쌍 모두) - 감정표현으로 부부 갈등해결 발표 및 시연 - 부부갈등 미해결 시에 촉진자와 함께 시연하기 - 형클어진 실타래 함께 풀기를 통해 부부의 경험 발표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 찾기(개인, 부부, 집단원) 및 역할분담, 가정 예산 짜기 - 부부 성생활 영상 보기 			
유의사항	과제: 개인 및 부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찾아오기, 부부 성에 대한 부부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오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명찰,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트레코드, 다과, 영상				

10회기: 미래에 대한 기대

주 제	친밀한 부부로 나아가기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 미래에 대한 예산 계획을 알아본다. - 부부의 꿈과 비전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내용	도입 (30분)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부부 성교육 강의			
	전개 (60분)	- 부부의 변화 확인하기 - 부부 성에 대해 경험 발표하기 - 건강한 부부 성생활 영상 보기 - 역할분담, 가정 예산 짜기			
	정리 (30분)	- 부부의 꿈과 비전표 만들기 - 협력적 부부대화로 부부 갈등해결에 대해 경험 발표			
유의사항	과제: 역할 분담표, 부부 비전표를 가정에서 다시 수정, 보완해오기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감정, 생각표, 개별과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전문가 초대				

<부록 22>

11회기: 가족으로의 확대

주 제	부부에서 가족으로 확대	형 식	집단 프로그램	시 간	120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연결하기 - 가족관계 이해하기 				
활동내용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서적 접촉(운동, 댄스) - 과제물 확인 - 나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전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자녀 대화가기(자녀진로탐색을 통해) - 부부, 가족 문제해결방법 찾기 - 부부, 자녀 대화 시연(필요시 촉진자 투입) 			
	정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식(가족, 진로탐색, 바둑프로기사, 전문가초대) 			
유의사항	과제: 지속적인 부부대화 약속(후속 모임)				
회기별 준비물	대화노트, 개별파일, 카메라, 보이스레코드, 다과, 전문가초대				

Abstract

Development of a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Its Benefits

Kim, Gum Hee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For individuals to live a satisfied marriage life, marital communication should be smoothly performed. In marriage life, couples should come to know each other, acknowledging and sharing that they have different personal culture and linguistic background. Marital cooperative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y acknowledge and respect that they are different each other. In particular, if couples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ples becomes more important.

For this reason, it becomes more necessary to have a program for smooth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and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that are related to cultural adapt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Korea and Korean language have been continuously made so far, whereas there are few interests in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the fact that

couples have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in marriage life may have a great influence on spouses and all family members as well as married female immigrants, related policies considering this are requir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gram that is suitable for couples as well as married female immigrants by identifying what their needs are.

In particular, in solving the difficultie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face in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various problems occurring from marriage life, expert's help is very important. However, we have few couple dialogue programs applying systematic counselling techniques designed to solve problem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are facing through actual marital convers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interests in multicultural families yet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s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applies these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n analyzes the effects.

Prior to program development, first,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tract the elements that constituted a multicultural family communication program and the execution strategies and based on these elements and strategies, initial programs were conducted.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initial programs were modified and complemented and this program centering on mutual understanding, conversation strategy, and conflict resolution was composed of nine (9) sessions. This program consisted of cognitive model lecture and participants' presentation and demonstration of marital conversation experiences, and physical and emotional activities, and other

various elements.

To see how such a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effective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gram was executed in twelve (12) pairs of participant (six pairs in experiment group, six pairs in control group). To measure the outcomes of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for enhancing communicatio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pre-test and post-test were condu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experiment group vs. control group. Marital communication was verified by using covariance analysis (ANOVA) and pre- and post-test of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adaptation were conducted by using t-test for two dependent samples. And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and recognition of participants in the program, researcher's field daily logs and tape recordings about the program process were transcribed for qualitative analysis. At the same time, when the program ended, there was an interview with participants for one and a half hour.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analyzed in terms of qualitative analysis and the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ere identified and finally our modified program was presented. And the validity of this program was approved from three experts and our final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was develope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was developed centering on constituting elem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execu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participation. Second, in improvement in marital communication, experiment group who participated in intervention program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n control group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in both pre-test and post-test. Third, experiment group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arital conflict resolution than control group in pre-test and post-test. Fourth, experiment group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arital adaptation in both pre-test and post-test. This proves that the program proposed in this study has a positive impact on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Fifth, qualitative analysis reveals that this program has a positive impact on marital conversation, marital conflict coping ability, and marital intimacy.

The experiment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acknowledged that they were different people and learned how to make conversation through marital communication. Through this,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had the willingness to resolve marital conflicts and understood conflict management methods. Also,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couple conversation, couples came to know each other's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 and personality and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Through this process,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could solve their marital conflicts in the actual fields through couple conversation.

In other words,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could learn how to have a conversation and experienced continuous practicing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The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because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could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by using relationship-focused conversation methods, for example, reflection, acknowledgement, and sympathy. Thes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is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marital communication 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couples to grow together.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in experiment group had a difficulty in communication and their husbands also had a difficulty in speaking their wife's mother tongue and also in that as the program consisted of small groups, it cannot be generalized to all multicultural families. This researcher suggests to develop, execute, and verify continuous and systematic marital communication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this program. Also, I raise the necessity of cultural facilitators who are necessary for communic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Further studies need to develop interventions so that couples can speak smoothly. This will strengthen marital capability for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Keywords: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conflict resolution, marital adjustment, feeling conversation, conversation strategy, relationship improvement, relationship-focused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cooperative communication, cultural facilitator, individualized support, cognitive modeling, call for reasonable change